

대비 시리즈

# 문법 통합전략



[36 3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겠습니다, 읽었느냐,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
- ③ 어미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용언은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⑤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2013 대수능] 37. 추론적 사고(숨겨진 내용의 추리) ㉠ ㉡  
 ■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어미, 조사, 접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어미와 조사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어미는 항상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선행 요소인 어간 또한 자립할 수 없음에 비해, 조사와 함께 쓰이는 선행 요소는 독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어간과 어미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어간+어미’의 형태로 문장 성분이 된다. ③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품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용언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 반면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2. [보기]의 ㉠~㉣를 ㉠~㉣의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 집 앞에서 ㉠ 지나가는 선우를 ㉡ 만났어. ㉢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 많이 좋아졌다.

**주인** 정말? 이제 마음이 ㉣ 놀이네. 계속 ㉤ 걱정하고 있었거든.

- ① ㉠ : 내에서 '선우'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② ㉡ : 어간인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 : 조사 '에'는 생략 가능하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 : 동사 어간 '놀이-'는 '놀-'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 : '걱정하-'에 어미 '-고'가 결합한 '걱정하고'는 쓰일 수 있으나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걱정하이-'는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2013 대수능] 3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

❑ '마음이 놀이네.'라고 할 때의 '놀이네'는 동사 어간 '놀-'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놀다'와 '놀이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지나가는'이라는 용언은 '선우'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만났어'는 '만나-', '-았-', '-어'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병원에 가는 길'은 '병원 가는 길'로 써도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 예가 될 수 있다. ⑤ '걱정하고'라는 용언은 '걱정하-'라는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인데, '걱정하-'라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를 결합시킬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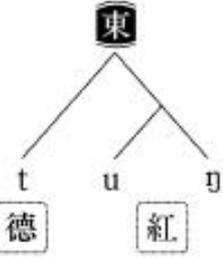
[2013 대수능] [36-38] 언어, '용언의 어미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용언의 문법적 기능이 용언의 어미에 의해 나타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용언의 어미가 지닌 속성을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특히 어미의 특성을 조사나 접미사의 특성과 대비함으로써 그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용언의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사와 공통적이지만 대상의 앞에 오는 선행 요소가 독립적인가 아닌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 어미와 접미사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의 여부와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 용언의 어미가 지닌 문법적 특성

[40 4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韻書)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東’(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는 반절법에 의해 ‘德’(덕)의 초성 [t]와 ‘紅’(홍)의 중.종성 [un]을 이용해 표시했다. 이때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 이러한 발음 표시 방식은 조선의 역관들이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 『사성통해』에서는 한자 ‘東’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표음성을 이용해 중국의 한자음을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절법과 달리 한자의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 이를테면 ‘부부[pubu]’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 [p]와 유성음 [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ㅂ’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가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ㄱ’, ‘다도’의 ‘ㄷ’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한글의 표음성은 국어 화자들의 ‘예민한 귀’보다는 ‘지혜로운 머리’에 맞춰진 합리성을 보여 준다.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었다.
- ㉡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 ㉢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 ㉣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 ㉤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2012 대수능] 40.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 ㉡  
 ■ 『사성통해』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반절법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것은 중국의 운서이다.(2문단) [오답피하기] ㉠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였다. 이를 반절법이라고 불렀다.(1문단) ㉢ 『사성통해』 조선 시대 역관들은 중국의 운서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성통해』를 이용하여 학습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 사성 통해에서 ‘東’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한 것이다.(2문단) ㉤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것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다. 한글이 그런 이상적인 발음기호가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3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②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2012 대수능] 4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㉔ ㉕ ㉖

㉔ 중국의 운서는 두 개의 한자를 이용해 한자음을 표현한다.(1문단) 그러므로 두 개의 발음이 나는 한자는 4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고 3개의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6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㉕ ‘반절법’은 한자를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초성과 중·종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㉖ ‘東(동)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㉗ ‘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말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1문단) 일관성이 없어서 학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㉘ 한 글자의 발음을 알기 위해 하나의 발음 기호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을 조합해야 하므로 학습하는 데 불편했을 것이다.

### 3.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기 ]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 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 [고 궁 이 크 다 ]

B : [ko gun i kʰɿ da]

-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군.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군.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군.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군.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군.

[2012년 대수능] 42. 추리적 사고(원리의 적용) ㉔ ㉕ ㉖

㉔ [고궁이 크다]에서 같은 음으로 표시된 ‘고’의 ‘ㄱ’과 ‘궁’의 ‘ㄱ’이 B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 [g]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음소적인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4문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㉕ 한글은 무성음 [k]와 유성음 [g]의 다른 소리를 같은 음자인 ‘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음성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고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고 한다. ㉖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에서 출현 환경은 어두와 모음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무성음 [k]는 어두에서 소리 나고 유성음 [g]는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므로 출현 환경이 다르다. ㉗ ‘고궁이 크다’에서 ‘궁’의 ‘ㅇ’은 ‘[ŋ]’으로 ‘이’의 ‘ㅇ’은 무음 ‘∅’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았다. ㉘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발음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음성적 차원의 표기이다. 반면 A는 음소적 차원의 표기이므로 B가 표음성이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12 대수능] [40-42] 언어 ‘한글의 표음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중국의 운서가 택한 ‘반절법’이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 대응이 아니어서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들어 표음 문자인 한글의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의 표음성을 ‘발음 기호’와 혼동하면 안 된다. 한글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현 환경이 다른 음성이어도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는 경우, 이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음소적 차원의 표기를 따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한글은 표음성의 원리를 위해 ‘정확한 발음을 적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표기법을 택하고 있다.

[주제] 표음문자인 한글의 음소적 특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호도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밑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어둑새벽’, 그리고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스’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뿔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뿔>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뿔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2011 언어영역] [37-39] “원래 비통사적 합성어였던 ‘두더지’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두더지’의 예를 들어 옛날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는 단일어처럼 인식되어 그러한 원래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힘든 단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더지’가 옛날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음에 착안하여,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사적 합성어와의 대비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언어 변화로 인한 단어 구성 방식 파악의 난점

1.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2011 언어영역] 37.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 불일치 파악) ㉠ ㉤ ㉥

■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에는 단일어로 여겨져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두디다’>‘뒤지다’와 같은 그동안의 언어 변화로 인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본래 합성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단일어로 여겨진다. ② 합성어 유형 구분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른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견주어 볼 때 차이가 드러난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의 어간은 ‘뿔’인데, ‘뿔>숫’의 형태 변화로 인해 아예 소멸되었다.

2.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15 ]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 오답노트 ]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            ’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2011 언어영역] 38. 비판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㉞ ㉟ ④  
 ■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시’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능이 오늘날의 ‘에’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귀엣’은 ‘귀(명사)+에(부사격 조사)+시(관형격 조사)’로 분석되며, ‘거우루엣’은 ‘거우루(명사)+에(부사격 조사)+시(관형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보기>에서 ‘제’는 생략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거우루엣’과 ‘그르멜’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루었는데 ‘거우루엣’은 ‘귀엣’과 유사한 구성이고 <보기>의 ‘그르메’와 ③의 ‘말’은 모두 명사이므로 ‘귀엣’과 ‘말’ 사이에도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⑤ ‘귀엣말’은 15세기 당시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으나 현재에는 단일어로 인식되므로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다.

3.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가락 ○빼빼하다 ○연필	㉠	가락연필	… ①
		㉡	빼빼한연필	… ②
스캔하다	○읽다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 ③
스파게티	○부드럽다 ○새콤달콤하다 ○국수	㉣	부드럽국수	… ④
		㉤	새콤달콤국수	… ⑤

[2011학년도 언어영역] 39. 창의적 사고(새로운 상황への 적용) ㉞ ㉟ ③  
 ■ ㉢는 ‘오르-’라는 용언 어간과 ‘내리-’라는 용언 어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르내리다’라는 합성어로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읽다’와 ‘갈무리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읽갈무리하다’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② ‘빼빼한’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④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⑤ ‘새콤달콤’이라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1'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운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 (A→B/..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2010 언어영역] 30. 구체적 정보에 대한 이해 [보기] ②

☞ 둘째 문단에서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운들을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운은 [+비음성], [-비음성], [+양순성], [-양순성] 등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설명은 ②이다. ㉠ 첫째 문단에서 변별적 자질은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첫째 문단의 /□/, /ㅂ/에서 볼 수 있듯이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의 묶음을 통해 음운의 음성적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통해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기는 어렵다. ㉢ 셋째 문단의 예에서 보듯이 한 음운이 [+F]이면서 동시에 [-F]일 수는 없다. ㉣ 셋째 문단에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두 개의 정보를 알려주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하였다.

2.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기 ]

[ - ]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     ] A → B / ..C

[실례] ㄱ → ㅇ / ..□ 국물[궁물]

          ㄷ → ㄴ / ..□ 만며느리[만며느리]

          ㅂ → □ / ..ㄴ 읍내[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ㄹ’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④ ‘읍내’에서 ㉔에 해당하는 ‘ㄴ’과 ‘ㄹ’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⑤ ‘국물’에서 ㉔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2010 언어영역] 31. 정보의 이해를 통한 자료 해석 ㉔⑤  
 <보기>는 제시된 글에서 설명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여 음운 현상을 표시한 구체적 예이다. ㉑~㉔을 <보기>에 하나씩 대입하여 변별적 자질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 ① 규칙을 적용 받기 전의 음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다. ②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에 해당하는 ‘ㅇ, ㄴ, ㄹ’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③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인 ‘ㄴ, ㄹ’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 ④ ‘읍내’에서 규칙을 적용 받기 전의 음인 ‘ㄴ’과 규칙을 적용 받은 후의 음인 ‘ㄹ’은 [+양순성]이라는 공통되는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 ⑤ ‘국물’에서 규칙을 적용 받은 후의 음인 ‘ㅇ’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인 ‘ㄹ’은 [+비음성]이라는 공통된 변별적 자질을 가지므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는 음들이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010 언어영역] 언 어 [30-31] 언어학에서의 변별적 자질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의 개념을 음운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한 글이다. 변별적 자질은 음운을 변별하는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변별적 자질은 ‘ㅏ’나 ‘ㅑ’의 양분적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말소리가 범주적 양상으로 지각됨을 설명해 주며 상호 예측성을 통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문단의 중심 내용>

- 제1문단 : 변별적 자질의 개념
- 제2문단 : 변별적 자질을 통한 음운 동화 현상 설명
- 제3문단 : 변별적 자질의 효율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 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ㅋ)은 1도, 비음(ㅁ, ㄴ, ㅇ[n])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ㅝ, ㅜ, ㅡ)은 4도, 중모음(ㅗ, ㅛ, ㅜ, ㅠ)은 5도, 저모음(ㅓ, ㅕ)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ㄷ	ㅊ	ㅇ	ㄷ	ㅏ	ㅓ	ㅗ	ㄴ
개구도	0	5	2	0	6	2	4	2
부등호	<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ㅊㅇㄷㅏㅓㅗ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n]’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n]’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ㅈ, ㅊ, ㅋ’이면 모음 ‘ㅏ, ㅛ, ㅜ, ㅠ, ㅡ’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n]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1.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8 언어영역] 31. 사실적 사고(세부적 사실의 확인) ㉠) ①  
 정답해설 : 이 글은 ‘입의 벌림 정도’ 즉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開口度)’를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 0도, 마찰음과 파찰음 1도, 비음 2도, 유음 3도, 고모음 4도, 중모음 5도, 저모음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셈'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쓰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 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점]

- ①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된 문자다.
- ② 음절 문자는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
- ③ 한글은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④ 한자는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
- ⑤ 문자 발달사 단계와 문자의 우수성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005 언어영역] 44.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4) ㉡

정답해설 : 음절 문자나 음운 문자는 모두 표음 문자에 속한다. 표음 문자는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음절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일본의 가나가 있으며, 음운 문자는 자, 모음으로 분리되는 영어나 한글이 있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음절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절 문자보다 음운 문자의 글자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그림 문자는 대상을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표음 문자는 추상화된 기호에 의미를 결합시킨 사회적인 약속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표음 문자가 그림 문자보다 더 발달된 문자라 할 수 있다. ③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한글은 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다고 했다. ④4문단 전반부에서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는 글자의 음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⑤3문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글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ㄷ에 들어갈 말은?

[ 보기 ]

항목	한자	한글
문자 분류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자형에 반영된 특성	언급 없음	( ㄱ )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	( ㄴ )	( ㄷ )

- ㄴ                      ㄷ
- ① 자질 문자    음운 문자    음절 문자
  - ② 음절 문자    음운 문자    자질 문자
  - ③ 자질 문자    음절 문자    음절 문자
  - ④ 음운 문자    자질 문자    음절 문자
  - ⑤ 자질 문자    음운 문자    음운 문자

[2005년 언어영역] 45.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 ③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한글은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적 특징을 가진다고 했다(ㄱ). 그리고 4문단에서 한자는 문자 분류상으로는 표의 문자이지만,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음만 이용하는 음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ㄴ). 한글 또한 음운 문자이면서도 문자 운용에 있어서는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정점을 가진다(ㄷ). 이것이 바로 같은 음운 문자인 영어 알파벳과 다른 한글만의 장점인 것이다.

3. [보기]는 ①과 같이 한글을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기했음직한 의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점]

한글은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특이한가?	음, 자세히 살펴보니, 'ㄱ'과 'ㅋ', 'ㄷ'과 'ㅌ'처럼 서로 닮은 글자들이 많이 있네. .... ①
↓	
자형이 소리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ㄱ'→'ㅋ'처럼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는 원래 글자와 소리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 위치가 같군. .... ②
↓	
가획이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자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그리고 보니 가획이 '거셈'과 같은 음운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네. .... ③
↓	
다른 문자 중에서 자형이 자질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까?	'木'과 '林', '日'과 '目'을 보니, 한자도 글자 모양의 차이가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는구나. .... ④
↓	
자형이 자질을 반영하는 문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한가?	결국 문자들의 차이를 잘 구별해 주려면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좋겠어. .... ⑤

[2005년 언어영역] 46. 창의적 사고(사고 과정의 파악) **㉠** ④  
 정답해설 : 글쓴이는 한글은 음운 문자에 속하면서도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보기이다. ④에 보기로 제시된 한자는 자형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문자 전체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글자가 자질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에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①2문단에서 확인할

있듯이 'ㄱ, ㅌ'은 'ㄱ, ㄷ'에 가획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닮았다. ②2문단 6-7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글자와 가획 글자의 발음 위치는 같다. ③2문단 7-8행에서 가획을 통해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낸다고 했다. ⑤2문단 4-6행에서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질 '문자'를 설정한다고 했다.

4. [보기]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 기 ]

-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 |  |   |
|--|---|
| <p>① </p> <p>③ </p> <p>⑤ </p> | <p>② </p> <p>④ </p> |
|--|---|

[2005년 언어영역] 47. 창의적 사고(내용의 이해와 적용) ㉠) ③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3개이다. 첫째 음운 문자,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 셋째 모아쓰기이다. 첫째 음운 문자는 표음 문자 중의 하나이기에 글자가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호로 표시되더라도 자, 모음으로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③,④,⑤) 하지만 '도토리'에서 '도'와 '토'의 모음은 같기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은 ③ 하나뿐이다.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토리'에서 'ㄷ'과 'ㅌ'의 연관성처럼 새로운 문자에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③, ④) 셋째 모아쓰기는 도토리와 같이 세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③, ④, ⑤) 오답피하기 : ①, ②자, 모음의 분리가 없기에 모아쓰기도 하지 않았으며, 자질 문자의 특성도 확인할 수 없다. ④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모아쓰기도 하였으나 모음의 표기가 잘못 되었다. ⑤음운 문자, 모아쓰기만이 반영되었다.

[2005 언어영역] [44-47] 언어, '문자 발달사에 따른 문자의 장단점과 한글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문자 발달사에 따른 각 문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자들이 지닌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자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한글의 문자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다. 글쓴이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과 구체적 예시, 비교·대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호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언어의 체계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말소리나 단어들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체계를 이루는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변화를 입게 되면 다른 항목이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 전까지 유지되어 있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즉, ㉠체계가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선택’이란 한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언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자 할 때,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한 각각의 세 항목을 두고 선택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곧 단어들의 체계이다. 즉 체계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항(選擇可能項)의 집합이라 말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한 단어의 수는 몇 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이것’, ‘그것’, ‘저것’은 3항이었지만, 이른바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 ‘단수’와 ‘복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 둘뿐이다. 이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선택을 폐쇄적인 선택이라 한다. 폐쇄적인 선택의 대표적인 것으로 문법 범주(文法範疇)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선택과는 달리 선택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도 있다. “철수가 ( )을/를 보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형은 무수하게 많다. 철수가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사건을 대표하는 언어 형식이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의 제한이 없는 선택을 개방적인 선택이라 한다. 대체로, 문법 범주의 경우에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어휘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

언어를 살필 때에 구조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다. 구조란 대체로 언어 형식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와의 관계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앞에서 ‘체계’를 선택 관계로 설명한 바 있는데, ‘구조’는 이와 달리 통합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것은 음운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은 ‘ㄹ, ㅏ, ㄱ’의 세 음운을 구성 요소로 가진다. 거꾸로 말하면 ‘ㄹ, ㅏ, ㄱ’ 세 구성 요소는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형태소는 이처럼 몇 개의 음운을 구성 요소로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형태소는 다시 상위 구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았-’과 ‘-고’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이 두 구성 요소는 ‘-엇고’라는 어미가 됨으로써 다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또, ‘사람은’, ‘착한가’는 “사람은 착한가?”와 같이 문장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된다. 문장을 언어 연구의 가장 큰 단위로 보던 때에는 문장이 가장 큰 구조이므로 더 이상 단위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시야가 넓어져서 ㉣‘담화’나 ‘이야기’나 하는 것을 언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문장이 이들의 구성 요소가 된다.

[2004 국어영역] [34~38] 언어 제재

1. 을 [보기]와 같이 설명할 때, [보기]와 가장 가까운 사례는? [3 점]

[ 기 ]

나이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말이 '젊은이', '늙은이'뿐이었는데, 후에 '어린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이로 인해 이들 각 낱말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체계 전체에 변화가 생겼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 ① 고유어 '뫼'가 한자어 '산(山)'으로 대체되었다.
- ② '천연두'라는 병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말은 남아 있다.
- ③ 우리 학교에서는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던 것을 올해부터 '수-미-가'로 평가한다.
- ④ 예전에 없던 물건인 라디오가 서양에서 들어옴에 따라, '라디오'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 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계절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다.

[2004 언어영역] 3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답] ③  
 ⇒ 새로운 언어의 생성으로 인해 기존 어휘의 의미 범주가 변함으로써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③이다. '우'와 '양'이라는 평가 요소의 소멸로 인해 기존의 '수, 미, 가'가 의미하는 범위가 변하게 되므로 ⑤의 사례로는 적절하다.

2. 은 구체적인 문맥에서는 선택 가능항이 매우 제한되기도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는 덩치가 매우 큰 편이야.
- ② 철수는 ( )을/를 많이 먹었어.
- ③ 철수는 어제 ( )에서 공부를 했어.
- ④ 철수는 그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 ) .
- ⑤ 철수는 오늘 식물원에서 ( ) 꽃을 보았어.

[2004년 언어영역] 3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답] ④  
 ⇒ 대부분의 어휘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선택의 폭이 넓지만, ④와 같은 경우는 선택 가능한 어휘가 '적다'와 '많다' 정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④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반면 ①, ②, ③, 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휘 선택이 이루어진다.

3. [보기]는 ㉠의 한 예이다. 위 글에 나온 개념들을 활용하여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 된 것은?

[ 보 기 ]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서둘러야 한다. 철수는 빠른 손놀림으로 ㉢ 책을 챙겨 가방에 넣는다. 어깨에 가방을 걸쳐 메고는 미끄러지듯 현관으로 달려간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운동화 끈을 조이며 생각한다.

“㉠ 지각이냐 아니냐는 ㉡의 두 발에 달려 있다.”

- ① [보기] 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이다.
- ② ㉠은 [보기] 글의 '구성 요소'이다.
- ③ ㉠과 ㉡는 서로 '통합 관계'에 있다.
- ④ ㉢를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이 모여서 '체계'를 이룬다.
- ⑤ ㉠과 ㉡는 서로 '선택 관계'에 있다.

[2004년 언어영역] 36.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답] ⑤  
 ⇒ ㉢에서 ㉠과 ㉡는 한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므로 선택 관계가 아니라 통합관계이다. ㉠에서 <보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조'이며, ㉡에서 ㉢는 문장이므로 이야기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4. [보기]에서 설명한 '선택' 개념에 따라 때,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은?

## [ 기 ]

‘이’라는 말은 그 개념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은 ‘계층’, ‘지역’,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선택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봉사 갖들진디 문수(問數)하오 웨련만년, 시골 봉사라 문복(問卜)하오 하며 외고 가니
- ② 예전에는 주인을 찾는 방식이 “이리 오너라!”라 하였는데, 요즘은 “여보세요.”란 표현이 즐겨 쓰인다.
- ③ 종이 진지를 고희거든 ‘올니라’ 말고 ‘드리라’ 하고, 숙녕을 먹으려 하거든 ‘가져오라’ 말고 ‘진지하라’ 하느니라.
- ④ 어스 왈, “저 농군 여복시. 검은 소로 밭출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농뉘 대답하디, “그러키의 밝으라고 벗 다랏시오.”
- ⑤ 밥이라 하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요,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제배(儕輩)가 먹으면 밥이요

[2004 언어영역] 37.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 ①

☞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관계에 적당한 예는 ①이다. 한 봉사는 ‘문수하오’라고 외치고 다른 봉사는 ‘문복하오’라고 외치는데 이는 서울과 시골이라는 지역차에 의한 것이다. ②는 시대를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의 예이며, ③과 ⑤는 계층을 기준으로 한 선택관계의 예이다.

## 5. 피동 표현 중, ㉠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 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 ②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 ③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 ④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⑤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2004년 언어영역] 38. 세부정보의 파악과 적용하기 ㉠ ⑤

☞ ①은 ‘어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②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③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④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로 능동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⑤의 경우 ‘감기가 철수에게 걸렸다’라는 능동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 언어를 문화의 색인(索引)이라고까지 말한다. 한 민족은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사상, 감정 및 사고 방식도 아울러 지닌다. 이들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어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량의 한자어들이 들어와 한자어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자는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이 땅에 전래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신라 22대 지증왕 때와 35대 경덕왕 때에 각각 ㉢인명과 지명 등을 한자어로 바꾸었다. 이러한 한자어는 그 후 고려 시대에 불교, 조선 시대에 유학이 융성함에 따라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어 우리말에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서는 ‘yellow’ 하나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어의 감각어가 얼마나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상징어는 주로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인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고,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휘와 관련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력을 높이려면 우선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합성법을 사용하거나, ‘-보, -쟁이’ 등 파생 접사를 이용한 파생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 위해 외래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문을 사용해 온 까닭으로 우리말에는 다량의 한자어가 들어와 있다. ㉨우리 민족은 한자어를 받아들여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었으며, 한자어 명사나 부사에 ‘-하다’를 붙여 우리말 조어 규칙에 맞는 동사로 만들어 받아들였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하다’, ‘다이내믹하다’처럼 영어의 형용사에 ‘-하다’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또 우리말에 발달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새로 만드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사전에는 ‘사르르’만 실려 있는데, 실제 발화에서는 ‘사르르르’, ‘사르르르르’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소설류에는 ‘나훤나훤’, ‘필릴리’ 등 기존 사전에 없는 상징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일부는 개인이 만든 것일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어휘들은 이후에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 사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촌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하늬바람’이 시어 등에 자주 사용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가람, 뫼’ 등 옛말 어휘가 오늘날 인명, 상표명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우리말에 존재하던 어휘들이 새롭게 쓰이면서 정서적인 의미를 추가로 가지게 되어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1. ㉠ ㉦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을 ㉦에서 사례를 들어 보완하고 있다.
- ② ㉠을 ㉦에서 긍정하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 대해 ㉡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를 근거로 ㉡에서 미래에 전개될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 ⑤ ㉠와 관련하여 ㉡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3 대수능] 57. ㉠ ⑤

■ (가)는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글이고, (나)는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해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와 관련된 글이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글이지. 따라서,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⑤야.

2. ㉠, ㉡ 이 끌어 내기 어려운 것은?

- ①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변하면 어휘의 특징이 변할 수 있다.
- ② 소리나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상징어는 감각적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준다.
- ③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④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 ⑤ 외래어도 해당 언어를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03년 대수능] 58. ㉠ ④

■ (나)의 마지막 문단을 보자.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 (나)에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내용은 없지.

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김치, 된장, 온돌' 등 우리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
- ② ㉡: 고유어 지명 '매홀'을 한자어 지명 '수성(水城)'으로 바꿈
- ③ ㉢: '깜깜하다 - 깜깜하다'처럼 자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이 다른 어휘로 분화됨
- ④ ㉣: '떡다 → 떡이다', '남다 → 남기다'처럼 '-이-'나 '-기-'를 붙여 사동사를 만들
- ⑤ ㉤: 중국 한자음으로 첫소리가 [ㄹ(1)]인 '來日', '老人'을 우리식 한자음 '[내일]', '[노인]'으로 읽음

[2003년 대수능] 59. ㉠ ④

■ '-이-'나 '-기-'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사동사를 만드는 것은 합성법이 아니라 파생법에 해당돼. 답 ④

4. ㉠와 관련하여, [보기]의 원리에 따라 우리말 색채어의 다양성을 학습해 보고자 한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기 ]

< 분화원리 >

- 1. ' '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밝은 색깔을 표현하고, '누렇다'와 같이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어두운 색깔을 표현한다.
- 2. '쌔-'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
- 3. '-스름하다', '-스레하다'가 결합하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예문>

개울가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오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린 채 줄지어 서 있었다. 해가 지자 달맞이꽃들은 차츰 희미해져서 노르스름한 점들로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산등성이에서 달이 뜨기 시작했다. 노르스레하던 달맞이꽃은 달이 떠오르자 점점 선명해져 여기저기 작고 ( ) 얼굴을 내밀었다.

- ① 샛노란            ② 노릇노릇한        ③ 누런
- ④ 싯누런            ⑤ 누르스레한

[2003년 대수능] 60. ㉠ ①

■ <예문>의 ( ) 안에 달빛을 받아 선명해진 달맞이꽃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해. <색채어 분화 원리>의 2를 보면, '쌔-'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고 했네. '노란'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니까 '샛노란'이 맞는 표현이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이란 ㉡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말은 민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과,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로 쓰인다.

정책적인 계획 조어의 경우는 대개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사용되며, 한자말일지라도 아주 익어서 고유어처럼 된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 ‘한글, 단팔죽, 꼬치안주, 가락국수, 덮밥, 책꽂이, 건널목’ 등은 계획 조어로서 생명을 얻은 것들이며, ‘덧셈, 뺄셈, 모눈종이, 반지름, 지름, 맞선꿀’ 등의 용어들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불고기, 구두담이, 신문팔이, 끈끈이, 맞춤, 병따개, 비웃, 등과 같이 누가 먼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말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타난 말들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기성 어휘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과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는 것,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말들은 대개 어느 한 사회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널리 일반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이다.

㉣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덮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돔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돔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 조어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라도 ㉥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젠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물론 조어 방식이나 길이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트’를 ‘만날 약속’으로, ‘결벽(潔癖)’을 ‘깨끗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전자는 그 뜻이나 느낌이,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던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 명사와만 결합하여 ‘깨끗’과 같은 어근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예들이다.

1.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8점]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고유어로만 구성된다.
- ② 실제적 필요와 표현의 참신성을 위해 생겨난 새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른다.



- ③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을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2002 언어영역] 23. [㉔] ⑤

(나)에서 보면 '센누끼'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개뽑기'를 권장하였지만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가 쓰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한' 예가 된다.

## 2. ~㉔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의 개구리를 가리키는 '황소 개구리'  
 ② ㉔ : 일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여자 점원을 부를 때 쓰는 '언니'  
 ③ ㉔ : 부사 '몰래'와 명사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  
 ④ ㉔ : 동사 어간 '먹-'과 의존 명사 '거리'를 결합하여 '먹거리'  
 ⑤ ㉔ :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안되었던 '머리틀'

[2002년 언어영역] 24. [㉔] ③

'몰래'와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는 언어 표현이 진부하여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 세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 3. 문맥상 ㉔가 뜻하는 것은?

- ① 신개념 생성                      ② 실제적 필요  
 ③ 참신한 표현                      ④ 학교 교육  
 ⑤ 민족 정서

[2002년 언어영역] 25. [㉔] ⑤

'벤또, 돔부리'가 '도시락, 덮밥'으로 바뀌게 된 '강력한 동기'는 '벤또, 돔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족 정서가 많이 반영된 까닭이다.

## 4. 밑줄에 비추어 판단할 때, [     ]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휴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가워(요)', '컴퓨터'를 '방가, 컴'으로 바꿔 쓰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

- ①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② 기존 표현을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에 따라 만들어진 말  
 ③ 글자 입력 속도를 고려하여 단어의 길이를 줄인 말이다.  
 ④ 어법에 어긋나게 단어의 일부만 써 만든 말이다.  
 ⑤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만 호응을 얻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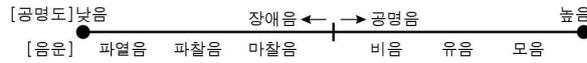
[2002년 언어영역] 26. [㉔] ①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방가', '컴' 등은 '반가워요, 컴퓨터'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용어들이다. 이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표현을 새롭게 하려는 욕구와 글자 입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통신상에서 특정인들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은어라고 할 수 있다.

[30 ~ 3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소리의 공명성은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동일한 길이, 강세, 높이로 소리를 낼 경우 공명성이 큰 말소리는 그렇지 않은 말소리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 입이나 코 또는 성문(聲門)이 더 많이 열리면서 소리를 동반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덜 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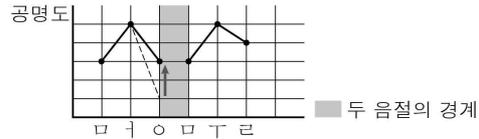
(나) 음운 중에는 모음이 자음에 비해 공명성이 훨씬 크다. 자음 중에는 혀 주변이나 코로 공기가 흐르며 소리가 나는 유음(ㄹ), 비음(ㅁ, ㄴ, ㅇ)이 공명성이 크다. 혀, 치아, 입술 등에 의해 공기가 막혔다 터지거나 좁은 곳을 흐르며 심한 장애를 받는 마찰음(ㅅ), 파찰음(ㅈ), 파열음(ㅂ, ㄸ, ㅊ)은 공명성이 작다. 공명성의 크기를 측정해 공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비음부터는 공명음, 나머지는 장애음이라고 한다.



(다) 우리말 음절은 기본적으로 음운들이 결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음운들이 각각의 공명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먹’은 세 개의 음운, 즉 초성에 비음 ‘ㅁ’, 중성에 모음 ‘ㅣ’, 종성에 파열음 ‘ㄱ’이 모여 음절을 이루므로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물’은 비음 ‘ㅁ’, 모음 ‘ㅜ’, 유음 ‘ㄹ’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먹’보다는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를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그런데 ‘먹’과 ‘물’ 두 음절이 이어지면,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선행 음절 종성에 있는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해 [명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음운 변동을 거치며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가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먹물 → [명물]’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는데, 이는 공명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에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음운이 변동되면서 음절 간의 공명도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먹물’처럼 장애음과 비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나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행 음운이 선행 음운보다 높은 공명도로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선행 음운인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면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높아지면서 음절 간 공명도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2 10월 고3 전국연합] [30~32] (언어) 하호빈, ‘음절 구조와 공명도를 통한 국어 자음동화 연구’ 공명도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음절에서 나타나는 공명도 변화 현상과 음절이 결합해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1. ( )~(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공명성과 말소리의 특징
- ② (나): 음운들의 공명성 차이

- ③ ( ): 음절 내에서의 공명도 변화
- ④ (라): 공명도 변화에 따른 음운 변동의 종류
- ⑤ (마): 공명도 변화에 따른 비음화 현상의 이해

[2012 10월 고3 전국연합] 30.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답] ④  
 [해설] (라) 단락은 자동화 현상을 공명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종류를 공명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2.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파열음은 비음에 비해 공명성이 작다.
- ② 공명성은 혀나 치아 등의 발음 기관에 영향을 받는다.
- ③ 모음은 공명도가 비음보다 높으므로 공명음에 속한다.
- ④ 장애음은 공명음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 ⑤ 음절 내에서 초성의 공명도는 중성의 공명도보다 높다.

[2012년 10월 고3 전국연합]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한다. [답] ⑤  
 [해설] (나) 단락을 통해 '모음'의 공명도가 '자음'의 공명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 단락을 통해 음절의 중성은 모음, 초성과 중성은 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음인 중성은 자음인 초성보다 항상 공명도가 높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 위 글을 참고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 ㉠ ]      문답 → [ ㉡ ]

- ① '문'과 '는'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는'에 비해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② '문'과 '답'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답'에 비해 더 높은 공명도로 끝날 것이다.
- ③ 음절이 이어지면, '문'의 장애음과 '는'의 비음이, '문'의 비음과 '답'의 장애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날 것이다.
- ④ '문'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만큼 높아질 것이다.
- ⑤ '문답'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후행 음운의 공명도가 선행 음운만큼 낮아질 것이다.

[2012년 10월 고3 전국연합] 3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답] ⑤  
 [해설] 음절 경계에서 장애음과 비음이 이어질 때 비음화 현상과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문답'은 [문답]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나 공명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4 26]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을 팔던 가게에서 봉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봉어 : 봉어빵 = 잉어 :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봉어와 봉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봉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봉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 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 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2 9월 시행 고3 평가원] [24-26] 언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지문해설 :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필요에 의해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하고, 이 때 근거로 삼은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주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

1. 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
- ②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③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외에 어떤 단어 형성 방식이 있는가?
- ④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2012 9월 시행 고3 평가원] 2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 파악) ㉠ ㉢

㉠ 위 글은 단어 형성 방식 중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위 글을 통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이외의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1문단의 ‘잉어빵’이나 3문단의 ‘종이공’은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다. ④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2문단에서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3문단에서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2. 의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로 알맞은 것은?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떠올린 단어	근거로 삼은 단어	만든 단어
①	수정으로 만든 반지	결혼반지, 금반지	금반지	수정반지
②	인삼 가루를 탄 물	바닷물, 설탕물	바닷물	인삼물
③	회갑을 기념하는 떡	생일떡, 호박떡	호박떡	회갑떡
④	비닐로 만든 옷	겨울옷, 비단옷	겨울옷	비닐옷
⑤	돌로 만든 잔	유리잔, 우유잔	우유잔	돌잔

[2012 9월 시행 고3 평가원]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①

㉠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결혼반지’의 경우 반지 앞에 오는 말이 반지의 사용 목적인 반면, ‘금반지’는 반지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금반지’를 근거로 삼아 ‘수정으로 만든 반지’를 의미하는 ‘수정반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오답피하기] ② ‘바닷물’의 경우 물 앞에 오는 말이 물이 흐르는 장소인 반면, ‘설탕물’은 물에 탄 재료이다. 그러므로 ‘인삼 가루를 탄 물’을 의미하는 ‘인삼물’은 ‘설탕물’을 근거로 형성된 단어이다. ③ ‘생일떡’의 경우 떡 앞에 오는 말이 떡의 사용 목적인 반면, ‘호박떡’은 떡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회갑을 기념하는 떡’을 의미하는 ‘회갑떡’은 ‘생일떡’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④ ‘겨울옷’의 경우 옷 앞에 오는 말이 옷을 입는 시기(계절)인 반면, ‘비단옷’은 옷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비닐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 ‘비닐옷’은 ‘비단옷’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⑤ ‘유리잔’의 경우 잔 앞에 오는 말이 잔의 재료인 반면, ‘우유잔’은 잔의 용도이다. 그러므로 ‘돌로 만든 잔’을 의미하는 ‘돌잔’은 ‘유리잔’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 3.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싱건탕’을 제안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건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언중들은 ‘싱겁다’란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매운탕’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탕’의 국물 빛깔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맑은국’에서 유추한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        ’이 ‘맑은탕’보다 국어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싱건탕’과 ‘싱건김치’ 간에는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겠군.
- ③ ‘맑은탕’은 ‘탕’의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겠군.
- ④ ‘싱건탕’과 ‘맑은탕’은 모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방식으로 만들었겠군.
- ⑤ 언중들이 ‘싱건탕’을 짜지 않은 탕으로 해석한 것은 ‘싱겁다’의 의미에 이끌렸기 때문이겠군.

[2012년 9월 시행 고3 평가원]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와 적용) ㉠ ①

㉠ 2문단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언중들은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중들이 많이 쓰는, 즉 널리 쓰이는 ‘맑은탕’이 ‘싱건탕’보다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싱건김치’는 국물이 맑은 김치이다. ‘싱건탕’ 또한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제안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둘 모두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맑은탕’은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맑은 국’에서 유추한 단어이다. ④ ‘싱건탕’은 ‘싱건김치’에서, ‘맑은탕’은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들이다. ⑤ 언중들은 ‘싱겁다’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싱건탕’을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다.

[41 4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를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를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2012 6월 시행 고3 평가원] [41-43] 언어, ‘국어의 2인칭 대명사’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등과 같은 2인칭 대명사의 쓰임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주 높임의 대상자에게는 2인칭 대명사 대신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경우가 있으며,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

**1.**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2012 6월 시행 고3 평가원]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 ㉡ ㉢

㉠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는 ‘너’, ‘너희’, ‘자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예사 낮춤 말인 ‘자네’가 ‘너’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 높임의 등급 구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위 글에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대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1인칭 대명사이다. ㉡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에게 ‘임자’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에 따라 2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달라짐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 중 ‘너희’는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 곧 2인칭 복수를 지칭할 때 사용함을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 문단에서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 2. [보기]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 기 ]

상무 :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리고 보니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우리를 친 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 어, 저기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2 6월 시행 고3 평가원]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4] ①

㉠ 2인칭 대명사는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 사용한다. <보기>는 '한 상무'와 '김 부장'의 대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는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상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와 듣는 이인 '김 부장' 이외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 자신과 듣는 이인 '김 부장'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④ ㉣는 '고모'와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는 말하는 이인 '고모'와 듣는 이인 '한 상무'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3의 인물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3. 밑줄 친 단어가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 \_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_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
- ② [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_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 ③ [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_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 ④ [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_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 ⑤ [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_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2012년 6월 시행 고3 평가원]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5] ②

㉠ ㉠과 ㉡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칭을 나타내고 있다. ㉡의 '자기' 역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이고 있다. 즉, ㉡의 앞 문장에서 '자기'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뒤 문장에서 '자기'는 '학생'을 가리키는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너'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③ '자네'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④ 앞 문장에서 '그대'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뒤 문장에서 '그대'는 상대방을 친근하게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⑤ '여러분'은 모두 듣는 이가 여러 사람들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 ㅌ’이나 ‘ㄱ, ㅋ, ㆁ’이 구개음인 ‘ㅈ, ㅊ, ㅊ’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덕’나 ‘타덕’을 ‘자져’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이 ‘던(天)과 ‘천(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닌, 더, 도, 듀’와 ‘티, 탁, 터, 토, 튜’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딤, 톨’이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딤, 톨’이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원래 치음이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쟈, 저, 죠, 쥬’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쟈’, ‘저’와 ‘저’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ㅣ’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ㄱ’과 ‘ㅇ’이 합쳐진 ‘ㄱ-ㅇ’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ㅣ: ‘ㅏ, ㅑ, ㅓ, ㅕ’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를 만드는 소리.

[2012 3월 고3 전국연합] [25-27] (언어) 이기문, 『국어사 개설』

1.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 ㉡



❑ 글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인 구개음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개음화의 개념 및 그것이 일어나는 음운 조건, 구개음화가 일어난 시기와 지역, 구개음화와 관련된 자료, 구개음화가 진행된 과정과 양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 ‘ㅅ, ㅆ’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뀌었다.
-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의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답] ㉠ ㉡  
 ❑ ㉠ ‘이르다’는 구개음화된 ‘ㄴ’이 어두에서 음운 제약에 의해 탈락된 것이고, ㉡은 ‘ㅌ’이 ‘ㅎ’으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이 둘 모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뀐 단어이다.  
 [오답풀이] ㉠에는 구개음화된 ‘ㄴ’이 탈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고, ㉡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지 않았다. ㉠과 ㉡ 모두 단일 형태소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며,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기 ]

㉠ ( ) 네 아드룬 어 ~~어딜~~늘(어질거늘) 내 아드리 비록 만 ~~다~~도(만이라도) ..... 쯤이 네 아드룬 내 ~~터~~서(내치소서)

-『월인석보』중에서 -

㉡ 그디 살고 니가 죽으면 ~~저~~죽식을 키울 거슬 니가 살고 그디 죽어 ~~저~~자식 엇 ~~저~~아찌 키잔 말고 이고 이고 모 ~~조~~목숨 ..... 어린 자식 엇 ~~저~~아찌 (어찌할까)

-『심청전』중에서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 ① ㉠의 ‘터’와 ㉡의 ‘저’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 ㉡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 ② ㉠의 ‘터’, ‘달’,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음 ‘ㅇ’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의 ‘저’,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ㅇ’ 앞에 ‘ㄷ’이 나타나지 않고 ‘ㅆ’만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는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 ④ ㉠의 ‘저’와 ‘저’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ㅆ’을 구개음으로 발음 하게 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 ⑤ ㉠의 ‘어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군.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자료에 적용한다. [답] ㉠ ㉡  
 ❑ ㉠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ㄷ’과 ‘ㅌ’은 구개음이 아니었다.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 활동으로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 경험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며,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를 근원 영역이라고 한다.

- (가)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 (나) 사랑에 빠지다.

(가)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며, ‘나그넷길’은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데, 추상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을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그넷길’을 통하여 개념화한 것이며, (나)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액체에 빠지다’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간의 대응 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은유를 형성하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경험은 대조적이다. 곧 근원 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한편 근원 영역은 낯고 진부한 세계인데 비하여 목표 영역은 새롭고 신선한 특징을 지닌다.

둘째, 은유에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곧 우리는 ‘나그넷길’에 의해서 ‘인생’을 개념화하지 ‘인생’에 의해서 ‘나그넷길’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셋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두 영역의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나그넷길’과 ‘인생’ 간에는 ‘출발점’에서 ‘종착점’이라는 여정이 있고, 여행의 동반자와 목적이 있으며 희로애락과 같은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이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다. 은유는 복잡한 개념에 간결성을 제공하며, 표현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인 세계를 개념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2011 10월 고3전국연합] [19~21] (언어) 김광해 외, 『국어 지식 탐구』<sup>39)</sup>

**4.**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 기 ]

- . 은유의 개념은 무엇인가?
- ㄴ. 은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ㄷ. 은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 ㄹ. 은유가 지닌 기능은 무엇인가?
- ㅁ. 은유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1년 10월 고3전국연합] 1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답] ①

▶ 첫 단락에서는 은유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2단락부터 6단락까지는 은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은유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위 글을 바탕으로 [ ]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전투이다.

- ① ‘     ’에 의해 ‘논쟁’이 개념화된 것이다.
- ② ‘논쟁’은 목표 영역이고 ‘전투’는 근원 영역이다.
- ③ ‘논쟁’과 달리 ‘전투’는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 ④ ‘전투’는 명확한 경험이지만 ‘논쟁’은 불명확한 경험이다.
- ⑤ ‘논쟁’과 ‘전투’의 두 개념 영역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2011 10월 고3전국연합] 20.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답41) ③

■ 4단락의 내용을 보면 ‘근원 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곧 근원 영역인 ‘전투’는 구조화된 경험이고, 목표 영역인 ‘논쟁’은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6. 글을 읽고 ‘은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대상 간의 외형이 닮아야 가능한 것이다.
- ② 어휘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 ③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 ④ 낯선 대상을 익숙하게 바꿔 표현하는 것이다.
- ⑤ 문학적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2011년 10월 고3전국연합] 21. [출제의도] 중심 제재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한다. (답42) ④

■ 마지막 단락의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라는 내용을 통해 ‘은유란 낯선 대상을 익숙하게 바꿔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정 부사를 통한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부정 용언을 통한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안, 아니하다’의 부정은 어떠한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거나, 어떤 동작이 주어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 않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못, 못하다’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국어의 부정 표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보인다. 우선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음을 (1)을 통해 알 수 있다. (1)의 ㄴ, ㄷ에서 ‘안, 않다’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표현은 의지 부정 표현이 아니라 상태 부정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 (1) ㄱ. 영희는 예쁘다.
- ㄴ. 영희는 안 / \*못 예쁘다.
- ㄷ. 영희는 예쁘지 않다. / \*못하다.

한편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 수사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2)의 ㄱ은 “예, 안 갔어요.”와 “아니요, 갔어요.”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 부정 의문문이나, (2)의 ㄴ은 수사 의문문으로 쓰인 것이어서 부정 표현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의 의미가 없다.

- (2) ㄱ. 영희 아직 안 갔니?
- ㄴ. (책 한 권은 충분히 사 줄 수 있다는 뜻으로)영희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

국어의 부정 표현 논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의지 부정이든 능력 부정이든 간에 부정 표현에 있어서 부정의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3)에서 ‘안’이 부정하는 내용은 (3)-a처럼 ‘철수’가 될 수도 있고, (3)-b처럼 ‘그 책’이 될 수도 있으며, (3)-c처럼 ‘읽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가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부정된다.

- (3)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 a. 그 책을 안 읽은 것은 철수였다.
- b. 철수가 안 읽은 것은 그 책이었다.
- c. 철수가 그 책에 대해 하지 않은 것은 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철수, 그 책, 읽다’의 어느 하나에 강세를 주어 읽거나, ‘철수가 그 책은 안 읽었다.’처럼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보조사 ‘은/는, 만, 도’ 등을 덧붙이거나,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2011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언어 \*\* □ 출처: 이관규, <국어의 부정 표현>43)

1.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부정과 능력 부정 모두 중의성을 갖는다.
- ②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를 활용해서 나타낸다.
- ③ 문맥을 통해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④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부정 표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⑤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2011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답] ⑤

■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부정은 어떤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며, 의지 부정은 주어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2. 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분석할 때, [보기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분명히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는 영화를 만나지 않았거든. 왜 아이들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 나는 늘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미덥지 않았나 봐.

[보기 2]

- ㄱ. 보조사를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 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의 상태 부정 표현
- ㄷ. 상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 짧은 부정문
- ㄹ.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긴 부정문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의 적용하기 [답] ①

■ '어제 도서관에서는'은 보조사 '는'을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장소인 도서관을 부정)하였고, '미덥지 않았나 봐'는 형용사 '미덥다'를 서술어로 쓴 문장으로, 미더운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 '못 믿는 걸까'의 경우는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긴 부정문이 아니다.

3. [가]의 ㉠~㉣ 중, ㉡에 해당하는 것은?

[가]

영희: ㉠ 너 요즘 시간 없지?  
 철수: ㉡ 내가 너한테 시간을 못 내겠니? ㉢ 무슨 일 있니?  
 영희: 우리 반 합창 대회 반주자가 필요해서……. ㉣ 안 될까?  
 철수: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연습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어. ㉤  
 괜찮겠니?  
 영희: 그럼, 괜찮아.

- ① ㉠                              ② ㉡                              ③ ㉢
- ④ ㉣                              ⑤ ㉤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답] ②

■ ㉠은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로 부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의문 형식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인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밥'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인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밥'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요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요체'나 '해요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요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더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적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2011.6 실시 평가원] [44-46] 언어, 한국어 경어법<sup>47)</sup>

: 한국어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경어법 면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표현들이 많다. 이 글은 명제적 의미는 유사하나 경어법 면에서 다른 '감사하다'와 '고맙다', 비슷한 의미 기능으로 쓰이지만 어휘적 의미의 차이로 경어법이 다른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예로 들어 경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거리의 요인을 분석한 글이다.

1.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의 선택을 통해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높임 표현이 선택될 수 있다.
- ③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④ 한자어는 의미가 비슷한 고유어보다 일반적으로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
- 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화 상대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11.6월 실시 평가원] 44.정보의 개괄적 확인 [답<sup>48)</sup> ③

이 글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대화 참가자들 간의 '서열', '친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을 들었다.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연세', '생신', '진지'가 '나이', '생일', '밥'보다 높임 표현으로 쓰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친분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고 하였다. ⑤ 글 전반을 통해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또는 상황의 격식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과 동일한 유형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① 술- 약주   | 말- 말씀   | 묻다- 여쭙다   |
| ② 이- 치아   | 사망- 별세  | 있다- 계시다   |
| ③ 딸- 따님   | 마누라- 부인 | 자다- 주무시다  |
| ④ 엄마- 어머니 | 책방- 서점  | 먹다- 잡수다   |
| ⑤ 속옷- 내의  | 너- 당신   | 가난하다-빈곤하다 |

[2011.6 실시 평가원] 45. 사례의 적절성 판단 [답49] ㉠  
 ㉠은 고유어 '나이'보다 한자어 '연세(年歲)'가 더 높은 말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치아(齒牙)'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둘 다 한자어인데 후자인 '생신'이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사망(死亡)-별세(別世)'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밥'과 '진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인 '진지'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자다-주무시다'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의 '말'과 '말씀'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이다. ② ㉡의 '따님'은 한자어가 아니다. ④ ㉠의 '어머니'는 한자어가 아니다. ㉡의 '서점'은 '책방'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⑤ ㉠의 '내의'가 '속옷'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의 '빈곤하다' 역시 '가난하다'보다 높임의 정도가 큰 표현이 아니다.

3. 위 글을 참고하여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 (시장이 과장에게) 김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내일까지 끝내주세요.  
 L.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형, 오늘은 제가 내려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C. (사장인 어머니에게) 엄마, 저녁을 함께 못해 미안해요. / 사장님,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R. 부장 : 사장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장 : 남부장, 내가 오히려 미안했네.  
 M. (약속 시간에 늦어서 친구에게)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정말 미안해.

- ① ㄱ :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대신 '미안하다'는 쓸 수 없군.
- ② L : 친한 사이의 상위자에게는 '미안하다'도 쓸 수 있군.
- ③ C : 같은 상대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바꿔 쓸 수 있군.
- ④ R : 상대의 지위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구별하여 사용했군.
- ⑤ M :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 대신 '죄송하다'는 쓸 수 없겠군.

[2011.6월 실시 평가원] 4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답51] ①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서열상 상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위자에게 사과나 부탁을 할 때 쓰는 말이다. ①의 경우에도 화자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과장'은 하위자에 해당하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비록 상위자이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친한 사이로 보이므로 '미안하다'의 쓰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회의석상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평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석에서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고 한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④ 하위자인 부장은 상위자인 사장에게 '죄송하다'를, 상위자인 사장은 하위자인 부장에게 '미안하다'를 썼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죄송하다'는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가까운 친구에게 사과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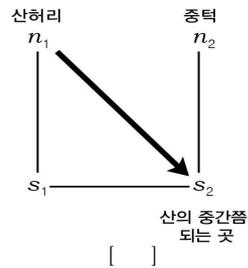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로 부화된 병아리를 뜻하는 '햇병아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인 '풋내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면서 햇병아리는 풋내기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와 '의미 사이의 근접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의미(s1)를 가리키는 한 명칭(n1)이 있고 s1과 유사한 다른 의미(s2)가 있다고 하자. s2의 명칭(n2)이 없거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n1이 s2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이 변이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산의 중간쯤 되는 곳(s2)을 의미하는 '중턱(n2)'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s2를 가리키기 위해 유사한 의미의 단어 '산허리(n1)'를 사용할 수 있다. 산허리의 의미(s1)와 s2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그림]처럼 '산허리'가 s2를 가리키는 명칭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산허리는 기존의 중턱과 함께 s2를 가리키게 되어 산허리와 중턱은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때 원래 표현하고자 한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비유의 꼴이 되므로 은유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는 '안경다리'처럼 사람의 신체를 무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노루오줌'처럼 동물의 명칭을 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국물'처럼 구체어가 추상적 관념인 '이익'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해 연상 작용이 심리적으로 발생할 때에도 한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변이된다. 이때 명칭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동일한데, 다만 두 의미(s1, s2)를 연결한 선이 유사성이 아니라 근접성을 나타낸 것이 다르다.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한 명칭 변이는 ㉠ 공간적 관계, ㉡ 시간적 관계, ㉢ 인과적 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예컨대 '세자'를 '동궁(東宮)'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자의 거처'가 '동궁'이라는 공간적 관계의 근접성 때문에 일어난 명칭의 변이이며, 가장 맛있는 '새우젓'을 '육젓'으로 부르는 것은 '육젓'이 '음력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에서 유래한 변이이다. 그리고 '임금의 피난'을 '먼지를 덮어쓰다'라는 뜻의 '몽진(蒙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이 난을 피하면서 먼지를 덮어썼던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1 4월 고3 전국연합] [언어] [38~40] <출전> 윤희현, 『국어의미론』

1.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음성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②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③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 ④ 언어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2011년 4월 고3 전국연합] 38. [출제의도] 글의 논지와 부합된 언어의 특성 추론하기 ㉠) ⑤

이 글은 기존에 있던 명칭(단어)을 활용해 개념이나 의미를 비유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을 [그림]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기

n( )	n <sub>1</sub> :	n <sub>2</sub> : 풋내기
s(의미)	s <sub>1</sub> : 새로 부화된 병아리	s <sub>2</sub> : 경험이 없는 사람

- ① n<sub>1</sub> n<sub>2</sub>는 유의 관계에 있다.
- ② n<sub>1</sub>이 s<sub>2</sub>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s<sub>1</sub>과 s<sub>2</sub> 사이에는 공통의 의미 자질이 있다.
- ④ n<sub>1</sub>은 의미에 s<sub>2</sub>를 포함하면서 다의어가 된다.
- ⑤ n<sub>1</sub>이 s<sub>1</sub>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n<sub>2</sub>를 만들고 있다.

[2011 4월 고3 전국연합] 3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 정보 이해하기 [답52] ⑤

■ '햇병아리'(n1)는 이미 존재하는 명칭 '풋내기'(n2)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지, 새롭게 명칭 '풋내기'(n2)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3. ㉠~㉣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 아침(←아침밥)을 먹어야 머리가 맑아진다.
- ㉠. 그는 시의원을 거쳐 여의도(←국회)에 진출했다.
- ㉡. 위험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이 떨린다.(←두렵다)
- ㉢. 이 시는 4.19(←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 ㉣. 월드컵 개막식이 상암(←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2011년 4월 고3 전국연합] 40. [출제의도] 글의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답53] ③

■ ㉠부터 ㉣까지의 명칭 변이는 공간적, 시간적,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은 아침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은 두렵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은 1960년 4월 19일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상암동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인 어근과,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인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가 이와 같이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생어의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규칙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파생어 '결레질'은 그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 파생어의 의미는 그 어근인 '결레'의 의미와, 동작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인 접사 '-질'의 의미로부터 쉽게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의미가 항상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비질'은 '곡식의 검부러기, 먼지 따위를 날리려고 키 따위로 부쳐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곤충인 '나비'의 의미와 '-질'의 의미의 단순한 합이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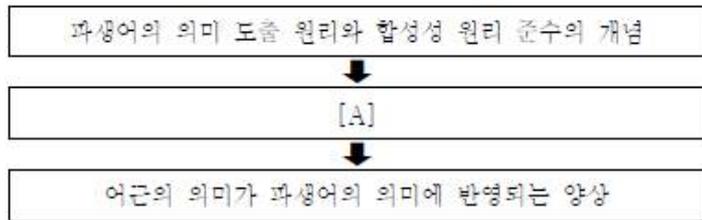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어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어근 '먹-'과 접사 '-이'가 결합된 말인 파생 명사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다'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어 보낸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반면, '먹-'과 접사 '-이'의 결합형인 '먹이'의 의미는 '동물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어야 할 거리'나 '사육하는 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로 한정된다. 이러한 예를 보면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의 모든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파생어의 의미는,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위의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이'의 의미는 '먹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단어의 중심적 의미로,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의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어근의 의미 중 반드시 하나만이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길다'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길이'는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와 '어느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등의 의미를 갖는다. '길다'의 여러 의미가 파생 명사인 '길이'의 여러 의미에 반영된 것이다.

[2011 3월 시도교육청] [44~46] (언어) 송철의, '어근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sup>54)</sup>

1. 글의 내용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 A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합성성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 ② 합성성의 원리를 분석하는 여러 이론 검토
- ③ 합성성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④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파생어의 양상
- ⑤ 합성성의 원리에 기초한 어근의 의미 변화 설명

[2011년 3월 시도교육청] 44.[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양상을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첫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파생어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파생어의 의미 도출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과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휘 수는 어림잡아 60만 개 안팎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자어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 조상들의 관념과 사유의 세계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한자어는 국어 어휘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외래의 요소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어의 어휘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첫째, 단어의 형성에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할 때 한자어의 의미가 핵심이 되는 경우이다. 특히 고유어와 결합하여 동사, 형용사가 될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탐내다(貪내다), ① 이롭다(利롭다)’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둘째, 한자어구(漢字語句)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하나의 낱말로 인정됨으로써 한문이 지니고 있는 통사적 특성이 사라지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한자어의 무리가 있다. 첫 번째 무리는 도대체(都大體), 심지어(甚至於) 등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취급되는 어구들이고, 두 번째 무리는 새옹지마(塞翁之馬), 막역지우(莫逆之友)와 같이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어구들이며, 세 번째 무리는 한자의 원뜻대로 풀이하면 우리말 어순과는 달리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낱말들, 예컨대 관광(觀光: 경치를 구경함), 보전(保全: 온전하게 지키기)같은 것들이다.

셋째, 한자어 본래의 한자음이 변하여 국어의 고유어처럼 쓰이는 경우로 ‘과녁(貫革: 관혁), 가난(艱難: 간난)’ 등과 같은 낱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낱말은 본래는 한자어였지만 한자의 원음을 포기하고 우리말 소리로 변하여 쓰이면서 고유어로 혼동되기도 한다.

넷째, 한자가 고유어와 동의(同義) 중복의 형식으로 어울려 새로운 우리말을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분가루(粉가루), 온전하다(온쫌하다)’ 등의 낱말들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낱말들은 의미가 중첩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 한자어는 고유어와 잘 어울리면서 국어의 어휘 수를 풍부하게 늘려왔고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2010 10월 고3전국연합] [28~30] (언어) 심재기, ‘국어의 어휘 구조와 특징’58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매우 크다.
- ② 한자성어는 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어 쓰인다.
- ③ 한자어는 고유어와 결합하면 본래의 한자음이 변한다.
- ④ 한자어는 외래의 요소이지만 자연스럽게 국어에 동화되었다.
- ⑤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어휘는 현재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0년 10월 고3전국연합] 2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넷째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한자음이 변하여 고유어처럼 쓰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고유어와 결합할 때는 한자음이 변하지 않는다.

2.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 고의로(故意로), 간신히(艱辛히)
- ㄴ. 별안간(瞥眼間), 급기야(及其也), 진수성찬(珍羞盛饌)
- ㄷ. 독서(讀書), 가출(家出)
- ㄹ. 배웅[陪行: 배행], 누비[衲衣: 납의], 장구[杖鼓: 장고]
- ㅁ. 탄실하다(튼實하다), 굳건하다(굳健하다)

- ① 가를 보니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부사에서도 한자어의 의미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 ② ㄴ은 여러 개의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졌지만 국어에서 하나의 낱말로 사용되었군.
- ③ ㄷ을 보니 모든 한자어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ㄹ을 보니 한자음이 변해서 만들어진 낱말은 한자어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겠군.
- ⑤ ㅁ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면서 기존의 의미를 강조하는 어휘로 바뀐 것 같군.

[2010 10월 고3전국연합] 29.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 ③

▶ '가출(家出)'은 '집[家]을 나가다[出]'라는 뜻이므로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오는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ㄷ을 보고 모든 한자어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 3. 처럼 '한자어+롭다'의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슬기롭다                      ② 예사롭다
- ③ 여유롭다                    ④ 감미롭다
- ⑤ 향기롭다

[2010년 10월 고3전국연합] 3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조어 방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 ①

▶ '슬기롭다'의 '슬기'는 '사물의 이치를 밝혀 시비를 가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 내는 재능'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노르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생世존尊’에서처럼 ㉠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생尊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에’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0 6월 실시 평가원] [44-46] 언어, ‘한글 창제 후 문자 생활사에서 나타난 변화’<sup>62)</sup>

: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면서, 예상 독자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린 책들이 간행되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각 표기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글 창제 후 독자를 고려한 다양한 표기 방식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점]

-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했다.
-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2010년 6월 실시 평가원]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sup>63)</sup>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의 전반부에서 이 책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였기에 한자를 음의 노출 없이 원문으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용비어천가’가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였지만 ‘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 3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 4문단에서 ‘두시언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마지막 문장에서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에 한글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 2. [보기] 내용을 근거로 ㉠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 기 ]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London 살아요.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2010 6월 실시 평가원] 45. 추론적 사고(원리 적용의 적절성 판단) [답4] ②

정답해설 :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 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로 그대로 표기한 '런던(London)'이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의 병행을 하였고, <보기>의 표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기에 잘못된 것이다. ④, ⑤ 알파벳을 한글과 같이 음절 단위로 끊어 적고 있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 3.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ㅇ'을 사용하여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⑤ 영어의 file을 '퐁'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2010년 6월 실시 평가원] 46.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용) [답5] ⑤

정답해설 :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기>의 주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영어의 '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 내용을 따르면, '퐁'표기는 국어에 없는 음이다. 여기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면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호들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표기하는 것이 국어의 문자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표기에 적용해야 하고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음을 익히야 하기 때문이다. ⑤ 새로운 음으로 영어를 표기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음은 아무래도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면에 대하여 화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언어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대안적 사고라 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면의 '해석'은 장면을 개념화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화자의 선택을 가리키며, 의사 소통의 효율성과 관련한 인지 능력의 발현이다.

그러면 장면이나 상황의 해석에 작용하는 인지 능력 기제인 '특정성'과 '시점'을 중심으로 장면에 나타나는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자. 한 가지 장면을 다양한 정도의 층위에서 파악하는 '특정성'은 주로 계층 관계에서 작용한다. 해당 장면을 상위 층위에 가깝게 파악할 때는 그 해석이 추상적이며, 하위 층위에 가깝게 파악할 때는 구체 적이며 상세하게 작동한다.

- (1) a. 대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
- b. 대문 앞에 키가 큰 청년이 서 있다.

(1)은 동일한 장면을 기술한 것인데, 이들 표현은 '특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a에서 화자는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은 채 '누군가'로 해석하고 있으며, b는 a와 달리 인물의 '키가 큰' 특성에 주목하여 장면을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는 해당 장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성'의 층위를 조절하고 선택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장면에 대하여 화자가 어떤 '시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경우 '시점'이란 화자가 장면의 해석에서 취하는 관점이나 입장을 뜻한다. 화자의 '시점'에 관련된 요소로 '객관성'과 '주관성'은 하나의 장면에서 화자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는 주관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화자로부터 분리된 장면의 해석을 '객관성'이라 하고, 화자가 포함된 장면의 해석을 '주관성'이라고 한다.

- (2) “너는 엄마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니?”
- (3) “너는 내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니?”

(2)와 (3)은 용돈을 거둬 요구하는 아이에게 화난 어머니가 사용한 표현으로서, '엄마'와 '나'는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 (3)은 화자가 묘사하는 장면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주관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으나, (2)는 화자가 자신을 상위층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묘사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객관적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적, 객관적 '시점'의 선택에는 화자의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장면의 의미란 객관적 대상의 개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 주체의 '해석'을 망라한 것이다.

[2010 4월 고3전국연합] [언 어] [19 - 21] 언어 제재 <출전> 임지룡, '장면의 인지적 해석에 관한 연구' 66]

**1.**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언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산물이다.
- ②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이다.
- ③ 언어는 사회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 ④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2010년 4월 고3전국연합] 19. [출제의도] 글의 전제 추론하기 ㉠

❑ 이 글에서는 장면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사고)의 작용으로써 동일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산물이다.’이다.

## 2.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① 은 나, 다보다 장면을 상위 층위에서 파악한 것이다.
- ② 나 은 가과 달리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한 것이다.
- ③ 다 은 가, 나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다.
- ④ 나, 다 은 가보다 화자가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⑤ 가~다 은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에 해당한다.

[2010년 4월 고3 전국연합]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기 [답68] ④

■ 제시문에서 동일한 장면에 대하여 화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중의 하나의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 한다고 하였다. <보기>는 장면의 해석에 작용하는 특정성의 기제와 관련된 구체적 예를 제시한 것이다. 가~다 은 모두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한 대안적 사고이며 하나의 장면에 대한 화자의 주체적 해석이다. 따라서, 나, 다 이 가보다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다. ① 가 은 동일한 장면을 추상적인 상위 층위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 나 은 가보다 여학생에 대한 구체적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③ 다 은 가보다 ‘계단’이라는 장소와 ‘책을 읽’는다는 행위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장면을 해석한 것이다.

## 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생님도 수박이 좋단다.
- ② (아빠가 딸에게) 아빠는 유경이가 정말 예쁘다.
- ③ (말이 엄마에게) 엄마, 말은 아빠가 보고 싶어요.
- ④ (삼촌이 조카에게) 삼촌은 내가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⑤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2010년 4월 고3 전국연합] 21.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답69] ⑤

■ ⑤은 화자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여 자신을 장면에서 분리한 해석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1인칭인 화자 자신을 ‘나’로 설정하여 장면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장면에서 분리하여 상위층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화된 지칭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⑤은 화자 자신을 장면에 포함시켜 ‘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어기호 즉,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단어를 다의어(多義語)라 한다. 가령 ‘다리[脚]’는 동물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나 ‘지겟다리’에서처럼 물체의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때 ‘다리’는 다의어이며, 이 ‘다리’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의 관계를 다의 관계(多義 關係)라 한다.

다의어는, 소리가 같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하는 동음이의어와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강(江)이나 냇물에 놓이는 시설물인 ‘다리[橋]’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 소리는 같지만 별개의 단어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구별하여 별도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상 다리’나 ‘지겟다리’의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를 설명하는 ‘다리’의 하위 항목으로 삼아, 같은 단어이되 의미가 좀 달린 것이라 해석한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는 ‘다리1[脚, leg]’, ‘다리2[橋, bridge]’와 같은 방식으로, ‘다리1’의 다의(多義) 관계는 ‘①, ②, ③ ...’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① 동물의 다리, ② 물체의 다리 등과 같이 하위항목에서 뜻을 풀이한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의미의 유사성(類似性)을 들 수 있다. ‘책상 다리’의 ‘다리’는 사람의 다리와 의미상으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책상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쳤을 때 그 하체 부분에 속한다는 속성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겟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강의 ‘다리’는 어떤 전체의 하체 부분이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구별하여 ‘다리1’의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코’를 들 수 있다. ‘버선코’와 ‘그물코’의 ‘코’는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신체 기관으로서의 ‘코1[鼻, nose]’와 어떤 의미 관계일까? 버선 앞쪽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을 뜻하는 ‘버선코’의 ‘코’는 물체의 중앙에 솟아있다는 점에서 신체 기관으로서의 ‘코1’와 형태의 유사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코1’에서 의미가 갈린 다의관계로 보고 ‘코1’의 하위 항목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 등의 눈마다의 매듭을 뜻하는 ‘그물코’의 ‘코’는 어떨까? ‘코1’와 형태나 기능 등에서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보고 ‘코2[stitch]’로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기관인 ‘코’와 ‘버선코’의 ‘코’는 다의 관계라고, ‘그물코’의 ‘코’는 동음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이 늘 선명하고 객관적일 수 없어 두 의미의 관계가 ‘동음이의’의 관계인지 ‘다의’의 관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때는 단어의 어원(語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원적으로 같았던 단어이면 현재 의미가 다소 멀더라도 한 단어의 다의 관계로 보고, 어원적으로 다른 단어는 별개 단어의 동음이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2010.3 3 전국연합] [44~46] (언어) 이의접, ‘다의어’70)

1. 글을 바탕으로 ‘다의어’를 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 기 ]

단어가 ( ㉠ )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 ㉡ ) 속성에 기반하여 서로 ( ㉢ ) 관계에 있을 때, ‘다의어’라고 볼 수 있다.



	㉠	㉡	㉢
①		구별된	보완적인
②	둘 이상의	구별된	유사한
③	단일한	공통된	보완적인
④	둘 이상의	공통된	유사한
⑤	둘 이상의	구별된	보완적인

[2010.3 3 전국연합] 44.[출제의도] 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71] ④  
 ■ 첫째 문단에서 다의 관계는 '두 가지 의미'의 관계이며, 셋째 문단에서 '공통된 속성'을 기반으로 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분류된다고 하였다.

2. 글을 바탕으로, [기]의 문장을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기 ]

. 밥을 달게 먹고 잠을 푹 잤다.  
 ㄴ. 그는 불 속에서 빨강계 단 인두를 꺼내 들었다.  
 ㄷ. 선생님의 조언을 달게 받아들였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ㄹ. 혈관마다 일시에 더운 피가 끓어올라 얼굴이 화끈 달았다.  
 ㅁ. 경기가 3분밖에 남지 않자 그는 애가 달아 어쩔 줄 몰라 했다.

- ① ㄱ, ㄴ / ㄷ, ㄹ, ㅁ      ② ㄱ, ㄷ / ㄴ, ㄹ, ㅁ
- ③ ㄱ, ㅁ / ㄴ, ㄷ, ㄹ      ④ ㄴ, ㄷ / ㄱ, ㄹ, ㅁ
- ⑤ ㄴ, ㄹ / ㄱ, ㄷ, ㅁ

[2010.3 고3 전국연합] 45.[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72] ②  
 ■ ㄱ은 '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있다.', ㄷ은 '마땅하여 기쁘다.'는 의미이므로, ㄱ과 ㄷ은 다의 관계이다. 한편 ㄴ은 '단단한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 ㄹ은 '몸이나 몸의 일부가 뜨거워지다.', ㅁ은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다.'는 의미이므로, ㄴ, ㄹ, ㅁ은 다의 관계이다.

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언어의 '기호'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서로 다른 모양의 책상을 '책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서 보듯이, 언어의 기호는 실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언어 사용자의 마음 속에 형상화된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언어 기호는 '단어'로, '개념'은 단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하나의 다의어에 연결된 [A]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된다.
- ② 하나의 개념에 연결된 다수의 [A]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③ 하나의 단어에 연결된 [A]의 개수가 많을수록 의미는 단일해진다.
- ④ 하나의 개념에 연결된 [A]와 [B]의 개수가 동일할 때 다의어가 된다.
- ⑤ 하나의 개념에 연결된 [B]가 많을수록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유사성은 높아지게 된다.

[2010.3 고3 전국연합] 46.[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73] ①  
 ■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 유사한 의미들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호에 여러 개념이 연결된 것,

| [A]선이 여러 개로 나타나야 한다.

**언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상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꾸준히 양성평등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언어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국어에는 남녀차별의 사회상을 알게 해 주는 증거들이 있다.

우리말에는 그 자체에 성별을 구분해 주는 문법적 요소가 없다. 따라서 남성을 지칭하는 말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따로 존재해야 하지만, 국어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등하게 사용되고, 이들을 모두 아울러 가리킬 때는 ‘어버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어린이’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가리킬 때 쓰이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쓰인다. 이와 같은 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사장’ 등은 그 직업이나 직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성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고, 여성을 가리킬 때는 ‘여의사, 여변호사, 여사장’ 등이 따로 사용되고 있다. 즉, 여성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함으로써 남녀차별의 가치관을 이 말들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어에서는 ‘부모, 소년소녀, 남녀’와 같이 남성을 앞세우고, 속어나 비어 등 부정적인 언어에서는 ‘년놈들, 에미애비’와 같이 여성을 앞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말에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생활을 표현하는 말은 여성에 비해 남성과 관련된 말이 많고, 외모나 성품, 행동을 표현하는 말은 남성보다 여성과 관련된 말이 많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 중 전자는 과거에 남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던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남성이 여성의 외모나 성품,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의 사회적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나 성품, 행동을 표현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묘사어(‘요염하다, 요망하다, 꼬리를 치다’ 등)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점은 단순한 차이가 아닌 부정적인 여성관이 작용한 차별의 결과이다. 성적 순결과 관련한 말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녀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총각성’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도 그 예이다. 순결을 잃은 총각과 처녀를 평가할 때 여성의 경우는 좋지 않게 보고, 총각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던 과거의 차별적 가치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언어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상에 남성과 여성이 관련되어 있는 이상, 남녀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남녀의 사회적 위치가 과거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앞으로 언어에 반영되겠지만, 현재 언어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워감으로써 남녀의 ‘차이’가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2009 10월 고3전국연합] [48 ~ 50] (언어) 전해영, ‘국어에 나타나는 남녀 차이’<sup>74)</sup>

**1.** 글의 중심 화제는?

- ① 우리말에 나타나는 여성의 특징
- ② 우리말의 성별 표현의 변화 과정
- ③ 우리말에 반영된 남녀의 차이와 차별
- ④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우리말의 변화
- ⑤ 우리말에 나타나는 남녀 차별적 요소의 제거 방안

[2009년 10월 고3전국연합] 48. [출제의도]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 ③

▶ 첫째 문단은 우리말에 반영된 남녀 차이와 차별, 둘째 문단은 지칭어에 반영된 차이와 차별, 셋째 문단은 표현에 반영된 차이와 차별, 넷째 문단은 남녀차별이 없는 사회상에 대한 기대를 각각 중심 화제로 구성되었으므로 전체의 중심 화제는 ③이 적절하다.

2.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군.
- ② 남동생이 '형'이라 하고 여동생이 '오빠'라고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군.
- ③ '호박 같은 얼굴', '양털부리다'와 같은 말도 남녀차별의 요소를 의심할 수 있겠군.
- ④ '차이'는 대상의 속성에 따른 것이고, '차별'은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이 개입한 것이군.
- ⑤ 현재 사용하는 말들을 새 말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남녀차별 현상은 사라지지 않겠군.

[2009 10월 고3전국연합] 4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 ⑤  
 ■ 끝 문단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면 그 결과가 언어에 반영된다고 했으므로 ⑤는 주종(主從)이 바뀐 반응이다. 첫째, 셋째 문단 끝에서 ①을, 셋째 문단의 부정적 묘사어와 관련한 부분에서 ③을, 차이와 차별을 언급한 부분들에서 ④를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아버지, 어머니'와는 다른, 화자의 성별에 따른 대등한 지칭어이므로 차이가 반영된 표현이다.

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밑줄 친 경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도사리고 있는 남녀 불평등 사상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 70년대부터 이러한 운동을 해 왔는데, 현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Miss, Mrs의 구분을 없애고 Ms로 통일한 것이나, 'man'이 들어간 단어들을 중성적인 용어로 바꾼 것으로, chairman → chairperson, policeman → police officer, postman → letter carrier, sales man → sales clerk 등을 들 수 있다.

- ① 처녀작(處女作) → 첫 작품
- ② 파출부(派出婦) → 가사도우미
- ③ 운전수(運轉手) → 운전기사
- ④ 사모님식 투자 → 주먹구구식 투자
- ⑤ 경제학의 아버지 → 경제학의 대가

[2009년 10월 고3전국연합] 5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 ③  
 ■ <보기>는 남녀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중성적 표현을 예로 제시하였다. ①은 처녀의 순결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순서의 개념만 포함하도록 고쳤고, ②는 남성이나 여성을 의미하는 특정 표현을 배제하였으며, ④는 좋지 않은 것에 여성을 관련시켜서, ⑤는 좋은 것에 남자를 관련시켜서 각각 고친 것이다. 그러나 ③은 직업을 천시하는 어감을 가진 말을 미화시킨 것이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다.



言語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분	불	하나	
A 언어	<u>t</u> om	te <u>l</u>	ta <u>r</u> k	.....
B 언어	<u>s</u> om	se <u>l</u>	sa <u>r</u> k	.....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ar
라틴어	pater
고대 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ita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2009 9월 실시 평가원] [33-35] 언어, ‘비교 언어학을 활용한 언어의 조어 추정’<sup>78)</sup>

: 이 글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언어의 변화 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을, ‘외적 재구’와 ‘내적 재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외적 재구는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하는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내적 재구는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언어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적·공간적 흔적들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제] 언어의 옛 모습을 추론하는 방법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인 경험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며, 목표 영역은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개념화된다.

- (1)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2) ㉠ 사랑에 빠졌다.

(1)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며, ‘나그넷길’은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데, 추상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이라는 개념을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나그넷길’을 통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2)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의 ‘물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인생’과 ‘나그넷길’, ‘사랑’과 ‘물’에서처럼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의 경험은 대조적이다. 근원 영역은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또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곧 ‘나그넷길’에 의해서 ‘인생’을 개념화하지 ‘인생’에 의해서 ‘나그넷길’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빠지다’의 경험도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지 그 역은 아니다.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 두 영역의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그넷길’과 ‘인생’ 간에는 출발점에서 종착점의 여정이 있으며, 그 여정에는 여행의 동반자와 목적이 있으며, 희로애락 등의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이 경우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으로, 표현 불가능한 대상을 표현하고 복잡한 개념에 대하여 간결성을 제공하며, 표현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인 세계를 개념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은유의 유형에는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적 은유가 있다.

- (3) 논쟁은 전투이다.  
(4) 마음은 그릇이다.

첫째, 구조적 은유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3)에서 ‘논쟁’은 ‘전투’라는 개념에 의해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경험의 두 영역 사이에는 긴밀한 구조적 일치 관계가 존재한다. 곧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는 ‘적군’, 반대를 제기하는 것은 ‘공격’, 주장의 고수는 ‘방어’, 주장의 포기는 ‘항복’, 토론의 결과는 ‘휴전’ ‘승전 및 패전’에 해당된다. 이처럼 논쟁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표현들은 ‘전투’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 경험을 구체적인 존재, 곧 물체나 내용물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4)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마음은 구체적인 그릇에 의해 파악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마음이 크다/작다’, ‘마음을 닦다’와 같은 표현이 생겨난다.

셋째, 방향적 은유는 상호 대립 관계에 있는 방향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예를 들면 ‘위-아래’ 방향과 관련하여 ‘봉급이 올라가다/내려가다’, ‘저축률이 높다/낮다’ 등의 표현이 형성된다. 이러한 은유의 방향은 물건을 쌓을 때 양이 많아지면 더미가 높아지며, 잔에다 물을 부으면 수면이 올라가는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2009 7월 고3전국연합] 언어 [24-26] 김광해 외, 「국어지식탐구」<sup>82)</sup>

1.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인지 책략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 ㉡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 ㉢ 수사학에서 다루는 은유를 일상 언어활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어 구조화할 수 있다.
- ㉤ 은유는 추상적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험을 재료로 사용한다.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답<sup>83)</sup>] ㉡

☞ 은유는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 책략이다. 표현 불가능한 대상은 은유를 통해 언어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인식 불가능한 세계는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표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2. [보기]는 ㉠을 가능하게 한 ㉡의 요소를 찾아본 것이다.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 헤어 나오기 어렵다.
- ㉠. 해당 요소에 동화되어 간다.
- ㉡. 주체의 의지가 작용하여 행동을 만든다.
- ㉢. 결과적으로 대상 전체가 해당 요소에 잠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답<sup>84)</sup>] ㉡

☞ '사랑에 빠지다'는 '물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현한 은유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마치 물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같아지게 되며,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물에 온몸이 잠기는 것처럼 사랑에 온몸이 잠기게 된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보기 ||

- ㉠ 분위기가 고조되다.
- ㉡ 자존심에 금이 가다.
- ㉢ 오늘 주가는 상승세이다.
- ㉣ 논지의 허점을 공격했다.
- ㉤ 의식 수준이 십 년이나 뒤쳐져 있다.

- ① '내 마음은 호수다'는 ㉣의 은유 유형과 동일하다.
- ② ㉣의 근원 영역은 '그릇'이며 목표 영역은 '자존심'이다.
- ③ ㉣는 구조적 은유로, '논쟁은 전투이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는 '위-아래', ㉢는 '앞-뒤'와 관련된 일상 경험에 기초한 방향적 은유이다.
- ⑤ ㉠, ㉡ 모두 존재론적 은유로,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추상적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2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답<sup>85)</sup>] ㉤

☞ ㉣와 '내 마음은 호수다'는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인 존재를 통해 표현한 존재론적 은유이다. ㉣는 목표 영역인 추상적인 '자존심'을 '그릇'이라는 근원 영역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릇에 금이 가다'의 상황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는 존재론적 은유, ㉢는 '상승세/내림세'로 쓰이는 '위-아래'와 관련된 일상경험에 기초한 방향적 은유에 해당한다.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리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언어 지도가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이것은 ㉠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지역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는가 등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언어 지도는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고,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 주며,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하여 민속학적, 문화사적 연구에 도움을 준다. 또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언어 지도는 자료를 기입해 넣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한 분류법이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자가 원자료를 해당 지점에 직접 기록하는 기초 지도라면, 후자는 원자료를 언어학적 관점에 따라 분석, 가공하여 지역적인 분포 상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지도를 말한다.

진열 지도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적절한 부호로 표시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어형은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한다. 가령 ‘누렁지’의 방언형으로 ‘누렁기, 누풍지, 소데끼, 소디끼’ 등이 있다면, ‘누렁기, 누풍지’와 ‘소데끼, 소디끼’를 각각 비슷한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해석 지도는 방언형이 많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하며, 연속된 지점에 동일한 방언형이 계속 나타나면 등어선(等語線)을 그어 표시한다. 등어선은 언어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느냐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를 두어 표시하기도 한다. 이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2009 실시 고3 6월평가원] [17-19] 언어,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sup>86)</sup>

: 이 글은 지리학의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여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현상을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지리학의 한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도에 담긴 언어 형태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의 방법 및 의의

**1.**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언어 지도를 이용하면 문헌을 통한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언어 지도를 통해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을 알아볼 수 있다.
- ④ 여러 방언형 중 하나를 표준어로 정할 때, 방언형의 분포를 보여 주는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언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 대상자로는 외지 경험이 적은 순수한 토박이 화자가 적합하다.

[2009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17.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답<sup>87)</sup> ③]

정답해설 : 방언 연구에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지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기에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에 대한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③ 방언형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어떤 방언형이 두루 쓰이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언어 지도는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에, 순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2.**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기

- a. ' '를 어떤 지역은 '빨쥐', 어떤 지역은 '뿔쥐'라고 하는군.
- b. '아버지의 남동생'을 뜻하는 '아재'가 우리 지역에서는 '고모'나 '이모'를 뜻해.
- c. 언어 지도 '부추' 항목을 찾아보니, '솔, 줄, 정구지' 등의 어형이 나타나는군.
- d. '진달래'를 우리 아버지는 '참꽃'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웃 할아버지는 '연달래'라고 하셔.

- |           |         |
|-----------|---------|
| ① a, c, d | ㉠ b     |
| ② b, d    | a, c    |
| ③ b, c    | a, d    |
| ④ a, c    | b, d    |
| ⑤ a       | b, c, d |

[2009 실시 고3 6월평가원] 18.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 찾기) ㉠ ①  
 정답해설 : '박쥐'를 '빨쥐, 뿔쥐'로, '부추'를 '솔, 줄, 정구지'로, '진달래'를 '참꽃, 연달래'로 부르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의 예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의미하는 '아재'가 지역에 따라 '고모'나 '이모'를 의미한다는 b의 사례는 ㉠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분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3. '노을'로 [보기]와 같은 가상의 언어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 위 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노을'의 방언형

노을 □	노오리 ■
나불 ◇	나부리 ◆
복새 ☆	

<지도 A>                      <지도 B>

\* 점선은 임의의 행정 구역을 표시한 것임.

- ① '노을'과 '노오리'가 형태적으로 유사하니까 비슷한 형태의 부호 □, ■를 사용한 것이로군.
- ② '복새'의 부호 ☆가 □, ◇와 유사성이 없는 것은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반영한 것이로군.
- ③ 지도 A에서는 특정 지점의 방언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
- ④ 지도 B를 만들 때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등어선을 표시했군.
- ⑤ 지도 A에 표시된 이질적인 방언형이 지도 B에서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니 지도 B에는 지도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갔군.

[2009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19.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및 적용) ㉠ ②  
 ■ <보기>는 표준어 '노을'에 대한 가상의 언어 지도이다. <지도 A>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호로 표시한 진열 지도이고, <지도 B>는 앞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등어선으로 표시한 해석 지도이다. 진열 지도인 <지도 A>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하는데, '노을'과 '노오리'가 비슷한 모양인 '□'과 '■'의 부호를 사용한 것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 ◇, ☆' 등은 '노을'의 방언형 중에서 형태가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한 부호일 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답피하기] ④ <지도 B>를 보면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굵게 등어선으로 표시하였다. ⑤ <지도 B>를 보면 <지도 A>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이 무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편집자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는 언어 지식에서 얻은 문장의 의미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서의 표현과 이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화용상의 암시는 이들의 상호 작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 영이는 일등이 아니다.

어떤 대화 상황에서는 (1)의 의미가 ‘철수가 일등을 하였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1)에서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철수와 영이를 알고 있고 두 사람이 일·이등을 다투어서 영이나 철수가 일등 아니면 이등을 할 것을 알거나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런 의미가 도출된다. 이렇게 화자나 청자 또는 상황에 의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을 화용상의 암시라고 한다. 이 화용상의 암시는 (1)과 같은 표면적인 의미와, (1)의 배경이 되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파악할 수 있다. 즉, 언어 지식에 의하여 발화에서 영이는 일등이 아니라는 명제를 이끌어 내고,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 밖의 지식과, 화자와 청자가 지니고 있는 추리 규칙에 의하여 철수가 일등이라는 명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가 공동의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 A : 철수가 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B : 철수는 어려서 개미를 가지고 놀곤 하였지.

(2)의 경우, B가 A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동 지식이 없다면, 이 B의 발화를 들은 A는 어떤 전제를 추리하게 된다. 철수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영이를 좋아하는 것이 이상한 취미라면 영이는 어딘가 개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선행 발화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전제와 함께 화자가 한 말에서 청자가 끌어내는 화용상의 암시가 대화상의 암시가 되는 것이다. 곧 언뜻 듣기에는 관련이 없는 발화문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갖는 화용상의 암시를 ㉠ 대화상의 암시라고 한다.

언어 지식에서 얻는 문장의 의미 해석 외에 한 발화는 다음과 같은 화용상의 암시를 갖는다. 선행 발화문과 관련시키는 데 필요한 공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화용상의 암시,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두 말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전제, 이 전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상의 암시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화용상의 암시는 일반적인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남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을 갈라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2009 4월 고3전국연합] [19~22] 언어 <출전> 왕문용, 「국어와 의사소통」<sup>90)</sup>

1. 글로 보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 ]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① 선행 발화에서 끌어낸 추리 규칙으로 가능하다.
- ② 언어 지식에 의한 발화의 의미 해석으로 가능하다.
- ③ 발화들을 결합하는 전제에서 의미 추론으로 가능하다.
- ④ 대화 참가자들의 대화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 ⑤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으로 가능하다.

[2009 4월 고3전국연합] 1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답] ⑤  
 [해설] ⑤ 하나의 발화에서 문장의 의미 해석 외에도 화용상의 암시와 대화상의 암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이다. 즉, 원활한 의사소통은 언어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추리 규칙, 문장의 의미 해석, 믿음, 추론 등에 대한 언급은 모두 부분적인 언급에 불과하다.

2. [ A ]로 보아 ㉠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언어 지식    나. 추리 규칙    다. 공동의 지식

- ① ㄱ                      ② ㄱ, 나                      ③ ㄱ, 다
- ④ 나, 다                      ⑤ ㄱ, 나, 다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답] ②  
 [해설] ② 대화상의 암시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의 지식이 없을 때 두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두 말을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즉, 대화상의 암시 요건은 문장의 의미 해석을 이끌어 내는 언어 지식, 전제를 이끌어 내는 추리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 어제 열린 체육대회에서 너희 반 우승했니? ..... ㉠  
 을: 둘 더하기 둘이면 넷이지. .... ㉡  
 갑: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 ..... ㉢  
 을: 달리기 경기에서 경희까지 발목을 빼었어. .... ㉣  
 갑: 경희가 다쳐서 윤호가 마음이 아프겠네. .... ㉤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분
㉠: 어제 체육대회가 열렸다.	문장 의미 해석 ..... ①
㉡: '을'의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대화상의 암시 ..... ②
㉢: 지난번에는 다친 사람이 있었다.	대화상의 암시 ..... ③
㉣: 경희가 달리기 종목에 참가했다.	문장 의미 해석 ..... ④
㉤: 윤호가 경희를 좋아한다.	화용상의 암시 ..... ⑤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답] ③  
 [해설] ③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라는 발화에서 '는' 조사가 쓰인 것으로 보아 '지난번에는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문장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대화상의 암시가 아니라 문장 의미 해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① '어제 열린 체육대회'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문장 의미 해석이다. ② 관련되는 발화지만 체육대회와 관련된 공동 지식이 없으므로, 언뜻 듣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을의 발화에서 '당연하다'를 이끌어내고 이로부터 '을의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화상의 암시에 해당한다. ④ 문장 의미 해석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경희가 다친 것을 원인으로 윤호가 마음이 아프겠다고 발화하는 것은 윤호가 경희



좋아하고 있다는 상황에 의해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으로 화용상의 암시에 해당한다.

4. 보기 [결합하는]을 사전에서 찾아 본 내용이다. ㉠와 같은 제약이 나타나 있는 것은?

[기]

: [… ]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나 목적어로 온다.

- ① 서로 견주어 차이를 알아보았다.
- ② 누나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 ③ 깜빡 잊고 친구들에게 약속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 ④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는 다릅니다.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22. [출제의도] 서술어의 제약 이해하기 ㉠①

[해설] ① ‘견주어’는 ‘둘 이상의 사물을 질(質)이나 양(量)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의 뜻이므로 항상 제약을 받는다. ② ③ ④ ‘가르치다’, ‘말하다’, ‘맞히다’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⑤ ‘동일하다’도 ‘결합하다’와 비슷하게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오지만, 이 문장에서는 ‘동일한’ 꼴로 쓰여 ‘바로 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양분적 방법에 의한 것과 ㉠ 정도적 방법에 의한 것이 있다. 언어 현상을 체계화하여 기술하기 위해, 야콥슨은 어떤 언어적 자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 양분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언어학자들은 여러 언어 현상과 그 규칙을 간결하게 일반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양분적 방법에 의한 기술은 인간의 사고를 일정한 범위와 틀 안에 묶어 두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언어 현상의 다양한 국면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게 하였다.

국어 문장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양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청성’은 비범주적 규칙 또는 정도성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어에서 청자의 행동적 응답을 요구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명령문으로 범주화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요청성은 명령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의미 자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문을 닫아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 ㄱ. 문을 닫아라.
- ㄴ. 문 좀 닫을 수 없겠니?
- ㄷ. 문을 닫자.
- ㄹ. 문을 닫아 주기 바란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명령문뿐만이 아니라 의문문, 청유문, 평서문의 경우도 단순히 의문, 청유, 서술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모두 요청성의 의미 자질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께서 “문 좀 닫을 수 없겠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문장의 의미 자질은 범주화된 문장의 형식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각각의 문형이 가지는 요청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 문장들은 강압성이나 정중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ㄱ은 강압성이 가장 강하고, ㄴ은 강압적일 때와 온건할 때가 있을 수 있으며, ㄷ은 온건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리고 ㄹ은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압성과 정중성의 차이에 따라 요청성의 정도를 파악해 보면, ㄱ이 가장 강하고 ㄹ로 가면서 그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평서문이라고 부르던 모든 문장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청성의 의미 자질은 각각의 문형에서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의미 자질은 양분적인 것보다는 정도적인 방법에 의해 기술될 필요가 있다. 국어에는 이 밖에도 동의성, 반의성, 사동성, 피동성 등 범주적 규칙만으로 명쾌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비범주적이거나 정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44~46] 언어 <출전> 박영순, 『한국어 의미론』<sup>95)</sup>  
 개관 : 그동안 언어 현상은 주로 양분적 방법에 의해 기술되어 왔다. 글쓴이는 양분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후, 국어의 ‘요청성’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언어 현상이 정도적 방법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1.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 ① 야콥슨이 도입한 양분적 방법의 한계
- ② 명령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자질
- ③ 범주화된 문형과 그 의미 자질이 불일치하는 사례
- ④ 여러 가지 문형에서 나타나는 요청성의 정도 차이

## ⑤ 정도성의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현상

[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 44. [출제의도]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글의 1문단에서는 아홉손이 도입한 양분적 방법의 한계, 2문단과 3문단에서는 범주화된 문형과 그 의미 자질이 불일치하는 사례, 4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형에서 나타나는 요청성의 정도 차이, 5문단에서는 국어에서 정도성의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명령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자질은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 2.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들 : 아버지, 제 용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 ㉠용돈을 올려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할 일부터 잘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들 :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앞으로 잘 하면 얼마나 올려 주실 거예요?  
 아버지 : ㉢만 원 정도 올려주면 되겠지?

- ① ㉠로 보아,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말을 요청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로 보아, 아들은 아버지의 첫 번째 말에 담긴 문장의 의미 자질을 제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로 보아, 아버지는 아들의 두 번째 말에 담긴 문장의 의미 자질을 제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들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비교해 볼 때, 문장의 형식과 그 의미 자질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통해,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들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 45.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 <보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문형에 나타난 의미 자질이나 그 정도성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첫 번째 말은 할 일을 잘 하라는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지만, 아버지의 두 번째 말은 용돈의 액수를 묻는 의문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자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대비한다고 하여,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3.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두 문장의 반의 관계는 다양한 형식의 문장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얼마나 반의적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  
 ② 동의문이 될 수 있는 문장쌍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문장쌍이 동의성의 조건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문문에는 순수하게 질문하는 의문문으로부터 “이 책 좋지 않니?”와 같은 수사 의문문까지 의문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형식의 의문문이 존재하고 있다.  
 ④ 사동문이나 피동문은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게 하다’와 ‘-어지다’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⑤ 격조사와 보조사 모두 문법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문법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 46. [출제의도] 핵심 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  
 ■ ㉠의 사례는 양분적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동문과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도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은 국어의 언어 현상 중 반의성의 정도를, ㉡는 동의성의 정도를, ㉢은 의문성의 정도를 다루고 있고, ㉣는 양분되어 있는 격조사나 보조사의 기능을 정도성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생일 선물을 깜빡 @있는 아빠가 ㉡“내일 우리 집보다 더 큰 곰 인형 사 올게.”라고 말했다 때, 아빠가 발화한 문장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가 아닌가?
- ㉢ 발화의 적절성 판단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한다. 적절성 조건은 상황에 대한 배경적 정보와 관련되는 예비 조건, 그 행위에 대한 진실된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진지성 조건, 그 행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만드는 발화 효과와 관련되는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어떤 발화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
- ㉣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있음을 화자가 믿는 것이 예비 조건, 청자가 그 행위를 하기를 화자가 원하는 것이 진지성 조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발화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화이지만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비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좀 미워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하지만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진지성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달 좀 따다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정말로 달을 따러 가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 ㉤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저 달 좀 따다 주세요.”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달을 따다 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고 달을 따다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으며 또 달을 따러 가게 할 생각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이 발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또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는 이 발화가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청자 또한 그런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발화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유효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용인된다.
- ㉥ 화행 이론은 적절성 조건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화의 적절성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이것만으로 발화와 상황의 상호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발화 상황과 연관 지어 언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언어 이론의 공통적 한계이기도 하다.

[2008 실시 고3 9월 평가원] [34-37] 화행이론에서의 발화의 적절성 조건<sup>99)</sup>

: 발화의 적절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시 예비조건, 진지성 조건,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적절한 발화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 발화의 적절성 조건

1.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잘못이다.
- ② 예비 조건은 다른 적절성 조건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③ 적절성 조건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발화 행위는 요청이다.
- ④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적절성 조건을 어긴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다.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sup>100)</sup> ㉣

정답해설 : 적절한 발화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발화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 내용은 위 글에서 말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오답피하기]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각 상황마다 위배되는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예비 조건이 다른 적절성 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적절성 조건은 모든 발화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⑤ 일부러 적절성 조건을 어김으로써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늘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 2.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 ① ㉠ : 예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② ㉡ :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여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③ ㉢ :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요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 : 다른 사례를 들어 앞 단락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 :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008 실시 고3 9월 평가원] 35.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이해) ㉠<sup>101</sup> ④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화행 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글은 딸의 생일 선물을 잊은 아빠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글을 시작한 후에 화행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발화의 적절성 판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것 외에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까지 소개하면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주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발화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화행이론만으로는 발화와 상황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라) 단락은 앞 단락을 뒷받침하는 단락이 아니라 앞 단락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락이다.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보기 1]은 ㉠의 예비 조건이다. ㉠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차례로 반응을 보였다고 할 때,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은?

### 기 1

- 큰 곰 인형을 사 오는 것을 딸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가 믿는다.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아빠 스스로 믿는다.

### 보기 2

딸(6세) : (샐쭙거리며) 세상에 그렇게 큰 곰 인형이 어딴?  
 아들(4세) : (볼멘소리로) 아빠, 나도 사 줘.  
 엄마 : (딸의 손을 잡으며) 그럼 아빠한테 예쁜 구두 사 달라고 할까?  
 할머니 : (온화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구두가 좋겠다.  
 할아버지 :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선물을 사 주면 우리 아기가 좋아할까?

- ① 딸                      ② 아들                      ③ 엄마  
 ④ 할머니                ⑤ 할아버지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예의 적용) ㉠<sup>102</sup> ②

정답해설 : ㉠의 상황을 이해한 후, 이 상황에서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찾는 문제이다. <보기 1>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보기 2>에서 딸은 아빠가 그렇게 큰 곰 인형을 사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 나도 사 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아빠가 누나에게 그런 곰 인형을 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곰 인형을 사달라는 것이다. 즉 예비조건을 어기지 않은 요청이 된다. 엄마와 할머니가 구두를 언급하는 것도 곰 인형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할아버지가 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곰 인형을 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

##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어서 불안해요.  
 ② 그는 일에 푹 빠져 자기 나이를 잊고 지낸다.  
 ③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의 이름도 잊었어요.  
 ④ 그는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⑤ 지난날의 감정은 모두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7.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sup>103</sup> ①

정답해설 : ㉠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을 한순간 미처 생각하여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중요한 약속을 잊다', '제삿날인 것을 잊었다.'는 등의 경우에 쓰인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다'는 ①이다. [오답피하기] ②, ④, ⑤ 일하거나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 쓰지 않다. ③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

**언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구조로 볼 때, 단일 명제로 구성된 단문(홀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제들이 결합된 복합문(겹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단일 명제로 된 문장들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명제들의 계층적 결합 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경제적인 일이 된다. 또한, 여러 문장들이 내포한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명제들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접속에 의한 결합과 내포에 의한 결합의 두 가지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접속에 의한 결합 방식은 두 개 이상의 명제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데, 다음 예 문은 접속에 의하여 두 개의 명제를 결합한 문장이다.

과자를 좋아하지만 영화는 사과를 좋아한다.

접속에 의한 결합에서는 결합되는 명제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내포에 의한 결합에서는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에 종속되거나 다른 명제의 일부가 된다. 내포에 의한 결합 방식에는 보문에 의한 내포와 관계절에 의한 내포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문에 의한 내포는 어떤 명제에서 비어 있는 요소, 즉 ‘무엇’이나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철수는 무엇을 기다린다. (무엇 = 눈이 내리다)

→ 철수는 눈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관계절에 의한 내포에서는 어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의 한 요소를 한정하거나 수식하게 되는데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는 빨갓다)

→ 철수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명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응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장을 응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생략과 대명사화, 대동사화 등이 있다. 생략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는 사과를 먹고, 철수는 물을 마셨다.

→ 철수는 사과를 먹고, 물을 마셨다.

대명사화는 한 문장 안에서 복잡한 요소 대신에 대명사와 같은 단일한 요소를 사용하는 현상인데 대동사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용감한 학생은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그는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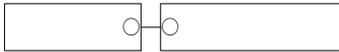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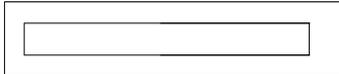
→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그랬다.

[2008 7월 고3전국연합] \*\* 언어 \*\* □ 출전 : 노명완, <문장의 결합 방식과 응축><sup>104</sup>

1. 글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합 방식**

. 접속  ... ①

. 내포  ... ②

○ 문장 성분의 응축 방식

. 생략  ... ③

. 대명사화  ... ④

. 대동사화  ... ⑤

[2008 7월 고3전국연합] 3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답]105) ④  
대명사화를 도식화하면 ◎♡◎☆가 되어야 한다.

2. [보기]를 ㉠에 따라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3 점]

[ 기 ]

. 토끼는 앞발이 짧다.  
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ㄷ. 철수는 영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주었다.

	의한 결합	보문에 의한 내포	관계절에 의한 내포
①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2008년 7월 고3전국연합] 31.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106) ②  
㉠은 '무엇이 어떠한가'의 유형인 보문에 의한 내포이다. ㄴ은 이어진 문장, 즉 접속에 의한 결합이고, ㄷ은 관계절을 내포한 것이다.

3. [보기]의 ㉠~㉣를 ㉡에 따라 고친 문장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기 |

㉓ 걸어서 도서관에 갔다. 민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㉔준서가 도서관 앞에서 민서를 만났다. 민서가 도서관 앞에서 준서를 만났다. ㉕준서가 민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다. 민서도 준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다. ㉖준서는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다. 민서가 준서를 앞세우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㉗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준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 ① ㉓ : 준서는 걸어서, 민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② ㉔ : 준서와 민서가 도서관 앞에서 만났다.  
 ③ ㉕ : 준서가 민서에게 반갑다고 인사했고, 민서도 준서에게 그랬다.  
 ④ ㉖ : 민서가 도서관 회원카드가 있는 준서를 앞세우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⑤ ㉗ :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준서도 그녀에게 그랬다.

[2008 7월 고3 전국연합] 32.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㉗<sup>(07)</sup> ㉕ ㉗은 준서와 민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준서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라고 해야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 전 경북 안동의 묘에서 16세기에 쓰인 한글 편지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한다. 언간은 우리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언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자료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간이 전해 지지만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간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언간이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sup>\*</sup>에 보이는 문체적 특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밋 식어미로 더브리(與其母及姑)’ 부분을 보면,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밋’이 더 들어 있다. 또한 ‘밤 들매 미쳐 7마니 나가’라고 해야 할 것을 ‘밋 밤 들매 7마니 나가(及夜間潛出)’라고 하여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자내 여히고 아무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헌디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자내 향히  
 무으물 츠싱 니즐 주리 업스니

( 여이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내 향  
 한 마음을 이승에서 잇을 줄이 없으니)

위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내’라는 호칭어를 쓰면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한테’의 옛 형태인 ‘헌디’가 이미 16세기 언간에 서부터 쓰이고 있었고, ‘혀’가 ‘히’로 축약된 어형이 언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구어적 성격은 다른 언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체후 일항 만안혀옵신 지 병 복모 간절혀옵고 …… 자셔한 말심을’에는 당시 중앙어의 일반적인 어형인 ‘일항(一向)’, ‘병(竝)’, ‘말슴’ 등과 비교할 때,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이 밖에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ㄴ’(재점)을 이용한 표기이다. ㉠ ‘총’ 그만 굿치압’, ‘더옥’ 근심코 인노라’, ‘너히나 가 보고자’ 바라누니’, ‘부디’ 잘 지니여라’, ‘황송’ 흐오이다’에서 재점은 각각 ‘총’, ‘더옥’, ‘보고자’, ‘부디’, ‘황송’을 반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략 표기이다. 오늘날 ‘바빠’의 의미에 해당하는 ‘밧바’를 ‘밧’으로, ‘잠깐’으로 써야 할 것을 ‘잠’으로 쓰기도 한다. 또한 언간의 끝을 ‘이만 적습’으로 하거나 ‘여의치 못혀옵’을 ‘여의치 못’으로 쓰기도 한다.

\* :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쓴 글.

[2008 실시 고3 6월평가원] [40-42] 언어,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sup>108)</sup>

: 이 글은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을 문체적, 구어적, 표기적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언간은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가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음에 비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재점’이나 생략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표기가 가능하다.

[주제]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점]

- ① 언해보다 원문의 간섭과 제약이 컸다.
- ② 언해에 비해 우리말 어법에 부합했다.



- ③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 ④ 대화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
- ⑤ 남성들이 주로 창작하였다.

[2008 실시 고3 6월평가원] 40.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sup>109</sup> ㉡

정답해설 : 연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피하기] ㉢ 1문단에 보면 언간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더 부분이라고 했다. ㉣ 3문단에 보면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한 편지글이라 명시하고 있다. ㉤ 1문단에 지금까지 전해진 언간들 중,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2. [보기] 오늘날 편지의 일부이다. 위 글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기 ]

㉠ \_\_\_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그지없었네.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sup>㉡</sup>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앞으로도 목표를 ㉢ 향해 정진할 것을 믿네. 부모님께도 안부 ㉣ 말씀을 전해 드리게.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 적겠네.

2008 ○월 ○일 홍길동

- ① ㉠은 오늘날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 ② ㉡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 ③ ㉢와 같이 축약된 형태의 말이 일찍이 언간에서도 확인된다.
- ④ ㉣는 언간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 ⑤ ㉤는 언간에서 종결형 어미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008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41.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상황예의 적용) ㉠<sup>110</sup> ㉡

정답해설 : 언간에서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말심'은 중앙어의 일반적 어형인 '말슴'의 방언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16세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호칭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자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6세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테'는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향후어'의 축약형인 '향히'가 위 글에 인용된 언간에 쓰이고 있다. ⑤ 언간의 끝은 '이만 적습', '여의치 못' 등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쓰기도 했다.

3.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언간에 사용된 재정은 글자나 단어가 반복될 때 다시 쓰는 번거로움과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화를 낼 수도 있다

- ① 총 " 그만 곳치암
- ② 더욱 " 근심코 인노라
- ③ 너히나 가 보고자" 브라느니
- ④ 부디 " 잘 지니여라
- ⑤ 황송 " 호오이다

[2008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42.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에 따른 사례 찾기) ㉠<sup>111</sup> ①

정답해설 : '총총'은 편지글을 쓸 때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사도 가지지 않은 명사구를 ‘무조사 명사구’라 하고, 그것을 줄여 ‘무조사구’라 한다. 무조사구가 되려면 명사구가 아무런 조사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격조사를 가지는 구와 대립을 이루어야 한다.

- (가) 철수가 그 학교에 간다.
- (나) 철수가 그 학교∅ 간다.
- (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인 김 선생님이 오신다.

무조사구의 조건을 위 (나)에 적용하면, ‘그 학교’는 ‘무조사구’이다. ‘그 학교’에는 아무런 조사도 없고, (가)의 ‘그 학교에’와 대립을 이룬다. (다)에서 ‘우리의 희망’과 ‘김 선생님’은 흔히 동격 관계를 이룬다. 그것이 ‘인’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인’은 서술격조사 ‘-이다’의 관형사형이므로, 조사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무조사구에 대한 이전 논의는 대체로 온전한 격조사구에서 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고 생략의 조건을 명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내 주위에서 너처럼 말하는 애∅/애가 참이다.’, ‘그는 꿀∅/ 꿀을 먹은 병어리처럼 말이 없다.’를 생략설로 분석하면, 앞 예문의 ‘애가’는 ‘이/가’가 생략되어 ‘애’가 된 것으로 보기에 ‘애∅’는 언제든지 ‘애가’와 같이 복원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애가’는 거의 쓸 수 없다. 뒤의 예문은 격언이나 속담의 예로, ‘꿀’을 ‘꿀을’과 같이 복원해서는 원래의 뜻을 거의 다 잃게 된다.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표현 가치 혹은 기능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표현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어체 담화에서 무조사구 사용은 5.6%, 구어체 담화에서 무조사구 사용은 약 47.8%로 나타났다. 문어체에서보다 구어체에서 무조사구가 무려 8배를 넘게 사용된 결과를 보였다. 구어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비격식적이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의식 속에서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구어체 담화의 특성이 무조사구의 사용이고, 이와 관련한 구어체 담화의 특징이 활성화 상태 (이미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무조사구의 출현은 활성화 상태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무조사구는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서울에 살았습니다.’와 같은 담화 도입문에는 쓰일 수 없다. 즉 담화에 처음 도입되는 비활성적 상태에서는 무조사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명사가, ‘김 씨같이 점잖은 사람[이, ∅]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요?’와 같이 관형 성분을 많이 가질수록 무조사구로 쓰이기 어렵다. 이는 수식 요소가 길어지는 것은 친숙성과 관련 있다는 것을 뜻한다. 친숙하지 않다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수식 성분의 길이가 활성화 정도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긴 수식은 흔히 비활성적 대상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무조사구를 그 조건과 활성화 상태에 입각해 논의하면 그간 해석이 어려웠던 특이한 예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없음’을 뜻하는 표시.

[2008 5월 고3 정기학업성취도평가] [언 어][27~29] 출전 : 임홍빈,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sup>12)</sup>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어체보다 구어체에 무조사구가 더 많이 나타난다.
- ② 담화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무조사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사구의 출현 빈도가 낮다.



- ④ 격언에 나타나는 무조사구는 보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⑤ 생략설 관점에서는 격조사의 사용 유무가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본다.

[2008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277. [세부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답] ④

[해설] ④ '속담과 격언에 나타나는 무조사구는 보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아니라 격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은 4문단에서, ②는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5문단에서, ⑤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격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복원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② 격조사가 쓰일 때와 쓰이지 않을 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③ 무조사구는 비격식적인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격언이나 속담은 특수한 발화 상황에 사용되므로 무조사구의 용례로 볼 수 없다.  
 ⑤ 구어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공유하므로 문어체 담화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다.

[2008년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28. [주장의 근거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답] ②

[해설] ② 생략설에서는 무조사구를 '온전한 격조사구에서 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관점은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면 의미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 즉 "'꿀'을 '꿀을'과 같이 복원해서는 원래의 뜻을 거의 다 잃게 된다.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표현 가치 혹은 기능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표현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 ① 복원 방법은 문장의 성분에 따라 조사를 복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복원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4문단에서 '무조사구는 비격식적이고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발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즉 '간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무조사구가 사용된 격언과 속담의 예를 들어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면 오히려 어색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무조사구의 용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⑤ 이 글의 논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 보기 ]

- . 철수가 누구 좋아하니?  
 가. 철수가 누구를 좋아하니?  
 나. 팔 아프네.  
 나. 팔이 아프네.  
 다. 영철아, 택시 온다.  
 다. 영철아, 버스가 온다.

- ① 가의 '누구'는 가의 '누구를'보다 활성화 상태가 높은 발화이다.  
 ② 오랫동안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가 낮으므로 나과 같이 발화한다.  
 ③ 갑자기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가 높으므로 나<sup>1</sup>과 같이 말한다.  
 ④ 다의 '택시'는 활성화 상태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화이다.  
 ⑤ 택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sup>1</sup>과 같이 말했다면 활성화 상태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2008년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29. [제시문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사례 분석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핵심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다른 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답] ①

[해설] ① '가'와 가<sup>1</sup>, 나과 나<sup>1</sup>, 다과 다<sup>1</sup>은 모두 조사가 사용되지 않으면(무조사구) 활성화 상태가 높고, 사용되면 활성화 상태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들이다. 즉 활성화 유무와 조사 사용 유무가 대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가 과 가<sup>1</sup>에서 가의 '누구'가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나<sup>1</sup>의 '누구를'보다 활성화 상태가 높은 발화로 볼 수 있다. ② 오랫동안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가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 ③ 갑자기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가 낮다. ④ 조사가 사용되지 않는 무조사구는 활성화 상태가 '높은' 상황에서 발화되므로, "택시"는 활성화 상태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화"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택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버스'는 새로운 정보이므로 활성화 상태가 낮다. 따라서 위 글의 논지에 따르면 격조사가 생략되지 않는 것은 활성화 상태가 낮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어는 말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입으로 발화하는 말소리는 자연계의 소리나 기계의 소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음과 모음을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은 서로 깊은 상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에서 ‘뚫다, 뚫다’와 같은 말을 활용하면, 즉 어간에 ‘어/아’를 붙이면 각각 ‘도와 더위’와 같이 된다. 한국어로 강아지 짖는 소리는 ‘멍멍’인데 이 말은 ‘멍+멍’이다. 영어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bow’를 두 번 써서 나타낸다. 그렇다면 ‘bowbow’가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bowwow’이다. ‘b’가 우리말의 ‘우’와 비슷한 ‘w’로 바뀌었다. 영어에서 이가 흔들리는 것을 ‘wobble’과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짓나가 빠질 때의 영어권 아이들은 그것을 종종 ‘bobble’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는 ‘w’가 ‘b’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술소리가 ‘ㄴ’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자음이 ‘ㄴ’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ㄴ’과 같은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뀐다면 그것은 ‘우[w]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말에 구개음화라는 것이 있다. ‘굳이, 같이’ 등과 같은 말의 발음이 [ㄷ]이나 [ㄷ]으로 발음되지 않고 [지]나 [ㄷ]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는 항상 ‘ㅣ’ 모음이나 ‘ㅑ’나 ‘ㅓ’와 같이 ‘ㅣ’ 모음이 포함된 ‘ㅣ’ 계열 이중 모음이 있을 때 ㉠ 일어난다. 즉, ‘굳어, 같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ㄷ]과 [ㄷ]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strike’와 같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들을 때, ‘s’와 ‘t’ 사이, ‘t’와 ‘r’ 사이, 그리고 마지막 ‘k’ 다음에 마치 ‘ㅡ’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나 한글로 표기할 때 ‘스트라이크’와 같이 ‘ㅡ’를 넣어서 쓴다. 이는 ‘ㅡ’ 모음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아무런 특징을 가지지 않은 모음이기 때문이다. 즉, ‘ㅡ’는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다른 색깔의 소리와 만나게 되면 자신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다른 소리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 준다. 이런 이유로 ‘크(다), 뜨(다)’와 같이 ‘ㅡ’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아서/어서’와 같은 말이 결합하면 ‘커서, 떠서’ 등과 같이 발음된다. 그러나 ‘sponge, lunch’ 등과 같은 경우에는 ‘ㅡ’ 모음이 아닌 ‘ㅣ’ 모음을 사용하여 [스펀지], [런치] 등과 같이 발음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개음과 ‘ㅣ’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구개음 안에 ‘ㅣ’라는 구성 원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ㄷ, ㅌ’이 ‘ㅣ’ 모음을 받아 들여 ‘ㄷ, ㅌ’으로 변하고, 외래어 발음의 경우에는 구개음 안에 들어 있는 ‘ㅣ’가 밖으로 나와 모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2008 4월 고3전국연합] [언어] [43~46] 출전 : 허용, 「말소리의 특징과 우리말 발음」<sup>16)</sup>

1.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계의 소리와 인간의 말소리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음운이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자음과 모음의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영어의 음운 현상이 한국어의 음운 규칙 설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간의 말소리와 자연계의 소리를 분석하여 말소리의 보편적 특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⑤ 국어의 자음과 영어의 모음의 변화 양상이 유사함을 들어 두 언어의 음운규칙이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3. [글의 전개상 특징과 핵심 화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화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up>17)</sup> ㉡ [해설] ㉡ 이 글은 특정 음운인 ㅂ(b)과 ㅍ(w)의 영향 관계와, 자음과 모음이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 2. 글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점]

[ 기 ]

‘춤다’가 활용될 때는 ‘춤+어>추워’와 같이, 어간의 자음 ‘ㅂ’이 모음 ‘ㅈ’로 바뀐다.

- ㉠ ‘밭이’가 발음될 때는 ‘ㅈ’ 모음 때문에 ‘ㅈ’이 ‘ㅊ’으로 변하여 [바치]라고 발음된다.  
 ㉡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은 앞음절의 받침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 ‘ㄹ’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우리말 ‘설+달, 술+가락’이 ‘선달, 순가락’으로 바뀌고, 미국 영어에서 ‘water, city’를 [워러], [시리]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ㄷ’과 ‘ㄹ’이 서로 넘나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08 4월 고3전국연합] 44. [세부 정보의 파악과 미루어 알기] [출제의도] <보기>의 사례 자료들이, 자음과 모음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다. ㉠<sup>118)</sup> ① [해설] 이 글의 3, 4문단에서 모음으로 인해 자음이 변하는 경우인 구개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는 우리말의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음과 모음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문단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에서 ㅂ(b)이 ㅈ(w)로 바뀌거나 넘나드는 언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사례이다. ㉠, ㉡는 자음 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논지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ㅡ’는 음성학적으로 아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② ‘모오다’를 활용할 때도 ‘ㅡ’가 탈락되는 현상이 생기겠구나.  
 ③ 자음이 없이 모음 하나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구나.  
 ④ 언어의 공통된 특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구나.  
 ⑤ ‘요’도 ‘ㅣ’ 모음을 내포하고 있으니 ‘ㅣ’ 계열 이중 모음이겠구나.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5.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sup>119)</sup> ③ [해설] ③ 이 글은 음절의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니므로, ‘자음이 없이 모음 하나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과 ②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1문단에서, ⑤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② 나는 아침 느지감치 일어나 밥 한 술을 댔다.  
 ③ 막내아들의 성공으로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④ 그는 열흘 동안이나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⑤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적군에 대항하였다.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맥락을 통해 특정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sup>120)</sup> ① [해설] 이 글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것은 ①의 경우이다. ②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으로, ③은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뜻으로, ④는 ‘병을 앓다가 낫다’의 뜻으로, ⑤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답**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 편찬된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는 훈민정음 자음의 명칭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밝히고,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글자의 배열은 첫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첫소리에만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ㅋ, ㆁ, ㆏, ㆑, ㆓, ㆕, ㆙, ㆛), 가운데소리(중성)에만 쓰일 수 있는 열한 자(ㅌ, ㅍ, ㅊ, ㅌ,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로 자음과 모음의 운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즉 첫소리와 가운데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를 보여주고 있고, 첫소리와 가운데소리와 끝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각, 간, 갠, 갈, 감, 갱, 갇, 갓, 갡)를 보여준다.

『훈몽자회』에서는 자음의 이름을 ‘ㄱ : 其役(기역), ㄴ : 尼隱(니은), ㄷ : 池末(디근), ㄹ : 梨(리을) … ㅋ : 箕(키) … ㆁ : 治(치)’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글자인 ‘其(기), 尼(니), 池(지→디), 梨(리)’는 첫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고, 둘째 글자인 ‘役(역), 隱(은), 末(근), 乙(을)’은 끝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자음의 이름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면 두 글자로 하고, 첫소리에만 쓰이면 ‘箕(키), 治(치)’와 같이 한 글자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소리에는 사용되지만 끝소리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한글 자음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근.’으로 부르는 것은 『훈몽자회』에 나타난 자음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것이다. ㉠ 『훈몽자회』가 현대의 자음 명칭과 다른 것이 있다면 ‘키, 티, 피, 지…’ 등이 ‘키을, 티을, 피을, 지을…’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면 자음은 어떤 원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졌을까? 『훈몽자회』에는 특별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훈민정음에서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에 가획된 것을 해당 기본자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자의 가획 순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른 배열순서와 일치한다. 즉 ‘어금닛소리(ㄱ), 혀소리(ㄴ), 입술소리(ㄷ), 잇소리(ㅅ), 목구멍소리(ㅇ)’의 순서로 배열된다. 이 중 ‘ㅇ’은 첫소리에만 사용되므로 가획자인 ‘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ㄴ→ㄷ→ㄹ(가획과 이체)’, ‘ㄷ→ㅂ(가획)’ 등과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첫소리에만 쓰이는 여덟 글자의 순서 역시 같은 원리로 정해졌다. ‘(ㄱ)→ㅋ’, ‘(ㄴ→ㄷ)→ㆁ’, ‘(ㄷ)→㆏’, ‘(ㅅ)→ㅆ→ㅊ→ㅌ(가획과 이체)’, ‘(ㅇ)→㆙(가획)’ 등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2007 10월 고3전국연합] [45~47] [언어] 박영준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箕, 末은 한자의 뜻을 빌려 이름을 삼았다고 추정한다.<sup>121)</sup>

1. 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의 자음과 16세기의 자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 ② 현대로 오면서 새로운 자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③ 16세기의 자음 중, 현대로 오면서 사라진 자음이 있기 때문이다.
- ④ 현대의 표기법에서는 해당 자음이 받침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16세기의 받침 표기 방식과 현대의 받침 표기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고3전국연합] 4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sup>122)</sup> ㉠ 자음의 명칭을,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는 것은 두 글자, 첫소리에만 쓰이면 한 글자로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현대 자음의 명칭이 모두 두 글자로 쓰인 것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일부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기 ]

ㄴ 어금닛소리니 'ㄱ(군)'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ㅋ는 어금닛소리니 'ㄱ(쾌)'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ㅇ는 어금닛소리니 'ㄱ(업)'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ㄷ는 헛소리니 'ㅌ(뒤)'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ㅌ는 헛소리니 'ㅌ(탄)'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ㄴ는 헛소리니 'ㄴ(나)'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 ① 훈몽자회』도 [보기]처럼 한자(漢字)를 이용하여 한글의 자음을 설명하고 있군.
- ② 『훈몽자회』와 [보기]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보기]는 한글 자음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지만, 『훈몽자회』는 자음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군.
- ④ [보기]보다 훈몽자회』의 자음 배열순서가 오늘날의 자음 배열순서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보기]와 달리 『훈몽자회』는 첫소리에서만 사용되는 자음과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사용되는 자음을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2007 10월 고3전국연합] 46.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답] ③

<훈몽자회>는 한글 자모의 명칭을 밝히고 있으며, <보기>는 한글 자음의 음가를 설명하고 있다.

## 3. 글과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 보 기 ]

최근 중국에 있는 교포가 중국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자(漢字)는 컴퓨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자입니다. 수만 자가 넘는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다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글자를 한글처럼 분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글로 중국어 발음만 입력하면 한자로 변환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예로 등소평의 중국 발음인 ‘덩샤오핑’을 한글 자판으로 입력하면 화면에 ‘등소평(鄧小平)’이라는 한자가 나타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한글 입력 방식은 세벌식이다. 자판 배열이 첫소리는 왼쪽에, 모음은 오른쪽에, 받침은 아래쪽에 했다. ‘박’이라고 하면 ‘ㅍ ㅏ ㄱ’ 등 세 자판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다. 피아노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 단둥시(市)에서는 직업학교에서 그의 입력 방식을 쓰겠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의 한 업체는 저작권을 팔라는 제안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 ① 적은 수의 문자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효율성을 알려주는 사례로군.
- ②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도 한글을 이용할 수 있겠어.
- ③ 소리를 첫소리와 가운뎃소리, 끝소리로 분석하여 만든 한글의 과학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로군.
- ④ 이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漢字)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처럼 분해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되었군.
- ⑤ 현대 국어에서는 끝소리가 첫소리로도 쓰일 수 있으니 자판을 두 가지로 배열한 두벌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어.

[2007년 10월 고3전국연합] 47.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답] ④

<보기>에서 ‘한자는 해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허파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A]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셴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ㅣ’가 발음되고, 혀를 바깥 쪽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ㅏ’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ㅜ’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펴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으로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 - 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 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2007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7-19] 언어, ‘발음기관의 구조와 작동 원리’<sup>125)</sup>

: 이 글은 인간 발음 기관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른 모음과 자음의 발음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소리는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는데,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과 그 작동 원리는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음의 경우에는 후두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자음의 경우에는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소리가 분화된다.

[주제] 발음기관의 작용에 따른 자음과 모음의 발음 원리

1.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③ 언어마다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은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 ④ ‘마찰음’이나 ‘유음’은 조음 방법상의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ㄴ, ㄹ, ㅇ’과 같은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2007년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7.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 파악) ㉠<sup>126)</sup> ㉢

정답해설 :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 작동 원리는 같고 첫 번째 형식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이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란 언급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3단락을 보면, 후두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모음의 분화에 관계를 한다고 나와있다. ㉡ 4단락에 발음에 관계되는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소릿값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였다. ㉣ ‘마찰음’은 공기를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 ㉤ ‘비음’은 코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코가 막히면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2. [ A ] [보기]의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 ]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서는 다양한 모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팬지는 기본 모음인 [i], [a], [u]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다.
-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하여 실험한 결과, 불과 몇 개의 모음만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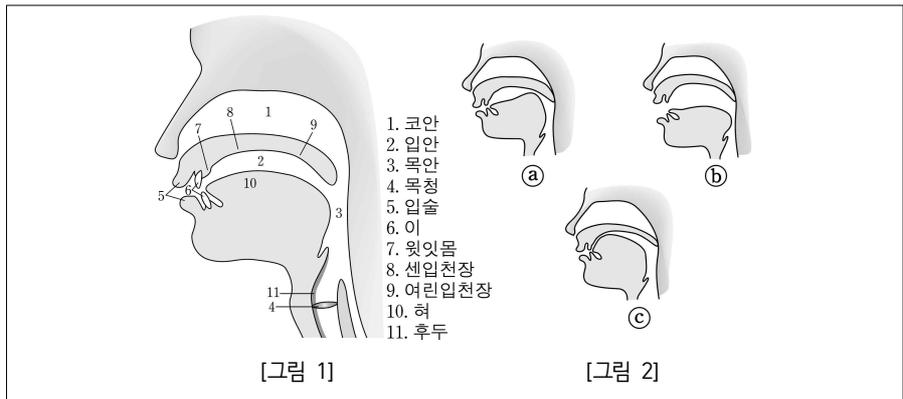
- ① 목구멍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음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② 갓난아이와 침팬지가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 ③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 ④ 화석 인류의 후두는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 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07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8.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답]27) ③

정답해설 : 인간이나, 침팬지, 오랑우탄은 이 후두의 위치가 모두 목구멍 정도의 높이로 태어난다. 모음은 이 후두의 위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모음은 후두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후두가 목구멍 아래쪽에 자리 잡게 되면서 모음이 분화할 수 있는데 비해, 유인원들은 그 위치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선천적으로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후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므로 후두가 목구멍 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음 분화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경우에도 갓난아이일 때는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후두의 위치가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 ④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해 보았을 때 몇 개의 모음만 발생되었다는 것은 현대인에 비해 완전히 모음이 분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므로, 후두의 위치가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제시된 화석 인류의 증거를 통해 볼 때, 인간이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

3. 위 글을 읽고 '구비'라는 단어를 'ㄱ-ㅍ-ㅂ-ㅅ-ㅣ'로 나누어 발음한다고 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 1>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그림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7 - ㉠ - 5 - ㉡
- ② 8 - ㉠ - 7 - ㉡
- ③ 8 - ㉠ - 7 - ㉢
- ④ 9 - ㉠ - 5 - ㉢
- ⑤ 9 - ㉢ - 5 - ㉡

[2007년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9.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답]28) ④

정답해설 :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ㅍ'은 두 입술을 닫는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자음의 조음 위치는 각각 '9'와 '5'에 해당한다. 모음 'ㅜ'는 입과 목 안의 공간 크기가 비슷한 상태에서 발음하고, 'ㅣ'는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 안을 최대화하여 발음 한다고 했으므로 각각 '㉠', '㉢'에 해당한다.

**언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든가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하나의 상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한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A 시대, B 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A 시대 → B 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 소쉬르의 개념과 방법론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쉬르가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야콥슨은 음운 변이는 변하지 않는 언어 요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태와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마르티네도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쉬르가 말한 공시태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다.

[2007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0-42] 언어, '소쉬르의 공시태 개념'<sup>129)</sup>

: 이 글은 공시태를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로 본 소쉬르의 언어학적 견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태와 공시태를 동의어로 본 소쉬르의 견해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기술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주제] 소쉬르의 공시태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

1. ㉢ 소쉬르의 관점에서 ㉠의 파울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는 역사의 유물과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어학은 과거의 언어와 관련된 사실을 밝힐 수 없다.
- ② 화자의 말은 발화 당시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므로 언어 연구는 그 당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의 내용보다는 변화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④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각각 정적인 상태이지만 전자는 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자연 현상과는 달리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는 인과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2007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0.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 ㉡

정답해설 : 파울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 연구에는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소쉬르는 화자가 발화한 당시의 언어 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 [보기] 같이 ‘좁쌀’이란 단어에 대해 정리한 후, [답]에 쓰인 용어들을 적용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 ‘ ’의 중세 국어 어형은 ‘조뵤’인데, 이는 ‘조ㅎ’과 ‘뵤’이 결합한 것이다.
- ‘조뵤’은 ‘뵤’이 ‘ㅍ’으로, ‘ ’가 ‘ㅍ’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좁쌀’이 되었다.
- ‘좁쌀’의 ‘ㅍ’은 ‘뵤’의 흔적이다.

- 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은 현대 국어에서 공시태이겠네.
- ② 현대 국어를 공시적으로 연구할 때는 ‘좁쌀’의 ‘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네.
- ③ ‘뵤’이 어떻게 ‘ㅍ’이 되었는지를 고찰하면 그것은 통시적 연구이겠네.
- ④ ‘ㅍ’로 변하기 이전의 ‘뵤’은 중세 국어에서 통시태이겠네.
- ⑤ 중세 국어에서 ‘조뵤’을 ‘조ㅎ+뵤’로 분석하면 그것은 공시적 연구이겠네.

[2007년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정답해설 : 본문에 제시된 공시태와 통시태의 개념을 ‘좁쌀’이라는 단어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공시태는 동시성의 축을 말하고,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말한다. 따라서 ‘조뵤’이 음운 변화를 거쳐 ‘좁쌀’이 된 것은 통시적 연구(㉠)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과 중세 때 사용한 ‘조뵤’은 각각 그 당시의 언어 현상에서 바라보는 공시적 연구(㉡, ㉢)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뵤’은 중세 국어에서의 공시태이고, ‘ㅍ’은 현대 국어에서의 공시태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좁쌀’은 현대 국어의 공시태이므로, ‘좁쌀’에서의 ‘ㅍ’이 ‘뵤’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3. [답]를 바탕으로 ㉠과 ㉡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아가는 화살이 한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도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②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이 멈추는데, 이때 성장하는 과정이 ㉠이고 성장이 멈춘 상태가 ㉡이다.
- ③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퍼즐판의 상태는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④ 음표는 악보에서는 기호이지만 연주될 때는 소리인데, 악보의 음표가 ㉠이고 연주된 소리가 ㉡이다.
- ⑤ 정지했을 때 보는 산과 이동 중일 때 보는 산의 모습이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2007년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2. 추론적 사고(중심 개념의 비유적 표현) ㉠ ㉡

정답해설 :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소쉬르는 ‘공시태(㉠)’를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정태(㉡)’로 보았다. 언어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느 한 순간만을 보면 정지되어 있는 ‘정태’로 보이지만,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공시태’로서의 개념을 소쉬르는 간과했던 것이다.

[오답피하기] ㉡ (라)에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므로,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되어 버리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 악보에 있는 ‘음표’라는 기호를 실현한 것이 ‘소리’이다. ㉡ ‘산’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대상을 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인 조사가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기능이나 용법을 규명하는 일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가) 영수가 삼국지를 읽었다.
- (나)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다.
- (다) 염소와 말이 풀을 먹었다.

(가)의 ‘삼국지’에는 ‘를’이 붙어 있는데, ‘를’은 ‘삼국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지만 (나)의 ‘삼국지’ 뒤에 붙은 ‘는’은 ‘삼국지’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기능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나)는 ‘영수가 삼국지가 아닌 다른 책은 읽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를 격조사라 하고 후자를 보조조사라 한다.

(다)에서 ‘와’는 ‘염소’와 ‘말’을 병렬적으로 이어주는데, 이처럼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를 접속조사라 한다. ‘와’와 같은 조사를 격조사가 아닌 접속조사로 따르는 것은 그 기능이 격조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가 붙은 체언은 문장의 한 성분이 되지만 접속조사가 붙은 체언은 접속조사에 의해 이어진 모든 체언이 한 덩어리로 문장 성분이 된다.

(다)와 (가)를 비교해 보면, 주어 자리의 조사가 ‘가’에서 ‘이’로, 목적어 자리의 조사가 ‘를’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것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은 같으면서도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바뀐 쌍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립형식 뒤에 붙는 문법적 요소이다. 자립형식이란 더 이상의 문법적 요소가 붙지 않고도 단독으로 문장 속의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은 어미가 붙는 말들과 견주어 보면 뚜렷해진다. (가)에서 ‘-었-’이 붙은 ‘읽-’이나 ‘-다’가 붙은 ‘읽었-’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다. 국어 문법에서 ‘가, 를’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고, ‘-었-, -다’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이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앞에서 조사를 설명할 때 무엇에 붙어 쓰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조어나 어미처럼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말들을 접사라 한다. 접사 가운데는 조사나 어미가 아닌 것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에서 ‘-들이’ 그것인데 이것을 파생접사라 한다. 흔히 좁은 의미로 접사라고 할 때는 이러한 파생접사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들’은 자립형식인 체언에 붙는 것이어서 조사와 혼동하기가 쉽다. 이 ‘-들’을 조사가 아닌 파생접사라고 하는 까닭은, 조사는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어휘 범주가 주어지면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에 다 붙을 수 있지만 ‘-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6 10월 고3전국연합] [33~3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7.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1 점]**

- ① 조사의 문법적 기능은 무엇인가?
- ②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생략되는가?
- ③ 조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조사의 형태 바뀔의 조건은 무엇인가?
- ⑤ 조사는 파생접사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2006 10월 고3전국연합]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 ㉡

조사가 어떤 경우에 생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㉔와 같은 의미는 이 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8. 글로 수업을 한 후 선생님이 [보기]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보조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① 붙은 말의 자립성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말에 붙어 쓸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③ 동일 어휘 범주에서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④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가, 뜻만을 더해 주는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⑤ 그것이 붙은 체언이 단독으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4.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답] ④  
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며, 보조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구실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지는 가을, 낙엽을 태우는 냄새같이 좋은 향기가 있을까?

- ① ‘낙엽, 향기’에 붙은 ‘이’와 ‘가’는 서로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② ‘좋은’의 ‘은’은 자립형식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문법 요소이다.
- ③ ‘냄새같이’에서 ‘같이’는 국어 문법에서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 ④ ‘낙엽이’에서 ‘낙엽’은 ‘이’가 붙지 않아도 문장에 단독으로 쓰인다.
- ⑤ ‘하늘’에 붙은 ‘은’과 ‘낙엽’에 붙은 ‘이’는 문법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5.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답] ②  
조사가 붙은 말은 자립형식이지만 어미가 붙는 말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미는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㉑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루하고 먹하고 가져 오너라.
- ② 술에 밥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
- ③ 머루랑 다래랑 먹고 즐겁게 놀았다.
- ④ 옷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 ⑤ 집집마다 마을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의 제시 [답] ⑤  
‘하고, 예,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반면에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                    ’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그런데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열린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연상 실험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자극어를 준 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 보게 하거나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극어로 ‘바늘’을 제시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어는 ‘실, 핀, 날카롭다, 꿰매다’ 등이다. 이는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어가 머릿속에서 자극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한다. 우리는 ‘하늘’이라든가 ‘공부’와 같이 ‘바늘’과 상관이 없는 반응어를 기대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위적 연결은 ‘나비 - 나방’처럼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과 ‘왼쪽 - 오른쪽’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배열적 연결은 ‘소금 - 물’처럼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을, 상위적 연결은 ‘나비 - 곤충’처럼 하위어와 상위어의 연결을, 동의적 연결은 ‘배고프다 - 굶주리다’처럼 뜻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것들의 연결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덧붙여 실어증 환자들에 관한 실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부엌 용구의 이름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모두 잊어버렸고, 어떤 환자는 의복 이름은 덜 수 있었지만 옷감의 종류는 말하지 못했다. 이는 ‘부엌 용구, 과일 이름, 의복 이름, 옷감 이름’ 등이 모두 독립된 장(場)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위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머릿속 사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단어들 사이의 연결 정도는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각 장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장이 다른 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2006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3-46] 언어, 머릿속 사전의 조직에 나타난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머릿속의 사전에 낱말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연상 실험과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실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사전에서의 낱말 조직과 비교를 하고, 구체적 사례 제시와 체계적인 정리로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머릿속 사전의 조직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점]

- ①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 ② 연상 실험으로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자극어와 반응어는 머릿속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④ 실어증 환자들의 사례는 단어들이 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반응어는 깊은 사고를 통해 나오므로 머릿속 사전의 연결 방식을 잘 반영한다.

[2006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sup>137</sup> ㉡<sup>5</sup>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인 단어 연상 실험에서 자극어에 대한 반응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하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첫째 항목에서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② 단어 연상 실험에서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③ 5문단의 둘째 항목에서 정리하였듯이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④ 4문단의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있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 [ A ]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 ①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 ② “그는 상당한 언어 곤경, 아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 ③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라) “곰사합니다.”
- ④ 갑: (하늘의 별을 보려고) “거기 현미경 좀 가져와 봐.”  
 을: “망원경 말하는 거야?”
- ⑤ 갑: “그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날 듯한데. 장어, 쟁어, 정어, 정우 그게 뭐더라.”  
 을: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2006년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4.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sup>138</sup> ㉡<sup>5</sup>  
 정답해설 : A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 사전의 조직 방식은 사전과는 달리 한글 자모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4 문단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 했으므로 사전에서처럼 한글의 자모 순서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에서 ‘장어, 쟁어, 정어, 정우’는 모음의 근접성이 있는 단어들끼리 모아 놓은 것이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문’과 ‘바람’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② ‘곤경’과 ‘장애’는 의미가 유사하기에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③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동시에 떠올라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는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④ ‘현미경’과 ‘망원경’은 서로 수준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보기]의 예들을 ㉠의 구분에 따라 알맞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고무 - 줄	㉡. 잠자리 - 채	㉢. 두껍다 - 얇다
㉣. 남자 - 사람	㉤. 북쪽 - 남쪽	

	등위적 연결	배열적 연결	상위적 연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006년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sup>139</sup> ㉡<sup>2</sup>  
 정답해설 : ㉠의 ‘고무’와 ‘줄’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의 ‘잠자리’와 ‘채’ 역시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의 ‘두껍다’와 ‘얇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남자’와 ‘사람’은 하위어와 상위어의 관계이기에 상위적 연결 관계의 단어이다. ㉤의 ‘북쪽’과 ‘남쪽’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4.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국어사전을 머릿속 사전의 조직 원리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 기 ]

○ 고적]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있는 다섯 능묘. 사적 제172호.  
 ○ [동물]오릿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청렴하지 못한 벼슬아치.  
 ○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 여러 가닥의 오리나 갈래로 갈라지거나 찢긴 모양. ㉞ 가리가리.

- ① ‘     ’, ‘오리’, ‘오리가리’처럼 한글 자모 순서로 배열하지 말고, 의미 및 주제를 고려해서 재배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 ② ‘오리1’은 ‘오리2’와 분리해서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묶어 제시하면 좋겠어.
- ③ ‘오리1’은 ‘오리발’, ‘오리걸음’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는데, 이 단어들의 관련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 ④ ‘오리가리’도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어. 이 단어도 ‘오리3’과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 ⑤ ‘가리가리’처럼 보통 사전에는 ‘유의어’가 제시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그대로 따라도 좋을 것 같아. 필요하다면 반의어도 제시하면 좋겠어.

[2006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6.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への 적용) ㉞<sup>140</sup> ㉞  
 정답해설 : ‘오리가리’는 의미상 ‘오리3’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머릿속 사전의 방식대로 정리한다면 두 낱말은 가까운 곳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머릿속 사전은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에 ‘오리가리’가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오답피하기] ① 머릿속 사전은 사전에서처럼 한글 자모 순서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나 주제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다. ② 두 단어는 비록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기에 ‘오리1’은 ‘동물’의 단어들과 같이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머릿속 사전은 일정한 주제나 의미상 연관이 있는 단어들끼리 묶이기 때문이다. ③ ‘오리발’, ‘오리걸음’의 ‘오리’는 ‘오리1’에서 나온 것이므로 머릿속 사전에는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묶여야 자연스럽다. ⑤ 머릿속 사전에는 유사한 단어들끼리 묶인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나,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끼리 묶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단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나 형태는 그 수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 그 수가 무한정이어서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의 형태나 의미가 서로 같고 다른 것을 구분하여, 비슷한 것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단어나 문법을 모형으로 하여 단어를 만들거나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언어학에서는 ‘유추(類推)’라고 하는데, 이를 논리학에서는 어떤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특수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형은,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추는 그 과정이 다양한 언어 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추는 언어 변화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음운 변화가 일정한 형태 안에서 음절 구조의 변동에 한정된다면, 유추는 음절 구조의 제약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고쳐진 형태로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형태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음운 변화는 자음과 모음, 모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지만, 유추는 아예 음절을 달리하여 음운을 덧붙이거나 완전히 이동시켜 버리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의 변화는 미시적(微視的)인 언어 변화를, 유추는 보다 거시적(巨視的)인 언어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의 본질은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A] ‘처엄>처음, 일흠>이름, 소곰>소금’과 같이 ‘-음’꼴로 만들어 가거나, ‘호랑>호랑이, 배암>배암이, 낱>나비’와 같이 동물의 이름을 ‘-이’꼴로 만들어 가는 예는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처음’, ‘이름’, ‘소금’은 ‘처엄’, ‘일흠’, ‘소곰’에서 각각 끝음절이 ‘-음’으로 바뀌는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름씨(명사)’라는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기억하기 편하게 ‘-음’으로 통일하려는 유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위에 든 동물 이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유추 모형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는 크게 통합 관계에 따른 모형과 계열 관계에 따른 모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암+이>배암이’와 같은 형태는 통합 관계에 따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배암’ 자리에 ‘호랑’, ‘낱’과 같은 다른 단어가 올 때 이들 단어 사이에는 계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로 보면, 기본 문형은 일종의 글의 모형으로 여기에 알맞은 어휘만 넣으면 얼마든지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계열 관계는 통합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특히,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과 같이 단일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려는 경향이 짙은 언어나, 음소 문자를 쓰는 언어의 유형은 이러한 유추에 따른 언어 창조가 가장 알맞다.

아무리 일상적인 형태에서 유추된 모형을 따르는 어휘나 문법형태소일지라도 말을 직접 사용하는 언중(言衆)이 쓰지 않으면 사어(死語)가 되고 만다. 반대로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작가의 말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사어가 되어 버렸던 ㉠ ‘아스라이’가 어느 서정 시인의 시에서 쓰인 뒤로 보편적인 말이 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2006 4월 고3전국연합] - 언어 - [57-60] 출전 : 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

**1.**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유추의 모형은 절대적이며 엄격한 원리로 작용한다.
- ② 형태 변화 측면에서 보면 유추는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다.
- ③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를 유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일상적인 형태에서 유추된 어휘나 문법 형태소는 사어가 되지 않는다.
- ⑤ 단일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려는 경향이 강한 언어는 유추와 관련성이 적다.

[2006 4월 고3전국연합] 57.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④ ③



[2006 4월 고3전국연합] 60. [출제 의도] 어휘 구조 파악하기 ㉠<sup>144)</sup> ㉡

[해설] <보기>는 '아스라이'가 '하다'가 붙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로 파생된 단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곳이' 역시, '하다'가 붙은 형용사 '다소곳하다'의 어근 '다소곳'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 '다소곳이'로 파생된 단어이다. '다름없이'와 '감쪽같이', '너그러이'는 형용사의 어근이기는 하지만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의 어근으로 '아스라이'와 차이가 있다. '가을걷이'는 명사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다. 여기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개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따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고 할 때의 ‘의미’에는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법적 의미 까지도 포함된다.

형태소에는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있는 반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단어가 되는 의존 형태소도 있다. 즉, ‘흙’, ‘나무’ 등은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이지만, ‘읽어라’의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 단어 행세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

그래서 단어는 대체로 자립 형식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자립 형식이란 다른 요소와의 결합 없이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단어는 자립 형태소와 비슷하지만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립 형식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흔히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조건만으로 단어를 다 규정짓기는 어렵다. 어떤 언어 형식이 단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절을 단어로 보기도 하며 더 분석된 단위를 단어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시경 등의 초기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를 ‘철수, 가, 책, 을, 읽, 었다’의 여섯 개의 단어로 쪼개진 것으로 보았지만, 최현배 등 한글 맞춤법 제정에 [ ] 참여하였던 학자들은 ‘철수, 가, 책, 을, 읽었다’의 다섯으로 보았다. ‘-었-’과 같은 의존 형태소가 ‘읽-’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을 때에는 단어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송녕 등의 역사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의 셋으로 나누었다.

역사 문법가들은 의존 형태소인 ‘가, 를’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시경이나 최현배 등의 학자들은 단어로 인정한 것이다. ‘가, 를’이 ‘읽었다’에서의 ‘-었다’처럼 실질 형태소에 붙는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단어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으나 결합 대상인 실질 형태소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단어로 처리한 것이다. 곧 ‘가, 를’이 붙는 말은 자립 형태소인데 반하여 ‘-었다’가 붙는 말은 의존 형태소이다. ‘읽-’은 ‘-었다’와 결합하여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철수, 책’은 그 자체로도 자립성이 있다. 따라서 ‘가, 를’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성은 ‘가, 를’ 앞에 다른 단어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철수가 책만을 읽었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책’과 ‘을’ 사이에 다른 단어인 ‘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책’과 ‘을’은 분리성을 가진다. 하지만 ‘책상’과 같은 경우는 ‘책’과 ‘상’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단어는 그 내부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리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어는 그 내부에서는 분리성이 없지만 다른 단어와의 경계에서는 분리성이 있는 언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5 10월 고3전국연합] [47~50] 이익섭, 『국어학개설』

1.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 점]

- ①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성을 지닌다.
- ② 단어는 그 자체 내에서는 분리성이 없다.
- ③ 자립 형태소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다.
- ④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 ⑤ 자립 형식은 문장에 독립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2005 10월 고3전국연합] 47.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sup>45)</sup> ① 지문에서 ‘읽었다’에서 ‘-었다’는 실질 형태소에 붙는 의존 형태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읽-’은 실질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이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2.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 ① 예를 들어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설명하는 용어의 개념을 밝히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갖추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설명 대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 ⑤  
 형태소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단어의 판별 기준이 자립성과 분리성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글은 분리성이 단어의 판별 기준임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한 것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3. [보기]는 (가)를 읽고 나서 보인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람은?

[ 가 ]

“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라는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민주 : 주시경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에서 ‘노래하면서’의 ‘면서’는 단어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군.  
 주현 : 최현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볼 거야. ‘노래하면서’는 그냥 한 단어로 간주할 거야.  
 현진 : 이승녕 선생님은 명사 ‘사람’과 조사 ‘이’가 결합된 ‘사람이’를 한 단어로 보았겠군.  
 진수 : 하지만 최현배 선생님의 단어관에 따르면 ‘사람’과 ‘이’는 각각 단어로 보아야겠지.  
 수정 : 주시경 선생님은 이 문장을 모두 여섯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을 거야.

- ① 민주                      ② 주현                      ③ 현진
- ④ 진수                      ⑤ 수정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답] ⑤  
 주시경은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어미부 전체를 단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는 ‘한, 사람, 이, 노래하, 면서, 가, 오’의 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된다.

4.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려내는                      ② 뽑아내는                      ③ 골라내는
- ④ 끌어내는                      ⑤ 갈라내는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50. [출제의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대체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 ①  
 판별(判別)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한다는 뜻인데, 이 문맥 속에서는 여러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골라낸다는 뜻으로 쓰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A] 이른바 사은유(死隱喻)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     】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B]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하여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그 단위를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화자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데서나 끼어들지 않고,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났을 때를 기다려 자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문장 중간이 아닌 주어와 술어의 경계에서 휴지(休止)를 갖고, 단어의 중간이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어-, 어-”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2005 9월 실시 고3평가원] [40-43] 언어,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먼저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 구조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후, '사은유'를 예로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다음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 사이에 상응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단수 개념과 복수 개념을 예로 들어 밝히고 있다. 이어서 언어 표현은 인



심리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말의 '푸르다' 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밝히고 있다.

[주제] 인간의 심리와 언어 표현의 관계

### 1.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1 점]

- ①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가?
- ②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언어 표현이 사고력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④ 인간의 의식이 언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언어 구조가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2005 9월 실시 고3평가원] 40.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sup>149)</sup> ㉡

정답해설 : 첫째 문단의 처음 두 문장(인간의 심리 구조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 셋째 문단의 첫 문장(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넷째 문단의 첫 문장(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알 수 있다.

### 2. [ A ]의 논지로 볼 때,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점]

- ① 입방아를 찧다.
- ② 말허리를 자르다.
- ③ 상다리가 부러지다.
- ④ 병목 현상이 생기다.
- ⑤ 치마가 버선코를 가리다.

[2005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1. 추론적 사고(논지에 맞는 사례 찾기) ㉠<sup>150)</sup> ①

정답해설 : [A]는 대부분의 '사은유(死隱喩)'가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바늘귀'의 경우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인간의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사물을 표현한 예이다. 하지만 '입방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의미(입방아 : 남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방정맞게 입을 놀리는 일)를 표현하기 위해 '방아'라는 사물을 빌려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신체의 일부인 '허리'를 빌려서 '하고 있는 말의 중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③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빌려서 '상에 붙어서 그 상을 받치는 다리'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④ 신체의 일부인 '목'을 빌려서 '병의 아래쪽의 잘록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⑤ 신체의 일부인 '코'를 빌려서 '버선의 앞쪽 끝에 뾰족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부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3. [ B ]의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대명사 '너, 저'에 '-희'가 붙어 '너희, 저희'가 만들어진다.
- ② 양수사 '셋, 넷'에 '-째'가 붙어 서수사 '셋째, 넷째'가 만들어진다.
- ③ 예사말 '사장, 과장'에 '-님'이 붙어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진다.
- ④ 동사 어간 '오-, 가-'에 '-라, -자'가 붙어 활용형 '오라, 가자'가 만들어진다.
- ⑤ 능동사 '보다, 막다'에 '-이-, -히-'가 붙어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가 만들어진다.

[2005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sup>151)</sup> ④

정답해설 : [B]의 논지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은 표현도 단순하게 나타나고, 복잡한 개념은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을 표현하지만, 그 반대로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어떤 형태소를 붙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④번처럼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 경우는 개념이나 표현이 활용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B]의 논지를 보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단수 개념인 '너, 저'에 '-희'가 붙어 복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② 양수사 '셋, 넷'은 개념이나 표현이 단순한 데 비해, 서수사인 '셋째, 넷째'는 개념이나 표현이 모두 복잡하다. ③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사말 '사장, 과장'에 비해 개념이나 표현이 더 복잡하다. ⑤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는 능동사 '보다, 막다'에 비해 개념이나 표현이 더 복잡하다.

### 4.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 ②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③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며,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④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서로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 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5 9월 실시 고3평가원] 43. 논리적 사고(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파악) ㉠<sup>152</sup> ㉡

정답해설 : ㉠은 앞문장이 주장(결론)에 해당하고 뒷문장이 근거(전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뒷문장에 나타난 근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 경험적 사례이고, 앞문장에 제시된 주장은 그 사례로부터 잠정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므로 ㉠은 귀납적 추론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뒤의 사례에 의해 앞의 잠정적 주장이 뒷받침된다. ㉡번도 뒷문장에 나타난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진술이 경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경험적 사례에 해당하고, 그 사례가 앞문장에 제시된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잠정적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귀납적 추론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뒷문장에 나타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미 증명된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며, 앞문장에 있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뒷문장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연역해낸 확정적 진술이다. ㉢ 뒷문장에 나타난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대전제)'와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소전제)'는 명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고, 앞문장에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결론)'는 명제는 뒷문장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연역해낸 확정적 진술이다. ㉣ 뒷문장에 있는 '우리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명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고, 앞문장에 있는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뒤에 있는 일반적 진리로부터 이끌어낸 확정적 주장이다. ㉤ 뒷문장에 있는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지만 비유만으로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근거로 하여, 앞문장에 제시된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는 확정적 주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듣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소통 과정에서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소리의 연쇄’이다. ‘소리의 연쇄’란 곧 기호의 연쇄인데, 그것을 해독하여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독된 의미 속에 화자의 의도가 모두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 내일 올게.”라는 문장에서 기호의 해독만 가지고는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내일’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요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 기호 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의사 소통에서는 추론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가령 ‘철수’가 ‘영수’네 집에 놀러 왔을 경우, “영수야, 전화 왔어. / 응, 철수야, 나 화장실에 있어.”라는 대화는 언뜻 들으면 동문서답과 같지만, 이것은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철수는 이 대화에서 영수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추론 과정을 통하여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다. 영수가 “내가 화장실에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받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철수의 추론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의 바탕에는 철수와 영수가 공유하는 ㉣ 어떤 특정한 인지 환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대화는 (                    ㉤                    )는 환경 내용을 철수와 영수가 모두 알고 있을 때만 성립한다.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지 환경은 더욱 확대되어 나간다.

㉥ 인간은 의사 소통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정보가 ㉦ 어떤 환경 속에서 최대의 증식 효과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것을 적합하다고 말한다. 어떤 환경 속에 정보가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해석한다. 특히 그러한 적합성은 어떤 신정보와 구정보가 연결되고 그것이 추론의 전제로서 사용될 때 극대화된다.

한 소녀가 외국 여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소녀가 산책하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갔는데,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 의도된 행위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소녀도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소녀는 하늘에서 구름 몇 점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은 아주 상식적이며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일 것이다. 소녀는 그 노인이 자신의 주의를 구름 쪽으로 끌어서 앞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추론에서 소녀는 적합성의 가정 하에 그 노인의 행동에서 어떤 정보를 창출해 낸 것이다.

대부분의 ㉨ 발화 행위에서 사람들은 적합성을 추구하며, 하나의 메시지에서부터 최다의, 최적의 정보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의사 소통 행위의 본질이다.

[2005 5월 고3전국연합] [43-46] 언어<sup>153)</sup>

1.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화자들은 하나의 메시지에서부터 하나의 정보를 얻으려 한다.
- ② 화자의 발화 의도는 발화의 기호 외적인 정보와는 무관하다.
- ③ 의사 소통의 적합성은 신·구정보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극대화될 수 있다.
- ④ 발화의 맥락과 관계없이 연쇄된 기호 체계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⑤ 화자는 일반적으로 의사 소통 행위에서 최소의 발화로 최대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3. 내용의 사실적 이해 [출제의도] 본문에 나타난 전체 정보 파악하기 ㉠<sup>154)</sup> ㉡ [해설] ①은 (나)의 마지막 문단의 “사람들은 하나의 메시지에서부터 최다의 정보를 찾아내려 한다.”에서, ②는 (가)의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맥락 즉, 기호 외적 정보가 필요하다.”에서 ③은 (나)의 첫 문단 “특히 그러한 적합

어떤 신정보와 구정보가 연결되고 그것이 추론의 전제로 사용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에서, ㉔는 (가)의 1, 2문단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쇄된 기호 체계가 발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에서 그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㉕는 (나)의 첫 문단과 끝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의사소통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의사 소통 행위의 본질이라 했다.

2. 흐름상 ㉑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영수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다.
- ② 철수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는 전화기가 없다.
- ③ 영수는 화장실에 있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
- ④ 철수와 영수가 만날 때면 자주 전화가 걸려온다.
- ⑤ 철수는 영수의 말을 매우 잘 들어주는 착한 친구다.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4. 내용의 추리.상상적 이해 [출제의도] 생략된 세부 정보 추리하기 ㉑<sup>155</sup> ㉓  
 [해설] 철수와 영수의 대화에서 생략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대화의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인지 환경’은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는 환경 내용이 있어야만이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철수와 영수의 대화에서, ‘영수는 화장실에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환경) 내용을 서로 인지하고 있을 때에 의사 소통이 이루어진다.

3. 다음을 ㉑의 관점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전과는 달리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건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입구에 “건강은 재산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 ① 직원 A : 체육관이라는 맥락과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적합성을 추구할 수 없으므로 다른 문구로 바꾸면 어떨까요?
- ② 사 장 : 표현이 너무 간단해서 정보의 증식 효과를 가져올 수 없겠지?
- ③ 직원 B : 그렇다면 만화를 삽입하여 기호 외적인 정보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④ 사 장 : 아니야, 만화 삽입보다는 ‘운동을 해서 재산을 늘립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어떨까?
- ⑤ 직원 C : 아닙니다. 인간은 생략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대로 “건강은 재산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5. 내용의 추리.상상적 이해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㉑<sup>156</sup> ㉕  
 [해설] ㉑에서 발화행위의 적합성은 최소의 메시지로부터 최다의, 최적의 정보를 찾아내야 한다고 했으므로 체육관 문에 붙일 광고문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4. ㉑~㉕에서 의미하는 내용이 다른 하나는? [1 점]

- ① ㉑                      ② ㉒                      ③ ㉓
- ④ ㉔                      ⑤ ㉕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6. 문맥에서의 어휘 의미 이해 [출제의도] 문맥에서의 어휘 의미 파악하기 ㉑<sup>157</sup> ㉕  
 [해설] 의사 소통의 과정에서 주어진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㉑, ㉒, ㉓, ㉔ 모두는 ‘발화 맥락’을 의미하지만 ㉕ ‘한 노인의 의도된 행위’는 주어진 화자의 의도에 해당한다.



**구독**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3 완성 .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오늘날의 정서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정신은 세 항의 총론 중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는 제1항에 집약되어 있다. 이 조항은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어떤 한 방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표준말을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둘째 그 표준말을 되도록 발음에 충실하도록 적는다는 것, 셋째 발음에 충실한 표기가 동시에 어법에도 맞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비록 발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어법에 맞도록 적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 맞춤법이 표준말을 그 규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춤법이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쓰일 표기 체계가 필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말로 하는 표준 국어’인 표준말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다음,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보다 역사주의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현재’의 말의 발음을 충실히 표기하면 자연히 예부터 쓰여 오던 관습적인 표기법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음 문자를 쓰는 나라에서 정서법을 개정할 때 그때까지의 정서법의 전통을 살려야 되느냐 마느냐는 항상 논란이 되는데, 그 전통이 그리 길지 않았고 또 따를 만한 통일된 정서법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종래의 관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법에 맞도록’이란 조건은 좀 더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어떤 형태소의 표기를 그 기본형으로 고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형태소는 그것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음으로 실현되는 일이 많다. 가령 ‘없다’의 어간 ‘없-’은 ‘-으니, -어서’와 같은 어미 앞에서는 ‘없-’으로 실현되지만, ‘-다, -지’ 앞에서는 ‘업-’, ‘-네, -는’ 앞에서는 ‘엄-’으로 실현되는 것이 그 일례다. ‘어법에 맞도록’ 적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위 환경에 의한 소리의 변이를 맞춤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만큼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비중도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원칙은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와 용언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있이, 있도, 있만’은 전자의 예이고, ‘뉘더라, 뉘는다, 읽더라, 읽는다’ 등은 후자의 예이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소리대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일 ‘짓었다, 덥으니, 들으면’ 등으로 적으면 규칙 활용의 ‘벗었다, 입으니, 믿으면’과 관련되어 잘못 읽힐 위험이 있어 취해진 방편적 조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어법에 맞도록’ 적겠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고정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 눈에 빨리 들어오고 그만큼 의미를 빨리  **파악**  **시키**는 것이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이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소리대로’의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2005 3월 고3전국연합] [40~44] 이익섭, <한글 맞춤법의 원리>

**1.** 글로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일된 맞춤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
- ②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을 통해 언어는 문법적 규칙성을 지니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어.
- ③ 불규칙 활용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한 언어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④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서법을 개정하는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

때문일 거야.

- ⑤ 통일된 맞춤법 이전에 다양한 표기법이 공존했다는 사실에서 문자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2005 3월 고3전국연합] 40. [출제의도]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리한다. [답] 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문자와 의미는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된 맞춤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다양한 표기법이 공존했다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여러 형태로 표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와 의미 사이의 필연성과는 거리가 멀다.

- 2. [보기] 입장에서 맞춤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기 ]

말소리에 비해 보수적이다. 말소리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문자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오랫동안 눈에 익숙해져 있던 표기법의 변화는, 의식되지 않게 진행되는 말소리의 변화에 비해 일종의 개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결국 애초에는 발음에 충실하던 표기법이 어느 사이에 그 발음과 괴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 만한 것이다.

- ① 말의 의미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표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 ② 맞춤법을 개정할 때는 발음과 문자 사이의 괴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 ③ 표기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우리말 체계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 ④ 원칙이 자주 바뀌면 혼란스러우므로 '소리대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 ⑤ 표기법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표기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1. [출제의도]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답] ②  
 문자와 말소리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문에 제시된 맞춤법 원리의 미비점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전에 정해진 맞춤법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소리대로'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렇게 정해진 표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와 괴리를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개정은 이러한 괴리를 반영해야 한다.

- 3. [보기]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한글은 근본적으로 표음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소리대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맞춤법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규정을 두어 현실의 소리에서 멀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 ① 단어의 의미는 문자의 형태보다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 ② '소리대로'에 충실한 표기가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보다 배우기에 쉽다.
- ③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한 컴퓨터에서는 '소리대로'에 충실한 표기가 더 효율적이다.
- ④ '소리대로'보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법이 시각적으로 뜻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
- 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는 '소리대로'에 충실한 표기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문자를 필요로 한다.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2. [출제의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답] ④  
 맞춤법의 원칙 중 '소리대로'의 원칙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쓸 때, 본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논거를 찾는 문제이다. <보기>의 주장은 맞춤법이 '소리대로'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대로'뿐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도 필요하다는 논거를 찾으면 된다. "'소리대로'보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법이 시각적으로 뜻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보기>를 반박하는 논거로 적절하다.

- 4. 다음은 1988년 개정되어 현재 쓰이고 있는 맞춤법의 개정 사례이다. 이 글에 비추어 ㉠~㉣에 적용된 원리를 바르게 묶은 것은? [1 점]



< 맞춤법 통일안 > (1933년 제정)		< 한글 맞춤법 > (1988년 제정)
먹읍니다	㉠	먹습니다
더우기	㉡	더욱이
아름다와	㉢	아름다워

- ㉠                      ㉡                      ㉢
- ①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소리대로’  
 ② ‘어법에 맞도록’            ‘소리대로’            ‘소리대로’  
 ③ ‘소리대로’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④ ‘어법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            ‘소리대로’  
 ⑤ ‘어법에 맞도록’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2005 3월 고3전국연합] 43. [출제의도] 사례 분석을 통해 원리를 추론한다. [답] ① ①  
 본문에 설명된 맞춤법의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소리대로’의 원리는 개정하는 과정에 ‘현재’의 말의 발음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는 의미에 따른 단어의 고정된 형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①과 ③은 ‘현재’의 발음을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②은 의미에 따른 단어의 고정된 형태를 밝히는 쪽으로 개정했다.

5. [보기] 참고할 때, [과약시키]는과 같이 ‘-시키다’를 붙인 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기 ]

‘-’는 서술성이 있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다. 요즘 뜻을 분명하게 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어의 본래 모습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① 사나운 개는 진정시키지 않으면 사람을 물 수도 있다.  
 ② 큰 회사일수록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많다.  
 ③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아내를 입원시키고 오는 길이야.  
 ④ 다투고 있는 저 두 사람을 화해시킬 묘안이 뭐 없을까?  
 ⑤ 그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4. [출제의도] 원리에 근거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답] ② ②  
 접미사 ‘-시키다’의 기능 및 활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시키다’는 남이 어떤 동작을 하게 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하다’를 써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시키다’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다’를 써도 자연스러운데, ‘-시키다’를 쓴 사례를 찾으면 된다. ②의 ‘금지시키는’은 ‘금지하는’으로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데, ‘-시키다’를 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의 시작을 장식하는 말로 사람들 사이의 교류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말은 특히 이러한 호칭어가 발달한 언어이다. 우리말의 다양한 호칭어는 웬만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특징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말의 호칭어는 친가, 외가, 처가, 시가, 친정 등의 계보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영어의 'uncle'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우리말에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당숙,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는 영어권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가 촌수와 혈연의 계보에 따라 다양한 친족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에 와서는 호칭어가 본래의 사용법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족 호칭어가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친족 관계를 초월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혈연 중심의 집성촌에서는 누구나 친족이 되는 까닭에 친족 호칭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이 거의 사라진 현재에도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 '아저씨, 할아버지, 아주머니'와 같은 친족 호칭어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가족 간에 사회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형제나 사촌끼리도 '김 사장, 김 교수' 식의 호칭어를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친족이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서열을 중시한 유교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호칭어를 쓸 때 실제 지위보다는 높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분을 모르는 경우에도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서비스 업계에서 대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 널리 일상어에도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유교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발달된 우리말의 호칭어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촌수와 혈연의 계보에 대한 의식이 약한 젊은 세대의 ㉠ 호칭어 오용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우 복잡하게 분화된 한국어의 호칭어는 잘만 사용하면 인간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며, 존경심을 표현하여 예의 바른 느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거리 두기와 배타성의 근원이 되고 거짓 존경심의 표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호칭어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경우에 맞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4 10월 고3전국연합] [57~60] 전해영,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점]

- ① 우리말의 호칭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다.
- ②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③ 호칭어는 대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 ④ 우리말의 호칭어는 혈연의 계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 ⑤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호칭어의 사용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2004 10월 고3전국연합] 57.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sup>63)</sup> ② 친족 호칭어는 친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넷째 문단에서는 친족이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호칭어를 가족 사이에도 사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일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족 문화의 꽃이다.
- ②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이다.
- ③ 언어는 그 민족 역사의 용광로이다.
- ④ 언어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 ⑤ 언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머뭇이다.

[2004 10월 고3전국연합] 58. [출제의도]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포괄할 수 있는 언어관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답] ④

㉞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발달된 우리말의 호칭어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문화 또는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언어는 문화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다.

### 3. [보기] 대화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 아저씨, 과일 있지요? 오늘 과일 싱싱합니까?

가게 주인 : 사장님 오셨어요? 배, 감 모두 싱싱합니다.

당숙 : 우리 김 교수님,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

조카 : 당숙도 참... 교수님은 무슨...

가게 주인 : 조카님께서 교수님이신가 봐요? 교수님 조카도 두시고 좋으시겠어요.

- ① '당숙'은 친족 호칭어를 타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② '당숙'은 '조카'가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다.
- ③ '가게 주인'은 '조카'의 신분에 비해 높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게 주인'은 호칭어를 통해 손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 ⑤ '당숙'이 사용한 호칭어에는 유교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2004년 10월 고3전국연합] 59.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답] ⑤

'조카'의 사회적 지위는 '교수'이다. 따라서 '가게 주인'이 '조카'에 대해 '교수'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에 비해 높게 호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당숙'은 '조카'가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여 '교수님'이라는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게 주인'은 '당숙'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어를 통해 대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친족에게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실제 지위보다 높게 사용하는 것도 모두 유교 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게 주인'과 '당숙'이 사용한 호칭어에는 유교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 하고 불렀다.
- ②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 하고 불렀다.
- ③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 하고 불렀다.
- ④ 오빠의 아내를 “올케!” 하고 불렀다.
- ⑤ 형의 아내를 “형수님!” 하고 불렀다.

[2004년 10월 고3전국연합] 60. [출제의도] 일상 생활에서 호칭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답] ①

아내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에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고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정확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言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사학에서는 환유(換喩)를 비유법의 한 종류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지닌 인지(認知)의 기본적 특성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비유법은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비유법을 활용할 줄 아는 인지 기제(機制)가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환유적 표현을 무리 없이 이해하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환유는 인접성(隣接性)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관념을 지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에서 실제 끓고 있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지만, ‘주전자’라는 용기(容器)의 이름이 그 내용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물이 끓고 있다’로 이해하는 것은 ‘주전자’와 ‘물’ 사이에 ㉠ 밀접한 인접성이 있어서 의미 연상을 통한 의미 전이(意味轉移)가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성에 의한 의미 전이로 인해서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으로 구별된다. 확대 지칭은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축소 지칭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 ‘손이 모자라다’에서는 신체의 부분인 ‘손’으로 ‘일꾼’을 확대 지칭하며, ‘온 동네가 기뻐했다’에서는 전체인 ‘동네’로 ‘동네 사람’을 축소 지칭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이러한 환유 표현을 사용할까? 언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가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가 훨씬 쉽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유가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거나 ㉢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이다. ‘차를 열다’ 또는 ‘차를 수리하다’의 경우, 이를 차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거나 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실제의 사물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면을 자유자재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는 전체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의 지칭 기능이 모든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환유의 지칭 기능은 다분히 상황 의존적이다. ㉣ 동일한 낱말이 환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 환유적으로 쓰인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유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유(共有)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2004 9월 실시 고3평가원] <언어- 환유의 인지적 특성>

1.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를 들어 중심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제를 나열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을 통해 통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2004 9월 실시 고3평가원]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sup>67</sup> ㉡



: 제재에서는 제재 자체가 추상적인 만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문에서도 2, 3, 5문단에서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성격상 ③(상반된 견해 절충)과 ④(문제점 도출)는 활용하기 어려운 서술 방식이고, ⑤의 [A] 부분에서 활용되었으나 그것이 통념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 2.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1 점]

- ① : 환유의 예는 일상 언어 표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 ② 병근: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인지적 융통성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 ③ 철수: '아침을 먹다'나 '새 얼굴이 등장했다'는 표현에도 환유가 사용됐구나.
- ④ 민정: 특정 사물이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환유의 효과가 클 거야.
- ⑤ 명현: 환유를 사용할 때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겠군.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0. 정보 수용의 적절성 평가 ㉠<sup>168</sup> ④

: 제시문에 따르면 환유는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 표현을 살펴 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5문단).'고 하였으므로, ④에서처럼 특정 사물이나 구체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글 전체에서, 환유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문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② 다섯째 문단에서 환유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에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셋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 소개된 예와 유사한 경우이다. ⑤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 A ]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자의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 ②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되어 있다.
- ③ 인간은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한다.
- ④ 인간은 언어를 좀더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다.
- ⑤ 언어는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1. 개념의 이해 ㉠<sup>169</sup> ④

: [A] 부분에서, 환유는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④에서 말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 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릇'이 '용기'라는 뜻과 '담긴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② ㉡으로 보면 '비둘기'가 '평화'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부분'은 대상 전체로 인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나 특징이어야 한다.
- ④ ㉣의 예로는 '김 과장은 자리를 옮겼다'를 들 수 있다.
- ⑤ ㉤으로 보면 '손'이 상황에 따라 식당에서는 '요리사', 병원에서는 '의사'를 지칭할 수 있다.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2. 어구에 대한 이해의 심화 ㉠<sup>170</sup> ②

: ㉠은, 대상의 부분으로써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확대 지칭의 경우이다 그런데 ㉡에서는, 흔히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비둘기'가 '평화'의 일부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의 '인접성'이란 용기의 이름으로 그 내용물을 지칭하는 의미 전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된다. ④ '김 과장은 자리를 옮겼다.'에서 '자리'는 위치를 뜻하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자리를 '직책'이나 '직장'이라는 환유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⑤ '식당'과 '병원'은 ㉤에서 말한 주어진 '상황'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각 단어는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의미 단위별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단어를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조사를 예외적인 경우로 볼 때 단어가 일정한 의미를 지닌 최소의 자립 형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어'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맞춤법 규정을 만들고 손질하는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국어사전에서조차 단어를 판정하는 원칙이 분명치 않다. '걸어가다'는 한 단어로 인정하여 사전에 올라 있고, '걸어다니다'는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서 '걸어 다니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띄어쓰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의미상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서 쓰라는 것이다. 둘째, '두 마리'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육층'처럼 순서를 나타낼 때나 '800원'처럼 숫자와 어울렸을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셋째, '이때', '한잎 두잎'처럼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올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넷째, 보조 용언 역시 의미상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다섯째,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궁 역'처럼 띄어 쓸 수 있다. 여섯째, 성명을 제외한 고유 명사는 '한국대학교 사범대학'처럼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일곱째, 전문 용어는 '만성골수성백혈병'처럼 붙여 쓸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은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청소년 범죄예방'으로 적어 놓으면 '청소년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복합 한자어에서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세미술연구' 같은 표현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양쪽을 띄어 쓴 '중세 미술연구'는 '중세에 행해진, 미술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가 되고, 뒤쪽을 띄어 쓴 '중세미술 연구'는 (중세나 근대나 현대에 행해진) '중세미술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중세미술연구'는 양쪽을 다 의미할 수 있다.

같은 복합 한자어라도 '한자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자', '문화', '권'이라는 세 덩어리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의미 결합 구조를 따져 보았을 때, '한자'와 '문화'가 먼저 묶여서 한자문화가 되고, 여기에 '권'이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자 문화권'으로 띄어 써 놓으면 '한자'와 '문화' 사이의 친화성보다 '문화'와 '권' 사이의 친화성을 더 높이 쳐준 셈이 되어 의미 구조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한자문화권'으로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하다.

띄어쓰기는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게다가 맞춤법 규정을 달달 외워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사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대로 적용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중요한 것은 '각 단어는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한 '단어'는 한 덩어리의 '의미'라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띄어쓰기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 다음 이와 관련하여 띄어쓰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단어'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띄어쓰기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과 관련하여 의미 결합 구조를 고려하여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미를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을수록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쉬워진다.
- ②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의미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③ 띄어쓰기 관련 맞춤법 규정은 실제 언어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단어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띄어쓰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⑤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1 03월 중앙] 36. [글의 중심 내용 및 집필 의도의 파악] (圖71) ㉔ 이 글에서는 먼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의미 단위별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을 밝힌 후, 띄어쓰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 최소의 자립 형식인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과 관련하여 의미 결합 구조를 고려하여 의미 덩어리별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의미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㉑ 3~4문 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단어 각각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결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띄어쓰기를 쉽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㉓ 이 글에서 띄어쓰기 관련 맞춤법 규정이 실제 언어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㉕ 이 글에서는 띄어쓰기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단어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단어의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㉖ 글쓴이는 단어가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2. 글을 읽은 독자가 글쓴이의 견해를 수용한다고 할 때,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기 ]

- 고등학교 ㉠삼학년이 되었음을 비로소 실감했다.
- 집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께 ㉡이 말 저 말 늘어놓기 시작했다.
- 동생은 형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울기 시작했다.
- ㉣일본영화전문가인 그가 이번 영화에 대해 내린 평가는 신뢰할 만하다.
-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다.

- ① ㉠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삼학년'과 같이 붙여 쓸 수 있을 거야.  
 ② ㉡는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온 경우이므로 '이말 저말'처럼 붙여 쓸 수 있을 거야.  
 ③ '버리다'는 의미상 독립성이 약하므로 ㉢는 '먹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있을 거야.  
 ④ '일본 영화에 대한 전문가'임을 나타내려면 ㉣는 '일본 영화전문가'라고 띄어 써야 할 거야.  
 ⑤ ㉤는 의미 구조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구중심설'처럼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할 거야.

[2011년 03월 중앙] 37.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圖72) ㉔ 이 글에서는 먼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의미 단위별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을 밝힌 후, 띄어쓰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 최소의 자립 형식인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과 관련하여 의미 결합 구조를 고려하여 의미 덩어리별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의미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㉑ 3~4문 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단어 각각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결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띄어쓰기를 쉽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㉓ 이 글에서 띄어쓰기 관련 맞춤법 규정이 실제 언어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㉕ 이 글에서는 띄어쓰기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단어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단어의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㉖ 글쓴이는 단어가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의 어떤 음이 다른 형태소를 만나서 또는 스스로 그 형태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생략(省略), 또는 탈락(脫落)이라 한다. '솔+나무→소나무', '달+달+이→다달이' 등에서 보듯이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 좋은 예이다. 역사적으로도 '알쁘다'의 'ㄹ'이 탈락하여 오늘날의 '아프다'가 된 예 등이 있다.

생략은 단어의 첫소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끝이나 중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어두음 생략', '어말음 생략', '어중음 생략'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 '빨, 썸'의 어두음 'ㅂ'은 오늘날 '좁쌀, 범씨'에 그 자취가 남아 있듯이 발음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세에는 탈락하고 말았다. 이는 어두음 생략의 예가 될 것이다. 어말음 생략의 예로는 '거우루>거울, 고마 >곰'처럼 어말의 모음이 탈락한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어중음 생략의 예로는 '알쁘다 > 아프다'나 '기르마>길마\*'와 같이 역사적인 변화의 예도 있고, ㉠ '쓰어라→씨라, 푸었다→꿰다'와 같은 현대 국어에서의 예도 있다.

생략 중 같거나 비슷한 음 또는 음절 하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특별히 동음 생략이라고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 '이르러, 이르니, 이르면'의 중세 국어에서의 활용형은, '니를-'을 어간으로 하여 '니르러, 니르르니, 니르르면'이었는데, '-르르-'처럼 같은 소리가 겹친 경우에는 '르' 하나를 탈락시켰다. 이 현상은 동음 중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깨고 발음하기도 쉽게 하려는 현상으로 해석되는데, 생략은 전체적으로 발음에 드는 노력을 줄이려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현상이다.

생략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없던 음을 덧붙이는 현상이 있다. 이를 첨가(添加)라 한다. '고치다'를 '곤치다'로 말하는 방언이 있는데, 여기에 'ㄴ'이 삽입된 것이 그 예이다. 오늘날의 '던지다'의 옛 형태는 '더디다'인데, 여기에도 'ㄴ'이 삽입된 첨가 현상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첨가는 발음의 노력을 더 들이더라도 어형이 너무 짧아 안정성이 적은 것에 안정성을 높여 주기도 하고, 또는 발음하기가 뻑뻑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엄+이 >어미, 그력+이 >그려기 >기러기, 긴+웅 >기둥' 등은 전자의 예이다. 이름 뒤에 '순이, 철이, 수돌이'처럼 '이'를 첨가하는 것도 이와 동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디다>더지다>던지다'나 '소+아지>송아지' 등의 예는 후자에 속할 것이다.

\* : 집을 신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엮은 안장

[2010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이익섭, '국어학 개설'

## 1. 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점]

- ① 생략과 첨가의 개념
- ② 생략과 동음 생략의 차이
- ③ 생략 현상이 일어나는 위치
- ④ 생략과 첨가 현상의 제약 조건
- ⑤ 생략과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2010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48. [개괄적 정보의 확인] (173) ④

■ 2문단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 현상의 '제약 조건'이라 할 수 없다. 4, 5문단에서는 첨가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약 조건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

## 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 기 ]

- . 하얗+ㄴ→하얀, 하얗+면→하이면
- ㄴ. 하얗+게→하얗게, 하얗+고→하얗고
- ㄷ. 나라ㅎ>나라
- ㄹ. 죠히>조이 >종이

- ① 은 현대 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생략의 예이다.
- ② 르은 생략과 첨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 ③ ㄱ과 ㄴ으로 보아, 음운 환경에 따라 ‘ㅎ’이 생략되기도 하고 생략되지 않기도 한다.
- ④ ㄱ과 ㄷ은 어말음 생략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ㅎ’이 생략된 역사적인 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2010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49. [자료의 분석과 탐구] ㉑<sup>174</sup> ㉒

㉑ ㄱ은 생략이 일어나는 위치로 보아 ‘어중음 생략’이고, ㄷ은 어말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 2문단에서 어중음 생략의 예로 제시된 단어 중, 현대 국어에서 찾은 ‘쓰어라→씨라’, ‘푸었다→꿇다’의 경우를 보면 어간의 모음 ‘-와’ ‘-ㅓ’가 탈락하고 있다. 이 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ㄱ은 어간의 자음 ‘ㅎ’이 탈락하고 있다. 그런데 ㉒에서는 ㄱ을 어말음 생략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오답해설] ㉒ ‘죠히 > 조이’의 과정에서 생략이, ‘조이>종이’의 과정에서 첨가가 일어났다. ③ ㄱ과 ㄴ에 따르면 ‘하얗-’은 ‘ㄴ’이나 ‘ㄹ’ 같은 유성음 앞에서 ‘ㅎ’이 생략된다.

## 3. [보기] ㉑과 비교하여 내린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보아라 → 봐라, 주어라 → 줘라
- 피어서 → 펴서, 하시었다 → 하셨다

- ① [보기]는 없던 음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㉑과 다른 음운 현상이다.
- ② [보기]는 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㉑과 다른 음운 현상이다.
- ③ [보기]는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㉑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 ④ [보기]는 비슷한 음을 탈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㉑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 ⑤ [보기]는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㉑과 같은 음운 현상이다.

[2010년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50. [자료의 해석과 판단] ㉑<sup>175</sup> ㉒

㉑ ㉑은 어중음 생략의 예이다. ‘쓰-’와 ‘-어라’, ‘푸-’와 ‘-었다’가 결합할 때, 각각 어간의 ‘-’, ‘ㅓ’가 탈락하기 때문에 어중음 생략의 사례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경우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음이 생략되지는 않고, ‘ㄴ’과 ‘ㅓ’가 통합되어 ‘ㄴㅓ’가 된 것처럼 두 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㉑과는 차이를 보인다. <보기>의 경우는 ‘축약’이라고 한다.

[오답해설] ① <보기>의 경우 없던 음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두 음이 축약된 것이다. ③ <보기>와 ㉑은 모두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기>는 축약이고, ㉑은 탈락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음운 현상이다. ④ <보기>는 두 음이 하나의 음으로 줄어들었지, 탈락된 것이 아니다. ㉑의 경우는 음을 탈락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음을 탈락시키는 동음 생략은 아니다. ⑤ <보기>와 ㉑은 모두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음운 현상은 아니다.

표현이란 합성어나 구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중복 표현은 일차적으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어휘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유어로만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박달재 고개, 너희들'과 같은 예가 있는데, 이 유형은 '너희들'을 제외하고는 중복 표현을 해소했을 때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다음으로, 고유어와 한자어가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인데, 중복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중복은 '고유어 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의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담장, 지나가는 과객'이 전자의 예에 해당하고 '고목나무, 결실을 맺다'가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유어나 한자어가 외래어와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로, 이 유형에는 '깡통, 남포등, 히트 치다' 등의 예가 있다.

이러한 중복 표현의 내적 구성 방식에는 수식어의 의미가 피수식어의 의미와 중복되는 수식 구조, 중복 요소 중 어느 한 단어가 서술어의 주어나 목적어, 필수 부사어로 나타나는 논항-서술 구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지나가는 과객'은 수식 구조이고, '결실을 맺다'는 논항-서술 구조, '담장'은 병렬 구조에 해당한다.

한편, 중복 표현의 의미 구조는 부분 중복과 전체 중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분 중복은 중복되는 앞뒤 단어들의 의미 영역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두 성분 중 어느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부분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중복되는 두 성분은 상하 관계를 가지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흥시감'에서 '흥시'는 감의 하위어로서 의미 영역이 부분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전체 중복은 두 성분의 의미 영역이 전체적으로 겹치는 구조이다. 이 경우에 중복되는 두 성분은 동의 관계에 놓이게 되며, 병렬 구조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담장'은 동일 층위의 말이 병렬 구조로 중복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때 고유어인 '담'의 의미 영역과 한자어 '장'의 의미 영역은 동일하다.

중복표현이 나타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복되는 어느 한 단어의 의미 영역을 축소하여 인식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너무 과식하다'의 경우, '과식하다'에는 [+정도를 넘다], [+먹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을 [+먹다]로만 인식하여 부사어 '너무'를 중복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극한 효성'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한데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로 인해 '매우 지극한 효성'처럼 다시 수식어를 중복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 구문에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하므로,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항 구조의 보존 의식 때문에 중복 표현이 나타난다. '결실을 맺다'와 같은 경우, '맺다'에 이미 '결실'의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맺다'가 타동사이므로 적절한 목적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중복하여 표현한 것이다. 한편, 어떠한 중복 요소를 먼저 선택한 나머지,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부득이하게 중복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2010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최재희<국어 중복 표현의 유형과 의미 구조의 특성>

합성어나 구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현상인 중복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먼저 중복 표현의 의미를 밝힌 다음,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 즉 중복 표현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중복 표현의 내적 구성 방식, 중복 표현의 의미 구조, 중복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 글을 읽고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은? [1 점]

- ① 중복 표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중복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의 의미 구조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④ 중복 표현은 어떤 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가?  
 ⑤ 중복 표현의 내적 구성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010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38.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sup>176)</sup> ④

■ 중복 표현의 유형(①)은 둘째 문단에서, 중복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②)는 마지막 문단에서, 중복 표현의 의미 구조(③)는 넷째 문단에서, 중복 표현의 내적 구성 방식(⑤)은 셋째 문단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 표현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④는 본문을 읽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2. 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생긴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최근의 유행가만 골라서 불렀습니다.

- ① 중복되는 두 성분의 충위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③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논항 구조를 보존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⑤ 중복 표현을 해소하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39. [자료의 이해를 통한 원인 추론의 적절성 판단] ㉠<sup>177)</sup> ②

■ 제시된 문장에서, '최근'이라는 말에는 '기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므로 '그녀는 최근의 유행가만 골라서 불렀다.' 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최근'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로 인해 '최근' 앞에 다시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중복하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이 생긴 원인으로서는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3.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기 ]

- ㄱ. 우리는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느꼈다.  
 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난제였다.  
 ㄷ. 그는 이가 빠진 면도칼로 수염을 깎았다.  
 ㄹ. 아주머니는 족발을 푸짐하게 삶아 내셨다.

- ① ㄱ에서는 목적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인한 중복 표현이 나타나는군.  
 ② ㄴ에서는 수식어의 의미가 피수식어의 의미와 중복되는 수식 구조가 나타나는군.  
 ③ ㄷ에서는 중복되는 두 성분의 의미 영역이 전체적으로 겹치는 전체 중복이 나타나는군.  
 ④ ㄷ과 ㄹ에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병렬 구조가 나타나는다.  
 ⑤ ㄱ~ㄹ에 들어 있는 중복 표현 모두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에 속하는군.

[2010년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40. [구체적 정보의 이해를 통한 자료의 해석] ㉠<sup>178)</sup> ③

■ ㄷ의 '면도칼'은 '면도(面刀)'에 '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앞뒤 단어들의 의미 영역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두 성분 중 어느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부분이 되는 구조인 '부분 중복'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성분의 의미 영역이 전체적으로 겹치는 '전체 중복'으로 이해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⑤ ㄱ의 '공감을 느꼈다', ㄴ의 '어려운 난제', ㄷ의 '면도칼', ㄹ의 '족발'이 중복 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문단에서, 중복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ㄱ~ㄹ에 들어 있는 중복 표현은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가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중복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발화시보다 앞서 발생한 과거 사건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한다. ‘어제 철수를 보았다.’라는 문장에서 철수를 만난 사건은 기준사인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서술어에 쓰인 ‘-았-’이다. ‘-았-/-었-’은 사건의 완결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화 왔다. 전화 받아라”라는 발화는 따르릉 하고 소리가 나는 ‘전화가 오는’ 상황이 완결되었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왔다’의 ‘-았-/-었-’은 이 사건이 지금보다 앞선 사건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전화가 온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지금 전화가와 있는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완결은 상황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동작이 끝난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 선어말 어미 ‘-더-’가 쓰이기도 한다. ‘-더-’는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회상한다는 발화자의 서술 태도를 드러낸다. 회상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과거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이를 기억하여 보고하듯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철수가 학교에 갔다.’는 발화시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지만,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는 철수가 학교에 가고 있는 그때 그 장소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이동하여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듯이 서술한 것이다.

‘-더-’는 회상이라는 성질 때문에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발화자가 회상하는 사건은 그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이므로, 발화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회상하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 ‘-더-’와 함께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발화자가 제 3자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는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평서문에서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의문문에서 주어가 2인칭인 경우 ‘-더-’와 함께 쓰일 수 있다.

[2010 3월 고3중앙 전국모의] 언어 [18-19] 권재일, ‘우리말의 과거 표현’

1.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 기 ]

- . 우리말의 과거 표현은 용언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 ㄴ. ‘-았-/-었-’은 발화 이후에 사건이나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 ㄷ. ‘-더-’로 인해 주어와 서술어의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
- ㄹ. ‘-더-’는 ‘-았-/-었-’보다 사건이 더 과거의 일임을 나타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0 3월 고3중앙 전국모의] 18. [미루어 알기] (㉮179) ①

⇒ ㄱ : 1, 2문단에서 과거 사건을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았-/-었-’이나 ‘-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말의 과거 표현은 용언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ㄴ : 1문단에서 ‘-았-/-었-’은 어떤 사건이 발화시인 지금보다 앞선 사건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동작이 끝난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았-/-었-’이 발화 이후에 사건이나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낸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ㄷ : 3문단에서 ‘-더-’는 회상이라는 성질 때문에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쓰이지 못하며,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서술어들은 주어가 3인칭인 경우 ‘-더-’와 함께 서술어로 쓰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더-’로 인해 주어와 서술어의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ㄹ : 2문단에서 ‘-더-’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다는 발화자의 서술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을 뿐, ‘-더-’가 ‘-았-/-었-’보다 더 과거의 일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2.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기 ]

- a. 값이 많이 올랐다.  
 b. 그는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  
 c. 꿈속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  
 d. 철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더라.  
 e. 내가 돌아오니까 많이 반갑더라?

- ① a '-았-'은 물건 값이 오른 일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b의 '-았-'은 '그가 집에 간' 행위가 과거에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c의 '-더-'는 발화자가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④ d의 '-더-'는 발화자가 '철수가 책을 읽은 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e의 '-더-'는 발화자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0 3월 고3중앙 전국모의] 19. [다른 자료에의 적용] ㉠<sup>180</sup> ㉡

㉡ e에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반갑더라(형용사)'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2인칭 주어 '너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갑더라'의 '-더-'는 2인칭 주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지각을 나타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문맥적 변이로 포괄할 수 없을 때 의미 확장이 일어나 다의 관계가 형성된다. 곧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원형 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확장의 몇 가지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를 이용하여 '짐승', '생물', '무생물'로 확장한다. 예를 들면, '먹다'라는 동사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짐승이 먹이를 먹는 행위'로 확장되며, '물기를 먹은 잎새'에서처럼 생물로 확장되며, '{기름/꿀} 먹은 종이'에서처럼 무생물로 확장된다.

둘째, '구체성 → 추상성'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구체성'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상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밝다'의 경우, '빛'을 중심으로 '색 → 표정 → 분위기 → 사리'의 밝음으로 확장된다.

셋째, '공간 → 시간 → 추상'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공간'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간성, 추상성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짧다'의 경우, '길이'의 척도인 "연필이 짧다"에서 "시간이 짧다", "경험이 짧다" 등으로 확장된다.

넷째,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물리적' 공간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심리적 공간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에 있다'의 경우 '{서재/공직/마음속에 있다'의 존재 방식이 이 과정을 따른다.

다섯째, ㉠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의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의 기준점은 '일반성'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추상적인 비유 표현으로 나아가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의어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사이에는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구조적 비대칭성은 조사나 서술어 등의 쓰임과 관련한 통사적 측면에서 원형 의미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반면, 확장 의미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빈도적인 측면에서는 원형 의미가 확장 의미보다 더 자주 사용되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원형 의미는 확장 의미보다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 등이 적게 든다.

[2010 3월 고3대성] 언어 [42-43] 김광해 외, '국어 지식 탐구'

1.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가 ]

- ㉠ : 트집을 잡다 → 기회를 잡다 → 뜰구름 잡다(허황되다)
- ㉡ 차다 : 공을 차다 → 나이가 차다 → 쪽박을 차다(거지가 되다)
- ㉢ 높다 : 빌딩이 높다 → 명망이 높다 → 눈이 높다(안목을 갖추다)
- ㉣ 짧다 : 연필이 짧다 → 경험이 짧다 → 입이 짧다(먹는 것이 적다)
- ㉤ 빠지다 : 못이 빠지다 → 사랑에 빠지다 → 머리가 빠지다(신경을 쓰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2010 3월 고3대성] 42. [답] ㉠ ㉡

㉠에서 '잡다'의 일반성은 물건 따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말한다. '트집을 잡다'는 '기회를 잡다'와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의 '공을 차다', '나이가 차다', '쪽 박을 차다'에서 '차다'는 그 음만 같고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어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의 '못이 빠지다'와 '머리가 빠지다'에서 '빠지다'는 '박힌 물건 따위가 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사랑에 빠지다'에서 '빠지다'는 '물이나 구멍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쓰인 경우이다.

2.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3 점]



## [ 기 ]

## 의사전달술

- 의미 : ① [기압의 변화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 ; 바람이 분다
- 확장 의미 : ② [들뜬 마음이나 행동] : 그 사람 바람(이) {났다 · 들었다}
- ③ [허풍] : 영수의 말은 바람이 세다
- ④ [시련] : 그는 온갖 바람을 이겨내고 성공하였다.
- ⑤ [이성에게 채이다] : 그 여자한테 바람(을) 맞았다.
- ⑥ [사회적 분위기] : {사정 · 감원} 바람이 분다.

- ① 의미의 '바람'이 확장 의미의 '바람'보다 서술어의 선택에 있어 자유로울 것이다.
- ② 원형 의미의 '바람'이 확장 의미의 '바람'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③ '바람이 분다'라는 말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확장 의미의 '바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 ④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바람'은 의미상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다의적 관계에 해당된다.
- ⑤ 원형 의미의 '바람'에는 다양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반면, [이성에게 채이다]의 의미를 지닌 '바람'에 붙을 수 있는 조사는 한정적일 것이다.

[2010 3월 고3대성] 43. [답]182) ③

글의 끝부분을 보면 원형 의미가 확장 의미보다 인지적 측면에서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 등이 적게 든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조건이 아니라면 일차적이고 원형적인 의미의 '바람이 분다'를 말 그대로 생각 할 것이다.

❑ ① 원형 의미의 '바람'에는 서술어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서술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확장 의미의 '바람'에는 원형 의미에서 쓰였던 서술어 중 일부만 가능하다. ② 확장 의미에 쓰인 '바람'을 보면 주로 심리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상징성을 띠며 쓰이는 경우가 많다. ④ 확장 의미는 원형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다의적 관계라 할 수 있다. ⑤ 글의 끝부분을 보면, 확장 의미는 원형 의미에 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언급이 있다. 실제 원형 의미의 '바람'에는 다양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확장 의미의 '바람'에는 각각에 붙을 수 있는 조사가 한정되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소리가리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색의 혼합에서 주황색과 보라색은 서로 다른 색이지만 공통적으로 빨간색을 가지고 있고, 보라색과 녹색은 공통적으로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소리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기본적인 원소로서의 소리가 있고 그 기본적인 원소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소리가 있다. 그리하여 공통적인 원소가 있는 두 소리는 가까운 소리가 된다.
- ㉡ 'ㄱ'과 'ㅋ'은 'ㄱ'과 'ㅣ'가 결합하여 나는 소리이다. 'ㄱ'보다 'ㅣ'의 색깔을 더 많이 넣어 결합하면 'ㄱ'이 되고 'ㅣ'보다 'ㄱ'의 색깔을 좀 더 많이 넣으면 'ㅋ'이 된다. 이 차이를 기술적으로 말하면, 'ㄱ'은 'ㅣ'를 발음할 때처럼 입을 많이 벌리지 않고 발음하는 소리인 반면, 'ㅋ'은 'ㄱ'처럼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하는 소리이다. 이 두 소리는 모두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신경 쓰지 않으면 같은 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데 그것이 현대 국어에서 두 소리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 ㉢ 'ㄴ'은 'ㄷ'(또는 'ㄱ')와 'ㄴ'이 결합하여 나는 소리이다. 영어에서 'Australia, auto, autumn, daughter, because'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와 'u'가 결합하여 우리말의 [ㄴ](발음 기호로는 [ɔ])와 같이 발음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는 'ㄴ'과 'ㄱ'이 결합하여 [ㄴ](발음기호로는 [o])로 발음된다. '밥 좀 줘', '여기 뒤', '고기 구어(~꺾) 먹자'와 같은 말을 '밥 좀 [조]', '여기 [도]', '고기 [고] 먹자'라고 발음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 자음 사이에서도 연관성이 나타난다. 우리말에서 '걸다, 묻다, 듣다' 등과 같은 'ㄷ'불규칙 활용 용언의 어간에 '-어/아'와 같은 어미를 붙이면 각각 '걸어, 물어, 들어'와 같이 발음된다. 즉, 'ㄷ'이 'ㄹ'로 바뀐다. 한편, '설+달, 술+가락'과 같은 말은 '선달, 순가락'처럼 되어 'ㄹ'이 'ㄷ'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water, city' 등과 같은 말을 [워러], [시리]와 같이 발음한다. 즉, 'ㄷ'이 'ㄹ'처럼 발음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ㄷ, ㅌ, ㅍ'와 같은 혀끝소리가 '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혀끝소리 안에 'ㄹ'이라는 구성 원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 ㉤ 자음과 모음이 연관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水], 불[火], 풀[草]'과 같은 말은 세종대왕 때에는 '물, 불, 풀'이었다. 즉, 'ㄴ' 모음이 'ㄷ' 모음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ㄱ, ㅂ, ㅍ'과 같은 입술소리가 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춡다, 텡다'와 같은 말에 '-어/아'를 붙이면 각각 '추워, 더워'와 같이 되며 '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술소리가 'ㄴ'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자음이 'ㄴ'과 같은 구성 원소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입술소리가 같은 자음인 혀끝소리(ㄷ, ㅌ, ㅍ)로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구성 원소가 없기 때문이다.

[2009 6월 고3종로] [언어] 허웅, '말소리의 특성과 우리말 발음'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점]

- ① 'ㄴ'과 'ㅋ'은 공통점이 많은 소리이다.
- ② 혀끝소리는 '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③ 입술소리는 'ㄴ'을 구성 원소로 갖고 있다.
- ④ 말소리의 연관성은 모음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 ⑤ 우리말에서는 'ㄴ'과 'ㄱ'이 결합하여 'ㄴ'으로 발음된다.

[2009 6월 고3종로] 33. [문183] ④

☛ 말소리의 연관성은 모음 사이(나, 다), 자음 사이(라), 자음과 모음 사이(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은 (나)를 통해, ②는 (라)를 통해, ③은 (마)를 통해, ⑤는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각 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진술이 아닌 것은?



- ① ㉠ :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의 'ㅏ, ㅣ, ㅓ'와 비슷한 것들이다. 이 세 개의 소리는 색의 삼원색과 같이 모음의 삼원음이라 할 수 있다.
- ② ㉡ :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내가'를 [나기]로 발음하고, '배개'를 [비개]로 발음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기'모음에는 'ㅣ'모음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 ③ ㉢ : '쓰(다), 크(다)'와 같이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아서/어서와 같은 말이 결합하면 '써서, 커서' 등과 같이 발음된다. 즉, '-'모음 자신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다른 소리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 준다.
- ④ ㉣ : '깨달다'가 활용될 때에 '깨달+아>깨달아'와 같이 어간의 자음 'ㄷ'이 'ㄹ'로 바뀌며, '이튿날'이 결합하여 '이튿날'로 되듯이 'ㄹ'이 'ㄷ'으로 바뀐다.
- ⑤ ㉤ : '아름답다, 밍다'가 활용될 때에 '아름답+어>아름다워, 밍+어>미워'와 같이, 어간의 자음 'ㅂ'이 모음 'ㅓ'로 바뀐다.

[2009 6월 고3종로] 34. ㉠<sup>184</sup> ㉢

㉠ ㉢은 '-'모음은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아서 다른 색깔의 소리와 만나게 되면 자신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다른 소리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아무런 특징을 가지지 않는 '-'모음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근거이다.

[오답해설] 셋째 문단은 'ㅏ(또는 'ㅣ')와 'ㅓ'가 결합하여 'ㅓ'로 발음된다는 소리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 무관하다.

### 3. 글에 근거해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 현상을 가장 잘 추리한 것은? [3 점]

ㅣ 기 ㅣ

연인들 사이에 “나 아파!”라는 말을 애교스럽게 “나 아  
포!”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보기 ]

- ① 'ㄴ'과 'ㅣ'가 결합하여 'ㄴ'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 ② 입술소리 'ㅍ'에 들어 있는 'ㄴ'을 자의적으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 ③ 입술소리가 'ㄴ'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④ 입술소리 'ㅍ'와 'ㅏ'가 결합하여 '푸'로 바뀌 다음, '포'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 ⑤ 'ㅍ'에 들어 있는 'ㄴ'이 뒤에 오는 어미 '-아'와 결합하여 'ㅓ'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고3종로] 35. ㉠<sup>185</sup> ㉤

셋째 문단에서 'ㅏ(또는 'ㅣ')와 'ㅓ'가 결합하여 'ㅓ'로 소리 난다고 하고 있고, 다섯째 문단에서 입술소리(ㅁ, ㅂ, ㅍ)가 'ㄴ'을 구성 원소로 갖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종합해서 추리해 보면 '아파'의 'ㅍ'에 들어있는 'ㄴ'이 (다섯째 문단) 어미 'ㅏ'와 결합하여 'ㅓ'로 발음된 것(셋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분하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말에 '아침', '점심', '저녁'이 있다. 날이 새면서부터 오전 만나절쯤의 사이를 '아침'이라 하고,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오기까지의 사이를 '저녁'이라 한다. '점심'은 딱히 어느 시간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정오'를 기준으로 그 앞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침'이라는 단어는 15세기의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이때에는 '아츨'으로 나온다. '아츨'이라는 단어는 '앗-'과 '-옴'으로 분석된다. '앗-'은 '적다', '작다', '드물다', '이르다', '시작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앗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이다. '아츨날(작은설)', '아츨아들(조카)'의 '앗-'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옴'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선행 요소 '앗-'의 의미를 고려하면 '아츨'은 '이른 것', '시작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츨'은 '-> -'의 변화에 따라 16세기 이후 '아츨'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 |'의 변화에 따라 19세기 이후 '아침'으로 변화하였다. '아츨'이라는 시간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아침밥'이라는 구체적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 '시간 개념'이 '대상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아츨'에 '아침밥'이라는 대상 개념이 생겨난 시기는 잘 알 수 없다.

'점심'이라는 단어도 이른 시기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16세기의「순천김씨언간」에 '덤심'으로 나온다. '덤심'은 본래 '점심(點心)'이라는 불교 용어였다. 불교의 선종에서 정식 전에 마치 공복에 점을 찍듯이 먹는 간식을 '덤심'이라고 하였다. 이 '덤심'이 일반사회에 전입되어 쓰이면서 지금과 같은 '낮에 먹는 끼니'라는 일반적 의미가 생겨났다. 이어서 '그 끼니를 먹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생겨났다. '대상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어 경우이다. 16세기의 '덤심'은 구개음화에 의해 18세기 이후 '점심'으로 쓰이다가, 단모음화에 의해 지금과 같은 '점심'으로 변화하였다.

'저녁'이라는 단어는 '아침'이나 '점심'과는 달리 좀 늦은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저녁'은 17세기 문헌인 「역어유해」에 '저녁'으로 처음 보인다. '저녁'도 특정 시간대를 가리키다가 그 시간대에 먹는 음식, 즉 '저녁밥'이라는 의미로 변했다. 이 ㉠'저녁'의 어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녁'이 방향을 뜻하는 명사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에 선행하는 '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저녁'이 '더녁'으로부터 변했다고 보기도 한다. '더녁'은 15세기 문헌에서 '피방(彼坊)', 즉 '저쪽'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쓰였다. '공간 개념'이 '시간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저녁'이 '더녁'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녁'에서 '저녁[夕]'의 의미가 확인되지 않고 '저녁'의 이른 시기의 어형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선불리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17세기 이전에는 '저녁[夕]'의 뜻으로 '나조ㅎ'나 '나죄'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아츨'과 어울려 '아츨나조ㅎ' 또는 '아츨나죄'와 같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까지 이용된 것으로 미루어, 이것이 특정 시기에 상당한 세력을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17세기 이후 문헌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18세기 이후 '저녁'에 밀려나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북부 방언 '나죄', '나주악', '나쭈손' 등에서나 확인된다.

[2009 5월 고3중앙] 35 - 37 [언어] 조항범, '아침점심저녁'

1.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침
  - 어간 '알-'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  
..... ①
  - '아침'(15세기)→ '아츨'(16세기 이후)→ '아침' (19세기 이  
후)
- 점심
  - 불교용어 '점심(點心)'에서 전용되어 쓰인 말  
..... ②
  - '덤심' (16세기) → '점심'(18세기 이후) → '점심'  
..... ③
- 저녁
  - '아침', '점심'에 비해 가장 늦게 등장한 말  
..... ④
  - 어원과 관련하여 아직 정설이 없음.
- 아침, 점심, 저녁 : '시간 개념'이 '대상 개념'으로 바뀌었다  
는 점에서 공통적임  
..... ⑤

[2009 5월 고3중앙] 35. [세부 정보의 확인] ㉠<sup>86)</sup> ㉡

㉠ '아침'과 '저녁'은 특정 시간대를 가리키다가 그 시간대에 먹는 음식인 '아침', '저녁밥'이라는 대상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점심'은 불교용어가 일반 사회에 전입되어 '낮에 먹는 끼니'라는 일반적 의미가 생겨났고, 이어서 '끼니를 먹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대상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는 이러한 글의 내용을 잘못 정리하였다.

2. 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할 때, [보기]에 대한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저녁'은 '저물다'의 옛말인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녁'이 결합된 '저물녁'이나 '점글녁'이 줄어든 것이다.

[보기]

- ① ' '와 '점글다'에 특정 시간대를 가리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② '저물다' 또는 '점글다'와 '녁' 중 어떤 말에 대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③ 그렇다면 '저녁'이 오늘날의 형태인 '저녁'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④ 그렇다면 '저물녁'이나 '점글녁'에서 '-물-'과 '-글-'이 생략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⑤ 그렇다면 방향을 뜻하는 공간 개념인 '녁'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009년 5월 고3중앙] 36. [비판의 적절성 판단] ㉠<sup>87)</sup> ㉡

㉠ (보기)의 주장대로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녁'이 결합하면 '저물녁' 혹은 '점글녁'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형태들에서 '-물-'과 '-글-'이 생략되어 줄어든다면 '저녁'의 어형이 나온다. 그러나 어간의 일부인 '-물-'과 '-글-'이 생략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답] ① '저물다'의 옛말인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이미 시간 개념(해가 저물 무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기>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문이 될 수 없다. ② '녁'은 방향을 뜻하는 공간 개념으로, '저녁'이라는 대상개념은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개념의 포함 여부는 <보기>에 대한 비판적 의문이 되지 못한다. ③ <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제기한 의문에 해당한다. 또한 '저녁'이 '저녁'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점심'이 '점심'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모음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공간 개념인 '녁'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적절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가

.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흠소냐.  
오늘리 부족(不足)커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勞)하라.  
- , 「면양정가」 -

ㄴ. 더러 나죗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

가

- ① 에서 '아침'과 '나조ㅎ'는 특정한 시간대를 가리킨다.
- ② ㄱ의 '나조히라'는 '나조ㅎ'에 '라'가 결합한 것이다.
- ③ ㄱ의 '나조히라'는 다른 곳에서 '나죄라'로 나타나기도한다.
- ④ ㄴ에서 '나죗손'은 '공간개념'이고, '저녁'은 '시간 개념'이다.
- ⑤ ㄴ의 '나죗손'은 북부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조ㅎ'의 변형이다.

[2009 5월 고3중앙] 37. [구체적 상황예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17세기 이전에는 '저녁(夕)'의 뜻으로 '나조ㅎ'나 '나죄'가 일반적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북부 방언 '나죄', '나주악', '나죗손' 등에서나 확인된다는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ㄴ의 '나죗손'은 '저녁'과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ㄴ에서 '나죗손'이나 '저녁'은 모두 공간개념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오기까지의 사이'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 ㉡의 문맥으로 보아, '아침'은 아침 시간대를, '나조ㅎ'는 저녁 시간대를 가리킨다. '아침 밥' 또는 '저녁밥'을 나타내는 대상 개념이 아니다.



言語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낱말이라고도 일컬어지지만, 그 의미가 반드시 같아 보이지 않는다. 초등학교 자습서에는 '낱말 정리', '낱말 풀이'라 되어 있고, 중학교에 들어오면 '영어 단어장'을 들고 열심히 '단어'를 외다. 우리말이나 외국어나에 따라 '낱말'과 '단어'가 분화되어 쓰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문법가의 취향에 따라 낱말 또는 단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론에서 다루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단어로 보느냐는 문법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 가령, '철수가 동화를 읽었다.'라는 문장을 들어 보자. ㉠주시경 등의 초기 문법가들은 이 문장이 '철수, 가, 동화, 를, 읽, 었다'의 6개의 단어로 짜여진 것으로 보았다. ㉡정렬모와 이승녕 등의 역사문법가들은 '철수가, 동화를, 읽었다'의 셋으로 분석하였다. 자립형태소에 붙는 의존형태소까지 단어로 보지 않았으니 이는 곧 어절을 단어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에 ㉢최현배 등 한글 맞춤법의 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철수, 가, 동화, 를, 읽었다'의 다섯 가지로 보았다. '가, 를'과 달리 '있'과 같은 의존형태소는 '읽'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기 때문에 단어로 보지 않았다. 주시경에서는 두 단어였던 ㉣'읽었다'가 최현배에 와서는 한 단어로 처리된 것이다.

현재 국어 문법에서는 최현배 등 한글맞춤법의 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견해를 따 단어를 정립하고 있다. 예문에서 '철수, 동화, 읽었다'가 단어가 되는 것은 자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립성을 띠었다는 것은 앞뒤에 숨의 끊어짐, 곧 휴지(休止)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철수, 동화'는 자립형태소가 그대로 단어가 된 것이요, '읽었다'는 의존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가 된 것이다.

예문의 '가, 를'은 자립성이 없는 의존형태소임엔 틀림없지만 단어로 인정하였다. '읽었다'의 '었다'와 달리 '가, 를'이 붙는 실질형태소의 구조적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달리 처리한 것이다. 곧 '가, 를'이 붙는 말은 자립형태소인 데 대해 '었다'가 붙는 말은 의존형태소이다. '읽'은 '었다'와 결합되어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철수, 동화'는 그 자체로도 자립할 수 있다. '가, 를'은 의존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성은 '철수만이 동화를 읽었다./ 철수가 동화가지를 읽었다.'와 같이 그 앞에 다른 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학자들은 영어의 관사, 전치사, 중국어희 허사(虛辭)가 자립성은 없어도 단어로 인정되는 사실을 들기도 한다. 국어의 조사가 영어, 중국어의 그러한 부류들과 성질이 꼭 같지는 않지만 조사의 단어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국어 문법에서의 단어의 정립 기준은 자립성과 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9 3월 고3대성] (출전) 고영근·남기심, 「단어의 정립 기준」

## 1. 글의 중심 내용은? [1 점]

- ① 현재 국어 문법이 정해진 과정
- ② 단어의 정립 기준이 변화해 온 과정
- ③ 현재 국어 문법에서의 단어의 정립 기준
- ④ 한글맞춤법 제정을 통한 국어 문법의 정립
- ⑤ 단어 정립 기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2009 3월 고3대성] 37. ㉠<sup>189</sup> ㉢

■ 이 글은 문법가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단어의 정립 기준을 설명한 뒤, 한글맞춤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현재의 국어 문법의 단어 정립 기준을 예문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현재 국어 문법에서의 단어의 정립 기준이다.

## 2. ㉣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읽었다'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 ② '읽었다'를 둘로 나누면 모두 자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③ ‘            ’는 실질형태소를 가지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 ④ ‘읽었다’의 내부에는 다른 조사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읽었다’를 둘로 나누면 ‘읽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09 3월 고3대성] 38. [문190] ②

■ 한글맞춤법에 참여한 학자들은 ‘읽었다’를 ‘읽, 었다’의 두 단어로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읽’과 ‘었다’ 모두 단어의 정립 기준인 자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읽’과 ‘었다’는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결합해야만 비로소 쓰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읽었다’는 ‘읽+었+다’로 더 세분할 수 있다. ③ ‘읽었다’의 ‘읽’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실질형태소이다. ④ 다른 조사의 개입 여부는 단어의 정립 기준인 분리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립성의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 ‘읽었다’와는 무관하다. ⑤ ‘읽었다’를 ‘읽, 었다’의 둘로 나누어도 ‘읽’에 ‘읽다’의 실질적 의미가 남아 있다.

3. [보기] 문장에 대한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한 마리도 먹이를 찾고 있었다.

[    기    ]

- ① ㉠은 [보기]의 ‘찾고 있었다’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 ② ㉡는 [보기]가 모두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본다.
- ③ ㉢는 [보기]의 ‘한’이 자립성을 지닌 한 단어라고 본다.
- ④ ㉣는 [보기]의 ‘도’, ‘를’도 분리성을 지녔으므로 단어로 본다.
- ⑤ [보기]의 ‘까지’가 한 단어라는 데는 ㉠~㉣ 모두 이견이 없다.

[2009년 3월 고3대성] 39. [문191] ②

■ ㉡는 단어를 어절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까지, 한, 마리도, 먹이를, 찾고, 있었다’의 여섯 어절로 되어 있으므로 단어 역시 여섯 개다.

[오답해설] ① ㉠은 ‘찾, 고, 있, 었다’의 4개의 단어로 나눈다. ③ ‘한’은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로 얼마든지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자립성을 지닌 한 단어이다. ㉢의 견해에 부합된다. ④ 현재 국어 문법에서 조사는 분리성을 지니므로 단어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⑤ ‘까지’는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쓰인 자립형태소이므로 ㉠~㉣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데 이견이 없다.



|



|

## 1) [2013 대수능] 37. 추론적 사고(숨겨진 내용의 추리) ㉠ ㉡

■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어미, 조사, 접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어미와 조사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어미는 항상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선행 요소인 어간 또한 자립할 수 없음에 비해, 조사와 함께 쓰이는 선행 요소는 독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어간과 어미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어간+어미'의 형태로 문장 성분이 된다. ③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품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용언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 반면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 2) [2013년 대수능] 3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마음이 놓이네.'라고 할 때의 '놓이네'는 동사 어간 '놓-'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놓다'와 '놓이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지나가는'이라는 용언은 '신우'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만났어'는 '만나-', '-았-', '-어'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병원에 가는 길'은 '병원 가는 길'로 써도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 예가 될 수 있다. ⑤ '걱정하고'라는 용언은 '걱정하-'라는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인데, '걱정하-'라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를 결합시킬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2012년 대수능] 40.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 ㉡

■ 『사성통해』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반절법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것은 중국의 운서이다. (2문단)

[오답피하기]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였다. 이를 반절법이라고 불렀다. (1문단) ③ 『사성통해』 조선 시대 역관들은 중국의 운서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성통해』를 이용하여 학습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④ 사성통해에서 ' '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한 것이다. (2문단)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것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다. 한글이 그런 이상적인 발음기호가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3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2012년 대수능] 4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 ㉡

■ 중국의 운서는 두 개의 한자를 이용해 한자음을 표현한다. (1문단) 그러므로 두 개의 발음이 나는 한자는 4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고 3개의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6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반절법'은 한자를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초성과 중·종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③ '東'(동)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보면 접미가 가능하다. (1문단) 일관성이 없어서 학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⑤ 한 글자의 발음을 알기 위해 하나의 발음 기호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을 조합해야 하므로 학습하는 데 불편했을 것이다.

## 5) [2012년 대수능] 42. 추리적 사고(원리의 적용) ㉠ ㉡

■ [고궁이 크다]에서 같은 음으로 표시된 '고'의 'ㄱ'과 '궁'의 'ㄱ'이 B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 [g]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음소적인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4문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한글은 무성음 [k]와 유성음 [g]의 다른 소리를 같은 음자인 '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음성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고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고 한다. ③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에서 출현 환경은 어두와 모음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무성음 [k]는 어두에서 소리 나고 유성음 [g]는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므로 출현 환경이 다르다. ④ '고궁이 크다'에서 '궁'의 'ㅇ'은 [ŋ]으로 '이'의 'ㅇ'은 무음 '∅'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았다.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발음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음성적 차원의 표기이다. 반면 A는 음소적 차원의 표기이므로 B가 표음성이 낫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6) [2011학년도 언어영역] 37.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불일치 파악) ㉠ ㉡

■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에는 단언어로 여겨져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두더지다'·'뒤지다'와 같은 그동안

의 언어 변화로 인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본래 합성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단언어로 여겨진다. ② 합성어 유형 구분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른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견주어 볼 때 차이가 드러난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의 어간은 '숫-'인데, '숫+숫'의 형태 변화로 인해 아예 소멸되었다.

## 7) [2011학년도 언어영역] 38. 비판적 사고(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 ㉡

■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능이 오늘날의 '에'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귀엣'은 '귀(명사)+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로 분석되며, '거우루엣'은 '거우루(명사)+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보기>에서 '제'는 생략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거우루엣'과 '그르멜'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루었는데 '거우루엣'은 '귀엣'과 유사한 구성이고 <보기>의 '그르메'와 ③의 '말'은 모두 명사이므로 '귀엣'과 '말' 사이에도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⑤ '귀엣'은 15세기 당시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으나 현재에는 단언어로 인식되므로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다.

## 8) [2011학년도 언어영역] 39. 창의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용) ㉠ ㉡

■ ㉠은 '오르-'라는 용언 어간과 '내리-'라는 용언 어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르내리다'라는 합성어로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읽다'와 '갈무리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읽갈무리하다'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② '빼빼한'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표음 문자가 그림 문자보다 더 발달된 문자라 할 수 있다. ③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한글은 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다고 했다. ④4문단 전반부에서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는 글자의 음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⑤3문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5) [2005년 언어영역] 45.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㉞ ③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한글은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적 특징을 가진다고 했다(㉞). 그리고 4문단에서 한자는 문자 분류상으로는 표의 문자이지만,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음만 이용하는 음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㉞). 한글 또한 음운 문자이면서도 문자 운용에 있어서는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정점을 가진다(㉞). 이것이 바로 같은 음운 문자인 영어 알파벳과 다른 한글만의 장점인 것이다.

16) [2005년 언어영역] 46. 창의적 사고(사고 과정의 파악) ㉞ ④

정답해설 : 글쓰이는 한글은 음운 문자에 속하면서도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보기이다. ④에 보기로 제시된 한자는 자형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문자 전체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글자가 자질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에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①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ㄱ, ㅌ'은 'ㄱ, ㄷ'에 가획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답이다. ②2문단 6-7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글자와 가획 글자의 발음 위치는 같다. ③2문단 7-8행에서 가획을 통해 거센이라는 자질을 나타낸다고 했다. ⑤2문단 4-6행에서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질 '문자'를 설정한

'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④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⑤ '세금달콤'이라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9) [2010학년도 언어영역] 30. 구체적 정보에 대한 이해 ㉞ ②

㉞ 둘째 문단에서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비음성], [-비음성], [+양순성], [-양순성] 등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설명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서 변별적 자질은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첫째 문단의 /ㄱ/, /ㄷ/에서 볼 수 있듯이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의 묶음을 통해 음운의 음성적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통해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기는 어렵다. ④ 첫째 문단의 예에서 보듯이 한 음운이 [+F]이면서 동시에 [-F]일 수는 없다. ⑤ 셋째 문단에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두 개의 정보를 알려주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하였다.

10) [2010학년도 언어영역] 31. 정보의 이해를 통한 자료 해석 ㉞ ⑤

㉞ <보기>는 제시된 글에서 설명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여 음운 현상을 표시한 구체적 예이다. ㉞~㉞을 <보기>에 하나씩 대입하여 변별적 자질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오답 피하기 : ① 규칙을 적용 받기 전의 음에 해당하는 'ㄱ, ㄷ, ㅌ'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다. ②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에 해당하는 'ㅇ, ㄴ, ㄹ'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③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인 'ㄴ, ㄹ'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 ④ '음내'에서 규칙을 적용 받기 전의 음인 'ㄷ'과 규칙을 적용 받은 후의 음인 'ㄹ'은 [+양순성]이라는 공통되는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 ⑤ '국물'에서 규칙을 적용 받은 후의 음인 'ㅇ'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인 'ㄹ'은 [+비음성]이라는 공통의 변별적 자질을 가지므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따라서 ㉞에 해당하는 음들이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1) [2008년 언어영역] 31. 사실적 사고(세부적 사실의 확인) ㉞ ①

정답해설 : 이 글은 '입의 벌림 정도' 즉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 )'를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 0도, 마찰음과 파찰음 1도, 비음 2도, 유음 3도, 고모음 4도, 중모음 5도, 저모음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붙여 나가면 '>'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되는데, 이를 통해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 보면 '끝말잇기 게임'이나 시에서 운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음절 초에는 'ㅇ[n]'이,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n]'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어에서 1음절인 단어가 국어에서는 3음절이 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12) [2008년 언어영역] 3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㉞ ③

정답해설 :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되는데,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다. 이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모음보다 개구도가 작은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다. 이러한 음절은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으로, 국어를 발음하는 최소 단위가 된다.

13) [2008년 언어영역] 33.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㉞ ①

정답해설 :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한 부등호 배열을 보고 음절의 모양을 추리해 보는 문제이다. 부등호 배열이 '<<>>'라고 했으므로, 두 부등호 사이의 음절 경계를 보아 2음절의 단어임을 알 수 있고, 음절의 구조는 '자음+모음'인 음절과 '자음+모음+자음'인 음절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의 '가족'은 '개구도 0 6 1 5 0'으로 부등호로 배열하면 '<<>>'의 구조이다. [오답피하기] ②, ④ 두 번째 음절이 '자음+모음'이다. ③ '<>>>'의 구조이다. ⑤ 첫 번째 음절 '우'는 '자음+모음'의 구조가 아니라 '모음'의 구조이다.

14) [2005년 언어영역] 44.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㉞ ②

정답해설 : 음절 문자나 음운 문자는 모두 표음 문자에 속한다. 표음 문자는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음절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가나가 있으며, 음운 문자는 자, 모음으로 분리되는 영어나 한글이 있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음절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절 문자보다 음운 문자의 글자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그림 문자는 대상을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표음 문자는 추상화된 기호에 의미를 결합시킨 사회적인 약속

고 했다.

17) [2005년 언어영역] 47. 창의적 사고(내용의 이해와 적용) ㉠ ㉡ ㉢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3개이다. 첫째 음운 문자,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 셋째 모아쓰기이다. 첫째 음운 문자는 표음 문자 중의 하나이기에 글자가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호로 표시되면서도 자, 모음으로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 ㉣, ㉤ 하지만 '도토리'에서 '도'와 '토'의 모음은 같기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은 ㉢ 하나뿐이다.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토리'에서 'ㄷ'과 'ㄷ'의 연관성처럼 새로운 문자에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 ㉢, ㉣ 셋째 모아쓰기는 도토리와 같이 세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 ㉣, ㉤ 오답피하기 : ㉠, ㉡자, 모음의 분리가 없기에 모아쓰기도 하지 않았으며, 자질 문자의 특성도 확인할 수 없다. ㉣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모아쓰기도 하였으나 모음의 표기가 잘못 되었다. ㉤음운 문자, 모아쓰기만이 반영되었다.

18) [2004년 언어영역] 3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새로운 언어의 생성으로 인해 기존 어휘의 의미 범주가 변함으로써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우'와 '양'이라는 평가 요소의 소멸로 인해 기존의 '수, 미, 가'가 의미하는 범위가 변하게 되므로 ㉠의 사례로는 적절하다.

19) [2004년 언어영역] 3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대부분의 어휘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선택의 폭이 넓지만, ㉣와 같은 경우는 선택 가능한 어휘가 '적다'와 '많다' 정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반면 ㉠, ㉡, ㉢, ㉤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휘 선택이 이루어진다.

20) [2004년 언어영역] 36.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 ㉡ ㉢

㉤에서 ㉠와 ㉢는 한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므로 선택 관계가 아니라 통합관계이다. ㉠에서 <보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조'이며, ㉡에서 ㉢는 문장이므로 이야기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21) [2004년 언어영역] 37.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 ㉡ ㉢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관계에 적당한 예는 ㉠이다. 한 봉사는 '문수하오'라고 외치고 다른 봉사는 '문복하오'라고 외치는데 이는 서울과 시골이라는 지역차에 의한 것이다. ㉡는 시대를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의 예이며, ㉢과 ㉤는 계층을 기준으로 한 선택관계의 예이다.

22) [2004년 언어영역] 38. 세부정보의 파악과 적용하기 ㉠ ㉡ ㉢

㉠은 '어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로 능동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 경우 '감기가 철수에게 걸렸다'라는 능동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다.

23) [2002년 언어영역] 23. ㉠ ㉡ ㉢

(나)에서 보면 '센누끼'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개뽑기'를 권장하였지만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가 쓰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한 예가 된다.

24) [2002년 언어영역] 24. ㉠ ㉡ ㉢

'몰래'와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는 언어 표현이 진부하여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 세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25) [2002년 언어영역] 25. ㉠ ㉡ ㉢

'벤토, 돛부리'가 '도시락, 덮밥'으로 바뀌게 된 '강력한 동기는 '벤토, 돛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족 정서가 많이 반영된 까닭이다.

26) [2002년 언어영역] 26. ㉠ ㉡ ㉢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방가', '킴' 등은 '반가워요, 컴퓨터'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용어들이다. 이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표현을 새롭게 하려는 욕구와 글자 입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통신상에서 특징인들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은어라고 할 수 있다.

27) [2012년 10월 고3 전국연합] 30.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 ㉡ ㉢

㉠ (라) 단락을 자음동화 현상을 공명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종류를 공명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8) [2012년 10월 고3 전국연합]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한다. ㉠ ㉡ ㉢

㉠ (나) 단락을 통해 '모음'의 공명도가 '자음'의 공명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 단락을 통해 음절의 중성은 모음, 초성과 중성은 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음인 중성은 자음인 초성보다 항상 공명도가 높으므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9) [2012년 10월 고3 전국연합] 3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 ㉡ ㉢

음절 경계에서 장애음과 비음이 이어질 때 비음화 현상과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문답'은 [문답]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나 공명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2012년 9월 시행 고3 평가원] 2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 파악) ㉠ ㉡ ㉢

위 글은 단어 형성 방식 중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위 글을 통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이외의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1문단의 '잉어빵'이나 3문단의 '종이공'은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문단에서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관련된 자료, 구개음화가 진행된 과정과 양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37)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 ㉡

㉠ ‘이르다’는 구개음화된 ‘ㄹ’이 어두에서 음운 제약에 의해 탈락된 것이고, ㉡은 ‘ㄷ’이 ‘ㅌ’으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이 둘 모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뀐 단어이다.  
[오답풀이] ㉠에는 구개음화된 ‘ㄹ’이 탈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고, ㉡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지 않았다. ㉠과 ㉡ 모두 단일 형태소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며,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다.

38)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자료에 적용한다. ㉠ ㉡

㉠ @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ㄷ’과 ‘ㄷ’은 구개음화 이전의 형태이다.

39) [2011년 10월 고3 전국연합] [19~21] (언어) 김광해 외, ‘국어 지식 탐구’

40) [2011년 10월 고3 전국연합] 1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

㉠ 첫 단락에서는 은유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2단락부터 6 단락까지는 은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은유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1) [2011년 10월 고3 전국연합] 20.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 ㉡

㉠ 4단락의 내용을 보면 ‘근원 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곧 근원 영역인 ‘전투’는 구조화된 경

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3문단에서 ‘중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1) [2012년 9월 시행 고3 평가원]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결혼반지’의 경우 반지 앞에 오는 말이 반지의 사용 목적인 반면, ‘금반지’는 반지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금반지’를 근거로 삼아 ‘수정으로 만든 반지’를 의미하는 ‘수정반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 ‘바닷물’의 경우 물 앞에 오는 말이 흐르는 장소인 반면, ‘설탕물’은 물에 탄 재료이다. 그러므로 ‘인삼 가루를 탄 물’을 의미하는 ‘인삼물’은 ‘설탕물’을 근거로 형성된 단어이다.

㉢ ‘생일떡’의 경우 떡 앞에 오는 말이 떡의 사용 목적인 반면, ‘호박떡’은 떡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회갑을 기념하는 떡’을 의미하는 ‘회갑떡’은 ‘생일떡’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 ‘겨울옷’의 경우 옷 앞에 오는 말이 옷을 입을 시기(계절)인 반면, ‘비단옷’은 옷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비닐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 ‘비닐옷’은 ‘비단옷’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 ‘유리잔’의 경우 잔 앞에 오는 말이 잔의 재료인 반면, ‘우유잔’은 잔의 용도이다. 그러므로 ‘돌로 만든 잔’을 의미하는 ‘돌잔’은 ‘유리잔’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32) [2012년 9월 시행 고3 평가원]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와 적용) ㉠ ㉡

㉠ 2문단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 )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언중들은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중들이 많이 쓰는, 즉 널리 쓰이는 ‘맑은탕’이 ‘싱건탕’보다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싱건김치’는 국물이 맑은 김치이다. ‘싱건탕’ 또한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제안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둘 모두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 ‘맑은탕’은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맑은 국’에서 유추한 단어이다. ㉣ ‘싱건탕’은 ‘싱건 김치’에서, ‘맑은탕’은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이다. ㉤ 언중들은 ‘싱건탕’이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싱건탕’을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다.

33) [2012년 6월 시행 고3 평가원]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 ㉡

㉠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는 ‘너’, ‘너희’, ‘자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예사 낮춤 말인 ‘자네’가 ‘너’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 높임의 등급 구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위 글에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대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1인칭 대명사이다. ㉢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에게 ‘임자’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에 따라 2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달라짐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 중 ‘너희’는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 곧 2인칭 복수를 지칭할 때 사용함을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 문단에서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34) [2012년 6월 시행 고3 평가원]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2인칭 대명사는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 사용한다. <보기>는 ‘한 상무’와 ‘김 부장’의 대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는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상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와 듣는 이인 ‘김 부장’ 이외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 자신과 듣는 이인 ‘김 부장’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 @는 ‘고모’와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는 말하는 이인 ‘고모’와 듣는 이인 ‘한 상무’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3의 인물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35) [2012년 6월 시행 고3 평가원]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 ㉠과 ㉡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칭을 나타내고 있다. ㉡의 ‘자기’ 역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이고 있다. 즉, ㉡의 앞 문장에서 ‘자기’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뒤 문장에서 ‘자기’는 ‘학생’을 가리키는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 ‘너’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 ‘자네’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 앞 문장에서 ‘그대’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뒤 문장에서 ‘그대’는 상대편을 친근하게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 ‘여러분’은 모두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36)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 ㉡

㉠ 이 글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인 구개음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개음화의 개념 및 그것이 일어나는 음운 조건, 구개음화가 일어난 시기와 지역, 구개음화와

이고, 목표 영역인 '논쟁'은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42) [2011년 10월 고3 전국연합] 21. [출제의도] 중심 제재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한다. ㉠ ④

㉠ 마지막 단락의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라는 내용을 통해 '은유란 낯선 대상을 익숙하게 바꿔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

43)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언어 \*\* 출전: 이관규, <국어의 부정 표현>

44)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 ⑤

㉠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부정은 어떤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며, 의지 부정은 주어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45)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하기 ㉠ ①

㉠ '어제 도서관에서는'은 보조사 '는'을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장소인 도서관을 부정)하였고, '미덥지 않았나 봐'는 형용사 '미덥다'를 서술어로 쓴 문장으로, 미더운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 '못 믿는 걸까'의 경우는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은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긴 부정문이 아니다.

46)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②

㉠ ⑥는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로 부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의문 형식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47) [2011.6월 실시 평가원] [44-46] 언어, 한국어 경어법

: 한국어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경어법 면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표현들이 많다. 이 글은 명제적 의미는 유사하나 경어법 면에서 다른 '감사하다'와 '고맙다', 비슷한 의미 기능으로 쓰이지만 어휘적 의미의 차이로 경어법이 다른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예로 들어 경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거리의 요인을 분석한 글이다.

48) [2011.6월 실시 평가원] 44.정보의 개괄적 확인 ㉠ ③

이 글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대화 참가자들 간의 '서열', '친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을 들었다.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연세', '생신', '진지'가 '나이', '생일', '밥'보다 높임 표현으로 쓰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친분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의미가 비슷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고 하였다. ⑤ 글 전반을 통해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또는 상황의 격식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 [2011.6월 실시 평가원] 45.사례의 적절성 판단 ㉠ ②

㉠은 고유어 '나이'보다 한자어 '연세(年)'가 더 높은 말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치아(齒牙)'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둘 다 한자어인데 후자인 '생신'이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사망(死亡)-별세(別世)'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밥'과 '진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인 '진지'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자다-주무시다'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의 '말'과 '말씀'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이다. ② ㉠의 '따남'은 한자어가 아니다. ③ ㉠의 '어머니'는 한자어가 아니다. ㉡의 '서점'은 '책방'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④ ㉠의 '내외'가 '숙곳'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의 '빈곤하다' 역시 '가난하다'보다 높임의 정도가 큰 표현이 아니다.

50) [2011.6월 실시 평가원] 4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 ①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서열상 상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위자에게 사과나 부작을 할 때 쓰는 말이다. ①의 경우에도 화자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과장'은 하위자에 해당하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비록 상위자이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친한 사이로 보므로 '미안하다'의 쓰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회의석상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평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석에서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고 한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④ 하위자인 부장은 상위자인 사장에게 '죄송하다'를, 상위자인 사장은 하위자인 부장에게 '미안하다'를 썼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죄송하다'는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가까운 친구에게 사과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51) [2011년 4월 고3 전국연합] 38. [출제의도] 글의 논지와 부합된 언어의 특성 추론하기 ㉠ ⑤

㉠ 이 글은 기존에 있던 명칭(단어)을 활용해 개념이나 의미를 비유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①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②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③ 언어와 사교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④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52) [2011년 4월 고3 전국연합] 3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 정보 이해하기 ㉠ ⑤

㉠ '햇병아리'(n1)는 이미 존재하는 명칭 '꽃내기'(n2)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새롭게 명칭 '꽃내기'(n2)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① '햇병아리'와 '꽃내기'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명칭으로 유의 관계에 있다. ② '경험이 없는 사람'을 '새로 부화된 병아리'에 비유했다. ③ '새로 부화된 병아리'와 '경험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무경험자'라는 공통된 의미 차질이 있다. ④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의미를 기존의 '새로 부화된 병아리'에 더하면서 명칭 '햇병아리'는 다의어가 된다.

53) [2011년 4월 고3 전국연합] 40. [출제의도] 글의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 ③

㉠ ㄱ부터 ㄹ까지의 명칭 변이는 공간적, 시간적,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ㄱ은 아침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ㄴ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ㄷ은 두렵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ㄹ은 1960년 4월 19일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ㄹ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상암동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54) [2011년 3월 시도교육청] [44-46] (언어) 송철의, '어근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55) [2011년 3월 시도교육청] 44.[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양상을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④

㉠ 첫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파생어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어근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⑤ 마지막 문장에서 ‘백련 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에 한글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64) [2010년 6월 실시 평가원] 45. 추론적 사고(원리 적용의 적절성 판단) ㉠ ㉡

정답해설 :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 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 그대로 표기한 ‘런던(London)’이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의 병행을 하였고, <보기>의 표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기에 잘못된 것이다. ④, ⑤ 알파벳을 한글과 같이 음절 단위로 끊어 적고 있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65) [2010년 6월 실시 평가원] 46.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용) ㉠ ㉡

정답해설 :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기>의 주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영어의 ‘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일’로 적도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 내용을 따르면, ‘퐁’표기는 국어에 없는 음이다. 여기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면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호들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표기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파생어의 의미 도출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과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여 합성성의 원리 준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다섯째 문단에서는 어근의 의미가 파생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둘째 문단이 [A]에 해당하는데, 둘째 문단에서는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파생어의 사례와 그러하지 아니한 파생어의 사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파생어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56) [2011년 3월 시도교육청] 45.[출제의도] 글에서 다른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풀이’는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일(또는 그 결과)’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풀다’의 의미 중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등의 의미와 접사 ‘-이’의 의미로부터 ‘풀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중 일부와만 관련된다.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중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어떤 감정이나 분노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등과는 관련성이 없다.

57) [2011년 3월 시도교육청] 46.[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단어의 중심적(기본적) 의미는 그 단어의 사전 뜻풀이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풀다’의 중심적(기본적) 의미는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풀이’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되지 않고 주변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58) [2010년 10월 고3전국연합] [28~30] (언어) 심재기, ‘국어의 어휘 구조와 특징’

59) [2010년 10월 고3전국연합] 2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넷째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한자음이 변하여 고유어처럼 쓰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고유어와 결합할 때는 한자음이 변하지 않는다.

60) [2010년 10월 고3전국연합] 29.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가출( )’은 ‘집[家]을 나가다[出]’라는 뜻이므로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오는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을 보고 모든 한자어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61) [2010년 10월 고3전국연합] 3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조어 방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 ‘슬기롭다’의 ‘슬기’는 ‘사물의 이치를 밝혀 시비를 가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 내는 재능’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유어이다.

62) [2010년 6월 실시 평가원] [44-46] 언어, ‘한글 창제 후 문자 생활사에서 나타난 변화’

: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면서, 예상 독자에 따라 표기 방식을 달리한 책들이 간행되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각 표기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글 창제 후 독자를 고려한 다양한 표기 방식

63) [2010년 6월 실시 평가원]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 ㉡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의 전반부에서 이 책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였기에 한자를 음의 노출 없이 원문으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용비어천가’가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였지만 ‘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 3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 4문단에서 ‘두시언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는 것이 국어의 문자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표기에 적응해야 하고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음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⑤ 새로운 음으로 영어를 표기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음은 아무래도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66) [2010년 4월 고3전국연합] [언어] [19~21] 언어 제재 <출전> 임지룡, '장면의 인지적 해석에 관한 연구'

67) [2010년 4월 고3전국연합] 19. [출제의도] 글의 전체 추론하기 ㉠

㉠ 이 글에서는 장면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사고)의 작용으로써 동일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언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산물이다.'이다.

68) [2010년 4월 고3전국연합]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기 ㉡

㉡ 제시문에서 동일한 장면에 대하여 화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중의 하나의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개념화 한다고 하였다. <보기>는 장면의 해석에 작용하는 특정성의 기제와 관련된 구체적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은 모두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한 대안적 사고이며 하나의 장면에 대한 화자의 주체적 해석이다. 따라서, ㉠, ㉡이 ㉢보다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다. ① ㉠은 동일한 장면을 추상적인 상위 층위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 ㉡은 ㉢보다 여학생에 대한 구체적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③ ㉢은 ㉢보다 '계단'이라는 장소와 '책을 읽'는다는 행위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장면을 해석한 것이다.

69) [2010년 4월 고3전국연합] 21.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

㉢ ㉠은 화자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여 자신을 장면에서 분리한 해석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1인칭인 화자 자신을 '나'로 설정하여 장면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장면에서 분리하여 상위층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화된 지칭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⑤는 화자 자신을 장면에 포함시켜 '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

70) [2010.3 고3 전국연합] [44~46] (언어) 이익섭, '다의어'

71) [2010.3 고3 전국연합] 44.[출제의도] 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첫째 문단에서 다의 관계는 '두 가지 의미'의 관계이며, 셋째 문단에서 '공통된 속성'을 기반으로 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분류된다고 하였다.

72) [2010.3 고3 전국연합] 45.[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은 '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있다.', ㉡은 '마땅하여 기쁘다.'는 의미이므로, ㉠과 ㉡은 다의 관계이다. 한편 ㉢은 '단단한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 ㉣은 '몹시나 몹의 일부가 뜨거워지다.', ㉤은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다.'는 의미이므로, ㉠, ㉡, ㉣, ㉤은 다의 관계이다.

73) [2010.3 고3 전국연합] 46.[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 유사한 의미들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호에 여러 개념이 연결된 것, 즉 [A]선이 여러 개로 나타나야 한다. [오답풀이] ② 하나의 개념에 [A]가 여러 개로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개라는 의미이다. 이는 소리가 다르고 의미는 같거나 유사하다는 의미이므로, 동음이의어라고 말할 수 없다. ③ 하나의 단어에 의미가 여러 개 연결된다는 것은, 의미가 단일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해진다는 뜻이 된다.

74) [2009년 10월 고3전국연합] [48~50] (언어) 전혜영, '국어에 나타나는 남녀 차이'

75) [2009년 10월 고3전국연합] 48. [출제의도]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첫째 문단은 우리말에 반영된 남녀 차이와 차별, 둘째 문단은 지칭어에 반영된 차이와 차별, 셋째 문단은 표현에 반영된 차이와 차별, 넷째 문단은 남녀차별이 없는 사회상에 대한 기대를 각각 중심 화제로 구성되었으므로 전체의 중심 화제는 ③이 적절하다.

76) [2009년 10월 고3전국연합] 4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끝 문단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면 그 결과가 언어에 반영된다고 했으므로 ⑤는 주중( )이 바뀐 반응이다. 첫째, 셋째 문단 끝에서 ①을, 셋째 문단의 부정적 묘사어와 관련한 부분에서 ③을, 차이와 차별을 언급한 부분들에서 ④를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아버지, 어머니'와는 다른, 화자의 성별에 따른 대등한 지칭어이므로 차이가 반영된 표현이다.

77) [2009년 10월 고3전국연합] 5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보기>는 남녀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중성적 표현을 예로 제시하였다. ①은 처녀의 순결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순서의 개념만 포함하도록 고쳤고, ②는 남성이나 여성을 의미하는 특정 표현을 배제하였으며, ④는 좋지 않은 것에 여성을 관련시켜서, ⑤는 좋은 것에 남자를 관련시켜서 각각 고친 것이다. 그러나 ③은 직업을 천시하는 어감을 가진 말을 미화시킨 것이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다.

78) [2009년 9월 실시 평가원] [33-35] 언어, '비교 언어학을 활용한 언어의 조어 추정'

: 이 글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언어의 변화 과정을 추정하는 방법, '외적 재구'와 '내적 재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외적 재구는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하는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내적 재구는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언어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적·공간적 흔적들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제] 언어의 옛 모습을 추론하는 방법

79) [2009년 9월 실시 평가원] 33.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

㉡ 언어 간의 음운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88) [2009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18.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 찾기) ㉠ ①

정답해설 : '박쥐'를 '빨쥐, 뽀쥐'로, '부추'를 '술, 쫄, 정구지'로, '진달래'를 '참꽃, 연달래'로 부르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의 예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의미하는 '아재'가 지역에 따라 '고모'나 '이모'를 의미한다는 b의 사례는 ㉠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변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89) [2009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19.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및 적용) ㉠ ②

☐ <보기>는 표준어 '노을'에 대한 가상의 언어 지도이다. <지도 A>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호로 표시한 진열 지도이고, <지도 B>는 앞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등어선으로 표시한 해석 지도이다. 진열 지도인 <지도 A>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하는데, '노을'과 '노으리'가 비슷한 모양인 '□'과 '■'의 부호를 사용한 것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 ◇, ☆' 등은 '노을'의 방언형 중에서 형태가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한 부호일 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답피하기] ④ <지도 B>를 보면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굵게 등어선으로 표시하였다. ⑤ <지도 B>를 보면 <지도 A>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이 무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편집자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90)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19~22] 언어 <출전> 왕문용, 「국어와 의 사소통」

91)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1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⑤

[해설] ⑤ 하나의 발화에서 문장의 의미 해석 외에도 화용상의 암시와 대화상의 암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이다. 즉, 원활한 의사소통은 언어지식과

어거리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조어( )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를 근거를 유추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의 유사성이 확인되고 친족 관계가 입증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조어에 더 가깝다. ④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80) [2009년 9월 실시 평가원] 34.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 ④

☐ 언어의 변화 과정에는 시간적·공간적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다른 언어를 참고하지 않고 그 흔적을 통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해 보는 방법이 내적 재구이다. 한 언어 안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떤 단어의 어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a의 경우 내적 재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b의 경우에도, 한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옛 모습을 추정하는 내적 재구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81) [2009년 9월 실시 평가원] 35. 추론적 사고(제시된 자료의 탐구) ㉠ ②

☐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주어와 몽고어의 경우, '불다'와 '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f/와 /h/의 대응을 통해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친족 관계 증명에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2)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언어 [24-26] 김광해 외, 국어지식탐구

83)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 ②

☞ 은유는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 책략이다. 표현 불가능한 대상은 은유를 통해 언어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인식 불가능한 세계는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표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84)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 ②

☞ '사랑에 빠지다'는 '물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현한 은유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마치 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같아지게 되며,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물에 온몸이 잠기는 것처럼 사랑에 온몸이 잠기게 된다.

85) [2009년 7월 고3전국연합] 2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 ⑤

☞ ㉠과 '내 마음은 호수다'는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인 존재를 통해 표현한 존재론적 은유이다. ㉡는 목표 영역인 추상적인 '자존심'을 '그릇'이라는 근린 영역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릇에 금이 가다'의 상황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는 존재론적 은유, ㉣는 '상승세/내림세'로 쓰이는 '위-아래'와 관련된 일상경험에 기초한 방향적 은유에 해당한다.

86) [2009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17-19] 언어,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

: 이 글은 지리학의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여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현상을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지리학의 한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도에 담긴 언어 형태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의 방법 및 의의

87) [2009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17.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 ③

정답해설 : 방언 연구에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지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기에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에 대한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③ 방언형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어떤 방언형이 두루 쓰이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언어 지도는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에, 순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추리 규칙, 문장의 의미 해석, 믿음, 추론 등에 대한 언급은 모두 부분적인 언급에 불과하다.

92)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㉞ ②

[해설] ② 대화상의 암시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의 지식이 없을 때 두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두 말을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즉, 대화상의 암시 요건은 문장의 의미 해석을 이끌어 내는 언어 지식, 전제를 이끌어 내는 추리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93)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㉞ ③

[해설] ③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라는 발화에서 ‘는’ 조사가 쓰인 것으로 보아 ‘지난번에는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문장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대화상의 암시가 아니라 문장 의미 해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① ‘어제 열린 체육대회’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문장 의미 해석이다. ② 관련되는 발화지만 체육대회와 관련된 공동 지식이 없으므로, 언뜻 듣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음의 발화에서 ‘당연하다’를 이끌어내고 이로부터 ‘B의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화상의 암시에 해당한다. ④ 문장 의미 해석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경희가 다친 것을 원인으로 윤호가 마음이 아프겠다고 발화하는 것은 윤호가 경희를 좋아하고 있다는 상황에 의해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으로 화용상의 암시에 해당한다.

94) [2009년 4월 고3전국연합] 22. [출제의도] 서술어의 제약 이해하기 ㉞ ①

[해설] ① ‘견주어’는 ‘둘 이상의 사물을 질( )이나 양(量)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의 뜻이므로 항상 제약을 받는다. ② ③ ④ ‘가르치다’, ‘말하다’, ‘맞히다’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⑤ ‘동일하다’도 ‘결합하다’와 비슷하게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오지만, 이 문장에서는 ‘동일한’ 꼴로 쓰여 ‘바로 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95)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44~46] 언어 <출전> 박영순, ‘한국어 의미론’

: 그동안 언어 현상은 주로 양분적 방법에 의해 기술되어 왔다. 글쓰이는 양분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후, 국어의 ‘요청성’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언어 현상이 정도적 방법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96)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44. [출제의도]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 ②

■ 글의 1문단에서는 아홉슨이 도입한 양분적 방법의 한계, 2문단과 3문단에서는 범주화된 문형과 그 의미 자질이 불일치하는 사례, 4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형에서 나타나는 요청성의 정도 차이, 5문단에서는 국어에서 정도성의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명명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자질은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97)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45.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 ⑤

■ <보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문형에 나타난 의미 자질이나 그 정도성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첫 번째 말은 할 일을 잘 하라는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지만, 아버지의 두 번째 말은 용돈의 액수를 묻는 의문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니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대비한다고 하여,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98) [2009년 3월 고3전국연합] 46. [출제의도] 핵심 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 ④

■ ④의 사례는 양분적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동문과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도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답풀이 ] ①은 국어의 언어 현상 중 반의성의 정도를, ②는 동의성의 정도를, ③은 의문성의 정도를 다루고 있고, ⑤는 양분되어 있는 격조사나 보조사의 기능을 정도성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99)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4-37] 화행이론에서의 발화의 적절성 조건

지문해설 : 발화의 적절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시 예비조건, 진지성 조건, 기본 조

건으로 나뉜다. 적절한 발화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 발화의 적절성 조건

100)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㉞ ④

정답해설 : 적절한 발화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발화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④의 내용은 위 글에서 말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오답피하기]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각 상황마다 위배되는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예비 조건이 다른 적절성 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적절성 조건은 모든 발화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⑤ 일부러 적절성 조건을 어김으로써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늘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101)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5.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이해) ㉞ ④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화행 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글은 딸의 생일 선물을 잊은 아빠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글을 시작한 후에 화행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발화의 적절성 판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것 외에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까지 소개하면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주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발화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화행이론만으로는 발화와 상황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라) 단락을 앞 단락을 뒷받침하는 단락이 아니라 앞 단락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락이다.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해설 : '총총'은 편지글을 쓸 때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2) [2008년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언어][27~29] 출전 : 임흥빈,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113) [2008년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277. [세부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 ㉡

[해설] ㉠ '속담과 격언에 나타나는 무조사구는 보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아니라 격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은 4문단에서, ㉡는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 5문단에서, ㉤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 [2008년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28. [주장의 근거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 ㉡

[해설] ㉠ 생략설에서는 무조사구를 '온전한 격조사구에서 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관점은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면 의미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 즉 "꿀을 '꿀'과 같이 복원해서는 원래의 뜻을 거의 다 잃게 된다.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표현 가치 혹은 기능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표현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 ㉠ 복원 방법은 문장의 성분에 따라 조사를 복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복원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 ㉢ 4문단에서 '무조사구는 비격식적이고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발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즉 '간파'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문단에서 무조사구가 사용된 격언과 속담의 예를 들어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면 오히려 어색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무조사구의 용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

102) [2008 실시 고3 9월 평가원]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의 적용) ㉠ ㉡

정답해설 : ㉠의 상황을 이해한 후, 이 상황에서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찾는 문제이다. <보기1>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보기2>에서 딸은 아빠가 그렇게 큰 꿈 인형은 사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 나도 사 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아빠가 누나에게 그런 꿈 인형을 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꿈 인형을 사달라는 것이다. 즉 예비조건을 어기지 않은 요청이 된다. 엄마와 할머니가 구두를 언급하는 것도 꿈 인형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할아버지가 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꿈 인형을 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

103) [2008년 실시 고3 9월 평가원] 37.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 ㉡

정답해설 : ㉠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을 한순간 미처 생각하여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중요한 약속을 잊다', '제삿날인 것을 잊었다.'는 등의 경우에 쓰인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다'는 ㉠이다. [오답피하기] ㉡, ㉣, ㉤ 일하거나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다. ㉢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

104) [2008년 7월 고3전국연합] \*\* 언어 \*\* 출전 : 노명완, <문장의 결합 방식과 응축>

105) [2008년 7월 고3전국연합] 3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 ㉡  
대명사화를 도식화하면 ◎♡◎☆가 되어야 한다.

106) [2008년 7월 고3전국연합] 31.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 ㉡  
ㄱ은 '무엇이 어떠한가'의 유형인 보문에 의한 내포이다. ㄴ은 이어진 문장, 즉 접속에 의한 결합이고, ㄷ은 관계절을 내포한 것이다.

107) [2008년 7월 고3전국연합] 32.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 ㉡  
㉤는 준서와 민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준서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라고 해야 한다.

108) [2008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40-42] 언어,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 이 글은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을 문체적, 구어적, 표기적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언간은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가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음에 비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재점'이나 생략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표기가 가능하다.  
[주제]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109) [2008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40.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 ㉡

정답해설 :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피하기] ㉢ 1문단에 보면 언간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 3문단에 보면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한 편지글이라 명시하고 있다. ㉤ 1문단에 지금까지 전해진 언간들 중,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110) [2008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41.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상황의 적용) ㉠ ㉡

정답해설 : 언간에서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말심'은 중앙어의 일반적 어형인 '말슴'의 방언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16세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호칭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자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6세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한테'는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향후여'의 축약형인 '향후'가 위 글에 인용된 언간에 쓰이고 있다. ㉤ 언간의 끝은 '이만 적습', '여의치 못' 등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쓰기도 했다.

111) [2008년 실시 고3 6월평가원] 42. 추론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사례 찾기) ㉠ ㉡



글의 논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15) [2008년 5월 고3 경기학업성취도평가] 29. [제시문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사례 분석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핵심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다른 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 ①

[해설] ① ‘ㄱ’과 ㄱ1, ㄴ과 ㄴ1, ㄷ과 ㄷ1은 모두 조사가 사용되지 않으면(무조사구) 활성화 상태가 높고, 사용되면 활성화 상태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들이다. 즉 활성화 유무와 조사 사용 유무가 대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ㄱ 과 ㄱ1에서 ㄱ의 ‘누구’가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의 ‘누구를’보다 활성화 상태가 높은 발화로 볼 수 있다. ② 오랫동안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가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 ③ 갑자기 팔이 아플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가 낮다. ④ 조사가 사용되지 않는 무조사구는 활성화 상태가 ‘높은’ 상황에서 발화되므로, “택시”는 활성화 상태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화”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택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버스’는 새로운 정보이므로 활성화 상태가 낮다. 따라서 위 글의 논지에 따르면 격조사가 생략되지 않는 것은 활성화 상태가 낮다고 보아야 한다.

- 116)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언어] [43~46] 출전 : 허용, 말소리의 특징과 우리말 발음

- 117)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3. [글의 전개상 특징과 핵심 화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화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 ②

[해설] ② 이 글은 특정 음운인 ㅂ(b)과 ㅌ(w)의 영향 관계와, 자음과 모음이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 118)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4. [세부 정보의 파악과 미루어 알기] [출제의도] <보기>의 사례 자료들이, 자음과 모음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다. ㉠ ①

[해설] 이 글의 3, 4문단에서 모음으로 인해 자음이 변하는 경우인 구개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은 우리말의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음과 모음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문단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에서 ㅂ(b)이 ㅌ(w)로 바뀌거나 넘나드는 언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사례이다. ㉢, ㉣는 자음 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논지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119)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5.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 ③

[해설] ③ 이 글은 음절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니므로, ‘자음이 없이 모음 하나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과 ②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1문단에서, ⑤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0) [2008년 4월 고3전국연합] 4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맥락을 통해 특정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

[해설] 이 글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것은 ①의 경우이다. ②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으로, ③은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뜻으로, ④는 ‘병을 앓다가 낫다’의 뜻으로, ⑤는 ‘뾰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121) [2007년 10월 고3전국연합] [45~47] [언어] 박영준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箕, 末는 한자의 뜻을 빌려 이름을 삼았다고 추정한다.

- 122) [2007년 10월 고3전국연합] 4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④

자음의 명칭을,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는 것은 두 글자, 첫소리에만 쓰이면 한 글자로 하였다 고 하였으므로, 현대 자음의 명칭이 모두 두 글자로 쓰인 것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23) [2007년 10월 고3전국연합] 46.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③

<훈몽자회>는 한글 자모의 명칭을 밝히고 있으며, <보기>는 한글 자음의 음가를 설명하고 있다.

- 124) [2007년 10월 고3전국연합] 47.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④

<보기>에서 ‘한자는 해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125) [2007년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7~19] 언어, ‘발음기관의 구조와 작동 원리’

: 이 글은 인간 발음 기관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른 모음과 자음의 발음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소리는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과 그 작동 원리는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음의 경우에는 후두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자음의 경우에는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소리가 분화된다.

[주제] 발음기관의 작용에 따른 자음과 모음의 발음 원리

- 126) [2007년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7.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 파악) ㉠ ③

정답해설 :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 작동 원리는 같다고 첫 번째 형식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이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란 언급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3단락을 보면, 후두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모음의 분화에 관계를 한다고 나와 있다. ② 4단락에 발음에 관계되는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소리값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였다. ④ ‘마찰음’은 공기를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 ⑤ ‘비음’은 코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코가 막히면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 127) [2007년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8.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 ③

정답해설 : 인간이나, 침팬지, 오랑우탄은 이 후두의 위치가 모두 목구멍 정도의 높이로 태어난다. 모음은 이 후두의 위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모음은 후두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후두가 목구멍 아래쪽에 자리 잡게 되면서 모음이 분화할 수 있는데 비해, 유인원들은 그 위

조사가 붙은 말은 자립형식이지만 어미가 붙은 말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미는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6)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의 제시 ㉔ ㉕

‘하고, 예, 랑, 이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반면에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어이다.

137) [2006년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㉔ ㉕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머릿속 사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인 단어 연상 실험에서 자극어에 대한 반응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하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첫째 항목에서 머릿속 사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② 단어 연상 실험에서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③ 5문단의 둘째 항목에서 정리하였듯이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④ 4문단의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있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138) [2006년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4.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㉔ ㉕

정답해설 : A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 사진의 조직 방식은 사진과는 달리 한글 자모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4 문단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 했으므로 사진에서처럼 한글의 자모 순서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㉕에서 ‘장어, 정어, 정우’는 모음의 근접성이 있는 단어들끼리 모아 놓은 것이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은 선천적으로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후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므로 후두가 목구멍 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음 분화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경우에도 갓난아이일 때는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후두의 위치가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 ④ 화석 인류의 발생 기관을 재구해 보았을 때 몇 개의 모음만 발생되었다는 것은 현대인에 비해 완전히 모음이 분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므로, 후두의 위치가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제시된 화석 인류의 증거를 통해 볼 때, 인간이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

128) [2007년 9월 실시 고3전국연합] 19.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㉔ ㉕

정답해설 :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자음의 조음 위치는 각각 ‘9’와 ‘5’에 해당한다. 모음 ‘ㅓ’는 입과 목 안의 공간 크기가 비슷한 상태에서 발음하고, ‘ㅣ’는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여 발음 한다고 했으므로 각각 ‘㉔’, ‘㉕’에 해당한다.

129) [2007년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0-42] 언어, ‘소쉬르의 공시태 개념’

: 이 글은 공시태를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로 본 소쉬르의 언어학적 견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태와 공시태를 동의어로 본 소쉬르의 견해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기술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증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주제] 소쉬르의 공시태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

130) [2007년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0.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㉔ ㉕

정답해설 : 파울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 연구에는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소쉬르는 화자가 발화한 당시의 언어 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131) [2007년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㉔ ㉕

정답해설 : 본문에 제시된 공시태와 통시태의 개념을 ‘좁쌀’이라는 단어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공시태는 동시성의 축을 말하고,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말한다. 따라서 ‘조밭’이 움운 변화를 거쳐 ‘좁쌀’이 된 것은 통시적 연구(㉔)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과 중세 때 사용한 ‘조밭’은 각각 그 당시의 언어 현상에서 바라보는 공시적 연구(㉕, ㉖)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밭’은 중세 국어에서의 공시태이고, ‘쌀’은 현대 국어에서의 공시태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㉔ ‘좁쌀’은 현대 국어의 공시태이므로, ‘좁쌀’에서의 ‘ㅂ’이 ‘밭’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132) [2007년 6월 시행 고3학력평가] 42. 추론적 사고(중심 개념의 비유적 표현) ㉔ ㉕

정답해설 :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소쉬르는 ‘공시태(㉔)’를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태(㉕)’로 보았다. 언어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느 한 순간만을 보면 정지되어 있는 ‘정태’로 보이지만,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공시태’로서의 개념을 소쉬르는 간과했던 것이다. [오답피하기] ㉔ (라)에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므로,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되어 버리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㉕ 악보에 있는 ‘음표’라는 기호를 실현한 것이 ‘소리’이다. ㉖ ‘산’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대상을 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33)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㉔ ㉕

지문에는 조사가 어떤 경우에 생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㉔과 같은 의문은 이 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134)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4.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㉔ ㉕

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며, 보조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구실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5) [2006년 10월 고3전국연합] 35.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㉔ ㉕

[ 답피하기 ] ① ‘문’과 ‘바람’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② ‘근경’과 ‘장’에는 의미가 유사하기에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③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동시에 떠올라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는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④ ‘현미경’과 ‘망원경’은 서로 수준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39) [2006년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②

정답해설 : ㄱ의 ‘고무’와 ‘줄’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ㄴ의 ‘잠자리’와 ‘채’ 역시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ㄷ의 ‘두껍다’와 ‘얇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ㄹ의 ‘남자’와 ‘사람’은 하위어와 상위어의 관계이기에 상위적 연결 관계의 단어이다. ㅁ의 ‘북쪽’과 ‘남쪽’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140) [2006년 6월 실시 고3전국연합] 46.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 ④

정답해설 : ‘오리가리’는 의미상 ‘오리3’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머릿속 사진의 방식대로 정리한다면 두 낱말은 가까운 곳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머릿속 사진은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에 ‘오리가리’가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오답피하기] ① 머릿속 사진은 사전에서처럼 한글 자모 순서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나 주제를 중심으로 단어들 연결되어 있다. ② 두 단어는 비록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기에 ‘오리1’은 ‘동물’의 단어들과 같이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머릿속 사진은 일정한 주제나 의미상 연관이 있는 단어끼리 묶이기 때문이다. ③ ‘오리발’, ‘오리걸음’의 ‘오리’는 ‘오리1’에서 나온 것이므로 머릿속 사진에는 이 단어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묶여야 자연스럽다. ⑤ 머릿속 사진에는 유사한 단어끼리 묶인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나,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끼리 묶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141) [2006년 4월 고3전국연합] 57.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 ③

[해설] 셋째 문단에서 ‘유추의 본질은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첫째 문단에서 유추의 모형은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①), 둘째 문단에서 음운 변화가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②), 다섯째 문단에서 단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는 경향이 짙은 언어는 유추에 따른 언어 창조가 가장 알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⑤), 마지막 문단에서 유추된 어휘나 문법 형태소도 사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④).

142) [2006년 4월 고3전국연합] 58.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하기 ㉠ ②

[해설] 이 글은 유추의 모형에 따라 언어가 매우 생산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셋째 문단의 ‘공통 요소를 가지고 기억하기 편하게’를 통하여 언어의 편의성(①), 간편성, 통일성(⑤), 기억의 용이성(④)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를 개성 있게 사용하려 한다’(②)는 것은 단어를 유추의 모형에 따라 통일되게 사용하려는 특성과 배치된다. 그리고 둘째 문단을 통해 음운 변화는 규칙에 맞는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바뀌어 사용하려고 한다(③)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43) [2006년 4월 고3전국연합] 59. [출제 의도] 정보의 개념과 관계 파악하기 ㉠ ③

[해설] ㉠은 통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유추 심리로 작용하는 모형이고 단어들은 이 모형에 따라 변화하고, ㉢의 ‘처음’, ‘일흔’, ‘소꿉’은 서로 ‘이름씨’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는 유추 작용에 의해 변화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는 명사에서 다시 명사로 파생된 형태이다.

144) [2006년 4월 고3전국연합] 60. [출제 의도] 어휘 구조 파악하기 ㉠ ⑤

[해설] <보기>는 ‘아스라이’가 ‘하다’가 붙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로 파생된 단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스곳이’ 역시, ‘하다’가 붙은 형용사 ‘다스곳하다’의 어근 ‘다스곳’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 ‘다스곳이’로 파생된 단어이다. ‘다름없이’와 ‘감쪽같이’, ‘너그러이’는 형용사의 어근이기는 하지만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의 어근으로 ‘아스라이’와 차이가 있다. ‘가을같이’는 명사이다.

145)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7.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 ①

지문에서 ‘읽었다’에서 ‘-었다’는 실질 형태소에 붙는 의존 형태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읽-’은 실질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이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146)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⑤

형태소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단어의 관별 기준이 자립성과 분리성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글은 분리성이 단어의 관별 기준임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한 것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147)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 ⑤

주시경은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어미부 전체를 단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는 ‘한, 사람, 이, 노래하, 면서, 가, 오’의 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된다.

148)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50. [출제의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대체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①

관별( )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한다는 뜻인데, 이 문맥 속에서는 여럿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골라낸다는 뜻으로 쓰였다.

149) [2005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0.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 ②

정답해설 : 첫째 문단의 처음 두 문장(인간의 심리 구조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 셋째 문단의 첫 문장(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넷째 문단의 첫 문장(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알 수 있다.

150) [2005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1. 추론적 사고(논지에 맞는 사례 찾기) ㉠ ①

[해설] 철수와 영수의 대화에서 생략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대화의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인지 환경'은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는 환경 내용이 있어야만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철수와 영수의 대화에서, '영수는 화장실에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환경) 내용을 서로 인지하고 있을 때 의사 소통이 이루어진다.

156)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5. 내용의 추리·상상적 이해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 ㉡

[해설] ㉠에서 발화행위의 적합성은 최소의 메시지에서부터 최다의, 최적의 정보를 찾아내야 한다고 했으므로 체육관 문에 붙일 광고문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157)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6. 문맥에서의 어휘 의미 이해 [출제의도] 문맥에서의 어휘 의미 파악하기 ㉠ ㉡

[해설] 의사 소통의 과정에서 주어진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 ㉡, ㉢, ㉣ 모두는 '발화 맥락'을 의미하지만 ㉢ '한 노인의 의도된 행위'는 주어진 화자의 의도에 해당한다.

158)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0. [출제의도]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리한다. ㉠ ㉡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문자와 의미는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맞춤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다양한 표기법이 공존했다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여러 형태로 표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와 의미 사이의 필연성과는 거리가 멀다.

159)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1. [출제의도]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

문자와 말소리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문에 제시된 맞춤법 원리의 미비점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는 어

답해설 : [A]는 대부분의 '사은유( )'가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바늘귀'의 경우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인간의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사물을 표현한 예이다. 하지만 '입방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의미(입방아 : 남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방정맞게 입을 놀리는 일)를 표현하기 위해 '방아'라는 사물을 빌려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신체의 일부인 '허리'를 빌려서 '하고 있는 말의 중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빌려서 '상에 붙어서 그 상을 받치는 다리'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신체의 일부인 '목'을 빌려서 '병의 아가리 아래쪽의 잘룩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신체의 일부인 '코'를 빌려서 '버선의 앞쪽 끝에 뾰족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부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151) [2005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 ㉡

정답해설 : [B]의 논지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은 표현도 단순하게 나타나고, 복잡한 개념은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을 표현하지만, 그 반대로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어떤 형태소를 붙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번처럼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 경우는 개념이나 표현이 활용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B]의 논지를 보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단수 개념인 '너, 저'에 '-회'가 붙어 복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 양수사 '셋, 넷'은 개념이나 표현이 단순한 데 비해, 서수사인 '셋째, 넷째'는 개념이나 표현이 모두 복잡하다. ㉢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사말 '사장, 과장'에 비해 개념이나 표현이 더 복잡하다. ㉤ 피동사 '보이다, 먹이다'는 능동사 '보다', '먹다'에 비해 개념이나 표현이 더 복잡하다.

152) [2005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3. 논리적 사고(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파악) ㉠ ㉡

정답해설 : ㉠은 앞문장이 주장(결론)에 해당하고 뒷문장이 근거(전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뒷문장에 나타난 근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 경험적 사례이고, 앞문장에 제시된 주장은 그 사례로부터 잠정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므로 ㉠은 귀납적 추론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뒤의 사례에 의해 앞의 잠정적 주장이 뒷받침된다. ㉡번도 뒷문장에 나타난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진술이 경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경험적 사례에 해당하고, 그 사례가 앞문장에 제시된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잠정적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귀납적 추론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뒷문장에 나타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미 증명된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며, 앞문장에 있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뒷문장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연역해낸 확정적 진술이다. ㉢ 뒷문장에 나타난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대전제)'와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소전제)'는 명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고, 앞문장에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결론)'는 명제는 뒷문장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연역해낸 확정적 진술이다. ㉣ 뒷문장에 있는 '우리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명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고, 앞문장에 있는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뒤에 있는 일반적 진리로부터 이끌어낸 확정적 주장이다. ㉤ 뒷문장에 있는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지만 비유만으로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근거로 하여, 앞문장에 제시된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는 확정적 주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153)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3-46] 언어

154)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3. 내용의 사실적 이해 [출제의도] 본문에 나타난 전체 정보 파악하기 ㉠ ㉡

[해설] ㉠은 (나)의 마지막 문단의 "사람들은 하나의 메시지로부터 최다의 정보를 찾아내려 한다."에서, ㉡는 (가)의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맥락 즉, 기호 외적 정보가 필요하다."에서 ㉢은 (나)의 첫 문단 "특히 그러한 적합성은 어떤 신정보와 구정보가 연결되고 그것이 추론의 전제로 사용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에서, ㉣는 (가)의 1, 2문단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쇄된 기호 체계가 발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에서 그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나)의 첫 문단과 끝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의사소통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의사 소통 행위의 본질이라 했다.

155) [2005년 5월 고3전국연합] 44. 내용의 추리·상상적 이해 [출제의도] 생략된 세부 정보 추리하기 ㉠ ㉡

수 없는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전에 정해진 맞춤법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소리대로’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렇게 정해진 표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와 괴리를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개정은 이러한 괴리를 반영해야 한다.

160)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2. [출제의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 ④

맞춤법의 원칙 중 ‘소리대로’의 원칙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쓸 때, 본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논거를 찾는 문제이다. <보기>의 주장은 맞춤법이 ‘소리대로’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대로’뿐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도 필요하다는 논거를 찾으면 된다. “‘소리대로’보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법이 시각적으로 뜻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보기>를 반박하는 논거로 적절하다.

161)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3. [출제의도] 사례 분석을 통해 원리를 추론한다. ㉠ ①

본문에 설명된 맞춤법의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소리대로’의 원리는 개정하는 과정에 ‘현재’의 말의 발음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는 의미에 따른 단어의 고정된 형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과 ㉡은 ‘현재’의 발음을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은 의미에 따른 단어의 고정된 형태를 밝히는 쪽으로 개정했다.

162) [2005년 3월 고3전국연합] 44. [출제의도] 원리에 근거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 ②

접미사 ‘-시키다’의 기능 및 활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시키다’는 남이 어떤 동작을 하게 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하다’를 써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시키다’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다’를 써도 자연스러운데, ‘-시키다’를 쓴 사례를 찾으면 된다. ㉡의 ‘금지시키기는’은 ‘금지하는’으로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데, ‘-시키다’를 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63) [2004년 10월 고3전국연합] 57.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②

친족 호칭어는 친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넷째 문단에서는 친족이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호칭어를 가족 사이에도 사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64) [2004년 10월 고3전국연합] 58. [출제의도]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포괄할 수 있는 언어관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④

㉠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발달된 우리말의 호칭어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문화 또는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언어는 문화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다.

165) [2004년 10월 고3전국연합] 59.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③

‘조카’의 사회적 지위는 ‘교수’이다. 따라서 ‘가게 주인’이 ‘조카’에 대해 ‘교수’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에 비해 높게 호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당숙’은 ‘조카’가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여 ‘교수님’이라는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게 주인’은 ‘당숙’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어를 통해 대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친족에게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실제 지위보다 높게 사용하는 것도 모두 유교 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게 주인’과 ‘당숙’이 사용한 호칭어에는 유교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66) [2004년 10월 고3전국연합] 60. [출제의도] 일상 생활에서 호칭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①

아내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에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고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정확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67)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 ①

: 언어 체계에서는 제체 자체가 추상적인 만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문에서도 2, 3, 5문단에서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성격상 ㉢(상반된 견해 절충)과 ㉣(문제점 도출)은 활용하기 어려운 서술 방식이고, ㉤의 [A] 부분에서 활용되었으나 그것이 통념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168)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0. 정보 수용의 적절성 평가 ㉠ ④

: 제시문에 따르면 환유는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

으로, 그 표현을 살펴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5문단).’고 하였으므로, ㉣에서처럼 특정 사물이나 구체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 글 전체에서, 환유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문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 ㉡ 다섯째 문단에서 환유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에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 셋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 소개된 예와 유사한 경우이다. ㉤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1. 개념의 이해 ㉠ ④

: [A] 부분에서, 환유는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에서 말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170) [2004년 9월 실시 고3평가원] 42. 어구에 대한 이해의 심화 ㉠ ②

: ㉠은, 대상의 부분으로써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확대 지칭의 경우이다 그런데 ㉡에서는, 흔히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하지만 ‘비둘기’가 ‘평화’의 일부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 ㉢의 ‘인접성’이란 용어의 이름으로 그 내용을 지칭하는 의미 전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된다. ㉣ ‘김 과장은 자리를 옮겼다.’에서 ‘자리’는 위치를 뜻하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자리를 ‘직책’이나 ‘직장’이라는 환유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 ‘식당’과 ‘병원’은 ㉠에서 말한 주어진 ‘상황’에 해당한다.

171) [글의 중심 내용 및 집필 의도의 파악] ㉠ ②

▶ 이 글에서는 먼저 ‘떠어쓰기’를 하는 것은 의미 단위별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을 밝힌 후, 떠어쓰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 최소의 자립 형식인 ‘단어’라고 설명

178) [2010년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40. [구체적 정보의 이해를 통한 자료의 해석] ㉞ ③

㉞ ㄷ의 '면도칼'은 '면도( )'에 '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앞뒤 단어들의 의미 영역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두 성분 중 어느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부분이 되는 구조인 '부분 중복'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성분의 의미 영역이 전체적으로 겹치는 '전체 중복'으로 이해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⑤ ㄱ의 '공감을 느꼈다', ㄴ의 '어려운 난제', ㄷ의 '면도칼', ㄹ의 '죽발'이 중복 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문단에서, 중복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ㄱ~ㄹ에 들어 있는 중복 표현은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가 중복 구조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중복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179) [2010년 3월 고3중앙 전국모의] 18. [미루어 알기] ㉞ ①

㉞ ㄱ : 1, 2문단에서 과거 사건을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았-/었-'이나 '-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말의 과거 표현은 용언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L : 1 문단에서 '-았-/었-'은 어떤 사건이 발화시인 지금보다 앞선 사건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동작이 끝난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았-/었-'이 발화 이후에 사건이나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낸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ㄷ : 3문단에서 '-더-'는 회상이라는 성질 때문에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쓰이지 못하며,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서술어들은 주어가 3인칭인 경우 '-더-'와 함께 서술어로 쓰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더-'로 인해 주어와 서술어의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ㄹ : 2문단에서 '-더-'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다는 발화자의 서술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을 뿐, '-더-'가 '-았-/었-'보다 더 과거의 일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고 있다. 그런 다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과 관련하여 의미 결합 구조를 고려하여 의미 덩어리별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의미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㉞ ① 3~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단어 각각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결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띄어쓰기를 쉽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띄어쓰기 관련 맞춤법 규정이 실제 언어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는 띄어쓰기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단어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단어의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⑤ 글쓴이는 단어가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172)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㉞ ④

㉞ 3문단의 '앞쪽을 띄어 쓴 '중세 미술연구'는 '중세에 행해진, 미술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가 되고, 뒤쪽을 띄어 쓴 '중세미술 연구'는 (중세나 근대나 현대에 행해진) '중세미술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영화전문가'처럼 앞쪽을 띄어 쓰면 '일본에 있는 영화 전문가'. 즉 '영화 전문가인 일본 사람'을 나타내게 된다. 뒤쪽을 띄어 쓴 '일본영화 전문가'가 '일본 영화에 대한 전문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① '삼학년'은, 2문단의 "육층"처럼 순서를 나타낼 때나 '800원'처럼 숫자와 어울렸을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예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② '이 말 저말'은 2문단의 '이때', '한일 두일'처럼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올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예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먹어 버렸다'에서 '먹다'는 본용언이고 '버리다'는 보조용언이다. 2문단의 '보조 용언 역시 의미상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예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먹어 버렸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있다. ⑤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미 결합 구조를 따져 보았을 때 '지구'와 '중심' 사이의 친화성이 '중심'과 '셀' 사이의 친화성보다 높으므로 '지구중심셀'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하다.

173) [2010년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48. [개괄적 정보의 확인] ㉞ ④

㉞ 2문단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 현상의 '제약 조건'이라 할 수 없다. 4, 5문단에서는 첨가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약 조건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

174) [2010년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49. [자료의 분석과 탐구] ㉞ ④

㉞ ㄱ은 생략이 일어나는 위치로 보아 '어중음 생략'이고, ㄷ은 어말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 2문단에서 어중음 생략의 예로 제시된 단어들 중, 현대 국어에서 찾은 '쓰어라→써라', '푸었다→꿘다'의 경우를 보면 어간의 모음 'ㄹ'과 'ㅌ'가 탈락하고 있다. 이 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ㄱ은 어간의 자음 'ㅎ'이 탈락하고 있다. 그런데 ㉞에서는 ㄱ을 어말음 생략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오답해설] ② '조희 > 조이'의 과정에서 생략이, '조이' 중이의 과정에서 첨가가 일어났다. ③ ㄱ과 ㄴ에 따르면 '하양'은 'ㄹ'이나 'ㄹ' 같은 유성음 앞에서 'ㅎ'이 생략된다.

175) [2010년 5월 고3 중앙모의고사] 50. [자료의 해석과 판단] ㉞ ②

㉞ ①은 어중음 생략의 예이다. '쓰-'와 '어라', '푸-'와 '었다'가 결합할 때, 각각 어간의 'ㄹ', 'ㅌ'가 탈락하기 때문에 어중음 생략의 사례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경우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음이 생략되지는 않고, 'ㄱ'과 'ㄴ'이 통합되어 'ㄴ'이 된 것처럼 두 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①과는 차이를 보인다. <보기>의 경우는 '축약'이라고 한다.

[오답해설] ① <보기>의 경우 없던 음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두 음이 축약된 것이다. ③ <보기>와 ①은 모두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기>는 축약이고, ①은 탈락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음운 현상이다. ④ <보기>는 두 음이 하나의 음으로 줄어들었지, 탈락된 것이 아니다. ①의 경우는 음을 탈락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음을 탈락시키는 동음 생략은 아니다. ⑤ <보기>와 ①은 모두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음운 현상은 아니다.

176) [2010년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38.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㉞ ④

㉞ 중복 표현의 유형(①)은 둘째 문단에서, 중복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②)는 마지막 문단에서, 중복 표현의 의미 구조(③)는 넷째 문단에서, 중복 표현의 내적 구성 방식(⑤)은 셋째 문단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 표현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④는 본문을 읽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177) [2010년 5월 고3비상 모의고사] 39. [자료의 이해를 통한 원인 추론의 적절성 판단] ㉞ ②

㉞ 제시된 문장에서, '최근'이라는 말에는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므로 '그녀는 최근의 유행가만 골라서 불렀다.'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최근'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로 인해 '최근' 앞에 다시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중복하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이 생긴 원인으로는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 180) [2010 3월 고3중앙 전국모의] 19. [다른 자료에의 적용] ㉞ ⑤

㉞ e에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반갑더냐(형용사)'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2인칭 주어 '너'는 '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갑더냐'의 '-더-'는 2인칭 주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지각을 나타낸다.

## 181) [2010년 3월 고3대성] 42. ㉞ ②

㉞에서 '잡다'의 일반성은 물건 따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말한다. '트집을 잡다'는 '기회를 잡다'와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㉞의 '공을 차다', '나이가 차다', '쪽 박을 차다'에서 '차다'는 그 음만 같고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어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㉞의 '뭇이 빠지다'와 '머리가 빠지다'에서 '빠지다'는 '박힌 물건 따위가 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사랑에 빠지다'에서 '빠지다'는 '물이나 구멍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쓰인 경우이다.

## 182) [2010년 3월 고3대성] 43. ㉞ ③

글의 끝부분을 보면 원형 의미가 확장 의미보다 인지적 측면에서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 등이 적게 든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조건이 아니라면 일차적이고 원형적인 의미의 '바람이 분다'를 말 그대로 생각 할 것이다.

㉞ ① 원형 의미의 '바람'에는 서술어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서술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확장 의미의 '바람'에는 원형 의미에서 쓰였던 서술어 중 일부만 가능하다. ② 확장 의미에 쓰인 '바람'을 보면 주로 심리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상징성을 띠며 쓰이는 경우가 많다. ④ 확장 의미는 원형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다의적 관계라 할 수 있다. ⑤ 글의 끝부분을 보면, 확장 의미는 원형 의미에 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언급이 있다. 실제 원형 의미의 '바람'에는 다양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확장 의미의 '바람'에는 각각에 붙을 수 있는 조사가 한정되어 있다.

## 183) [2009년 6월 고3종로] 33. ㉞ ④

㉞ 말소리의 연관성은 모음 사이(나, 다), 자음 사이(라), 자음과 모음 사이(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은 (나)를 통해, ②는 (라)를 통해, ③은 (마)를 통해, ⑤는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84) [2009년 6월 고3종로] 34. ㉞ ③

㉞ ③은 'ㄱ' 모음은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다른 색깔의 소리와 만나게 되면 자신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다른 소리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아무런 특징을 가지지 않는 'ㄱ'모음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근거이다.

[오답해설] 셋째 문단은 'ㄱ'(또는 'ㄴ')와 'ㄷ'가 결합하여 'ㄱ'로 발음된다는 소리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과 무관하다.

## 185) [2009년 6월 고3종로] 35. ㉞ ⑤

㉞ 셋째 문단에서 'ㄱ'(또는 'ㄴ')와 'ㄷ'가 결합하여 'ㄱ'로 소리 난다고 하고 있고, 다섯째 문단에서 입술소리(ㅁ, ㅂ, ㅍ)가 'ㄷ'를 구성 원소로 갖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종합해서 추리해 보면 '아'와 'ㅇ'에 들어있는 'ㄷ'가 (다섯째 문단) 어미 '아'와 결합하여 'ㄱ'로 발음된 것(셋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다.

## 186) [2009년 5월 고3중앙] 35. [세부 정보의 확인] ㉞ ⑤

㉞ '아침'과 '저녁'은 특정 시간대를 가리키다가 그 시간대에 먹는 음식인 '아침', '저녁밥'이라는 대상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점심'은 불교용어가 일반 사회에 전입되어 '낮에 먹는 끼니'라는 일반적 의미가 생겨났고, 이어서 '끼니를 먹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대상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⑤는 이러한 글의 내용을 잘못 정리하였다.

## 187) [2009년 5월 고3중앙] 36. [비판의 적절성 판단] ㉞ ④

㉞ <보기>의 주장대로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녁'이 결합하면 '저물녁' 혹은 '점글녁'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형태들에서 '-물-'과 '-글-'이 생략되어 줄어들면 '저녁'의 어형이 나온다. 그러나 어간의 일부인 '-물-'과 '-글-'이 생략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러한 추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답] ① '저물다'의 옛말인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이미 시간 개념(해가 저물 무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기>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문이 될 수 없다. ② '녁'은 방향을 뜻하는 공간 개념으로, '저녁'이라는 대상개념은 '저물다' 또는 '점글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개념의 포함 여부는 <보기>에 대한 비판적 의문이 되지 못한다. ③ <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제기한 의문에 해당한다. 또한 '저녁'이 '저녁'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점심'이 '점심'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모음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공간 개념인 '녁'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적절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

## 188) [2009년 5월 고3중앙] 37.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㉞ ④

㉞ 17세기 이전에는 '저녁( )'의 뜻으로 '나조ㅎ'나 '나죄'가 일반적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북부 방언 '나죄', '나주악', '나줏손' 등에서나 확인된다는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ㄴ의 '나줏손'은 '저녁'과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ㄴ에서 '나줏손'이나 '저녁'은 모두 공간개념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오기까지의 사이'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① ㄱ의 문맥으로 보아, '아침'은 아침 시간대를, '나조ㅎ'는 저녁 시간대를 가리킨다. '아침밥' 또는 '저녁밥'을 나타내는 대상 개념이 아니다.

## 189) [2009년 3월 고3대성] 37. ㉞ ③

㉞ 이 글은 문법기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단어의 정립 기준을 설명한 뒤, 한글맞춤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현재의 국어 문법의 단어 정립 기준을 예문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현재 국어 문법에서의 단어의 정립 기준이다.

## 190) [2009년 3월 고3대성] 38. ㉞ ②

㉞ 한글맞춤법에 참여한 학자들은 '읽었다'를, '읽, 었다'의 두 단어로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읽'과 '었다' 모두 단어의 정립 기준인 자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읽'과 '었다'는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결합해야만 비로소 쓰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읽었다'는 '읽+었+다'로 더 세분할 수 있다. ③ '읽었다'의 '읽'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형태소이다. ④ 다른 조사의 개입 여부는 단어의 정립 기준인 분리성

-관련된 내용이다. 자립성의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 '읽었다'와는 무관하다. ⑤ '읽었다'를 '읽, 었다'의 둘로 나누어도 '읽'에 '읽다'의 실질적 의미가 남아 있다.

191) [2009년 3월 고3대성] 39. 답 ②

■ ⑥는 단어를 어절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까치, 한, 마리도, 먹이를, 찾고, 있었다'의 여섯 어절로 되어 있으므로 단어 역시 여섯 개다.

[오답해설] ① ㉠은 '찾, 고, 있, 었다'의 4개의 단어로 나눈다. ③ '한'은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로 얼마든지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자립성을 지닌 한 단어이다. ㉡의 견해에 부합된다. ④ 현재 국어 문법에서 조사는 분리성을 지니므로 단어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⑤ '까치'는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쓰인 자립형태소이므로 ㉢~㉣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데 이견이 없다.